제 22집

逍遙의 脈

(소 요 맥)



동두천문화원
A000115

東豆川文化院

제22집

逍遙의 脈

東豆川文化院

차 례

발간사

2008년도 사진으로 보는 동두천문화원 역사

특 집 I 인륜질서(人倫秩序), 예와 효 / 時學 홍경섭 ····· 22
특 집 II 등화가친(燈火可親) / 時學 홍경섭 ····· 25
특 집 III 고구려의 건국 /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택기 ····· 29
특 집 IV 정인지의 고려사 / 민족사바로찾기한수이북지부 대표 김택기 ····· 47
특 집 V 기축년(己丑年)의 유래 /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이명수 ····· 80
상식교실 관청명(官廳名) / 관직명(官職名) ····· 83
기행문 태백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 동두천문인협회 白蓮 원화윤 ····· 157

제 1 회 장애인 자립체험 문학상 공모전
아름다운 동행 / 백경애 ····· 161
약 속 / 최중건 ····· 163

제 20회 백일장 우수작품

<산문>

고등부 대상_김은지(정보산업고 1년) ····· 166
차상_김희정(정보산업고 1년) ····· 168
차상_김정민(동두천고 1년) ····· 169

중등부 대상_박하영(동두천여중 1년) ····· 173
차상_이희재(중앙중 3년) ····· 175
차상_조윤빈(중앙중 3년) ····· 177

초등부 대상_이소미(생연초등 6년) ····· 179
차상_김예은(송내초등 6년) ····· 180
차상_이희주(지행초등 3년) ····· 181

<시>

고등부 대상_김혜경(정보산업고 1년) ····· 184
차상_김수경(외국어고 2년) ····· 186
차상_유동균(외국어고 2년) ····· 188
중등부 대상_석주희(보영여중 2년) ····· 189
차상_김태연(생연중 3년) ····· 190
차상_이아연(보영여중 1년) ····· 192
초등부 대상_정은지(소요초등 2년) ····· 194
차상_김수민(동두천초등 5년) ····· 195
차상_이규태(송내초등 4년) ····· 197

시민의 장 수상자 ····· 198
동두천문화원 회원 명단 ····· 203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 ····· 206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207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회원 명단 ····· 208



표지사진_쪽동백나무
촬영_전동배(동두천중학교 교사)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 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환경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 10. 10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발간사

동두천문화원장 **안 민 규**



10년 만에 정권교체, 촛불시위, 중국의 대지진참사, 베이징올림픽, 멜라린파동, 세계적인 경제 불황,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흑인대통령 선출 등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기축년 새해 소요산 공주봉의 새로운 태양은 유난히 밝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기」 적같은 행운과 「축」 제같은 기쁨이 「년」 초부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여 결실을 맺는 문화창달과 지역문화, 전통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 온 『逍遙의 脈』 제22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 · 정보화 · 문화화로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 정보화시대에 살게되었습니다. 산업화시대에는 인간이 물질을 축적하고 가공하는데 주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지식 정보화사회는 문화를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관리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튼튼한 문화적 기반이 없이 이루어진 사회는 언제, 어느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훌륭한 문화를 많이 가진 국가나 도시는 멸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존속할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많은 발전과 번영을 해왔습니다. 또한 일등국민 · 일등시민은 문화가 만듭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한다."라고 〈지방문화원진흥법〉 법률 제8745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할 때라고 봅니다.

흔히 일반과학문명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지만 정신적인 풍요를 이룩하는 것은 문학이라고 합니다. 20회동안 백일장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학생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맑고 고운심성을 심어주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逍遙의 脈』 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逍遙의 脈』 이 지속적인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축년에는 근면 성실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소같이 한걸음씩 뚜벅뚜벅 걸어서 희망을 주는 도시,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밝은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하겠습니다.

제22집 『逍遙의 脈』 이 출간되기까지 고귀한 글과 자료, 성원과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시민, 문화 가족여러분!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12.



동두천문화원 정기총회(2월 14일)



전통예절 강사 양성(3월 13일)



향토문화 유적 해설사 양성과정



유적해설 양성반 현장수업<어유소 장군 묘>



전통 성년 예의식(5월 19일)



청소년 백일장
(5월 6일)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교실<한국어 배우기>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교실<한국음식 만들기>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교실<단오놀이>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교실<부채만들기 등>





이주여성 한국문화체험 〈전통예절 및 혼례〉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향토문화 유적 답사(태백시)



문화학교－문인화반





문화학교－서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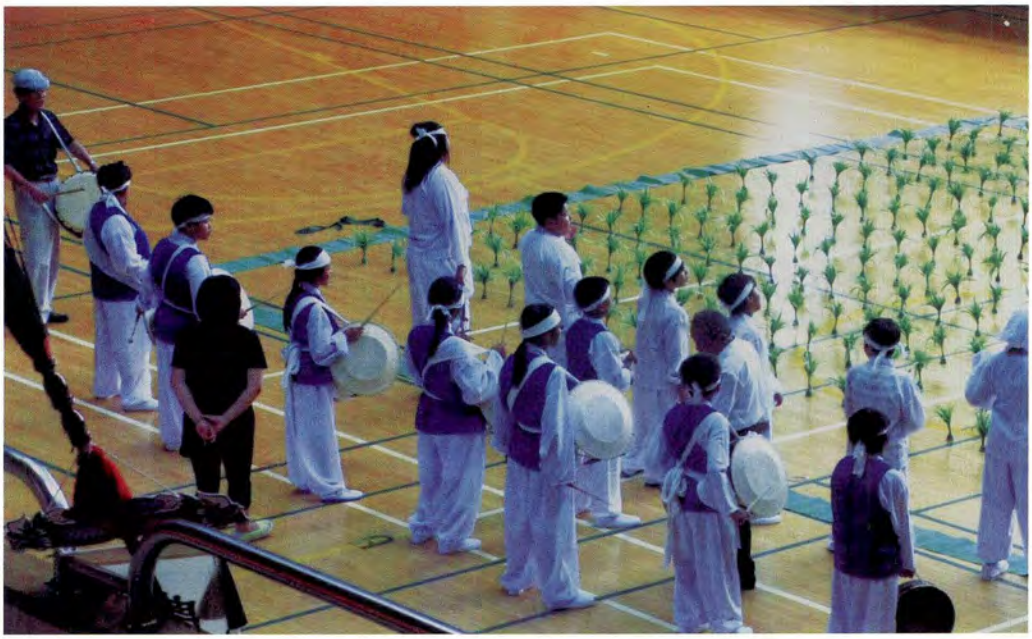
2008 추석을 불우이웃과 함께(9월 13일)



삼충단 추기제향



행단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동두내 두레소리」

특 집

Ⅰ. 인륜질서(人倫秩序), 예와 효

Ⅱ. 등화가친(燈火可親)

Ⅲ. 고구려의 건국

Ⅳ. 정인지의 고려사

Ⅴ. 기축년(己丑年)의 유래

특 집 I

인륜질서(人倫秩序), 예와 효

성균관유도회동두천시지부
지부장 時學 홍 경 섭

질서는 하나의 선(善)이요, 미(美)다. 무질서는 하나의 악(惡)이요 하나의 추(醜)다. 질서있는 가정, 질서있는 사회, 질서있는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랴!

무질서한 가정, 무질서한 사회, 무질서한 정치가 난무하는 나라, 무질서한 것처럼 나쁜 것이 없다. 미국의 철학자 죤 듀이는 「문명은 질서다」 라고 외쳤다. 문명한 사회는 질서가 있는 사회요, 미개한 사회는 질서 없는 사회다. 질서 속에는 정연한 미가 있고, 평화로운 기쁨이 있고, 건전한 선업(善業)이 있다. 옛 선인은 만물유서(萬物有序)라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모름지기 질서가 있고 또 있어야 한다. 질서란 무엇이냐, 사물의 올바른 순서요, 도리다. 또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요, 올바른 법칙과 규범을 따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할 곳에 있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가야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BC 2세기경 유안(劉安)이 쓴 회남자(淮南子)에 「보조개가 볼에 있으면 아름답지만, 이마에 있으면 흉측하다.」 하고 하였다. 마땅히 제 자리에 있어야 정상이요, 정도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은 의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상에는 3대질서가 있다. 첫째는 자연의 질서요, 둘째는 사회의 질서요, 셋째는 도덕의 질서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은 붕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도덕은 부패한다. 우리는 질서의 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질서의 덕을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과 의지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公正)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질서있는 사회란 국민들이 공정한 질서의 법칙을 지키는 사회요, 무질서한 사회란 질서의식이 뒤떨어진 나라로 국민들이 공정한 질서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다. 저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하고 남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 사회질서요 도덕 질서다.

질서의 덕을 강조한 공자 스승은 일찍이 정치의 요체(要諦)를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즉'君君'이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臣臣',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父父',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子子',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저다워지기를 힘써야 한다. 저답다는 것은 저마다 제자리에서 마땅히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사회 · 도덕 질서는 저절로 확립될 것이다. 도덕 질서는 하나의 선미(善美)요, 하나의 의심이요, 하나의 예의다. 따라서 예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품위요, 지켜야 할 도리다.

한마디로 예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요, 올바른 몸가짐이다. 예에 벗어나는 표정이나 행동, 태도는 때로는 상대방을 분노케 한다. 우리는 남에게 에스럽지 않은 표정이나 말씨, 태도는 삼가야 한다. 공자는 「예를 알고, 예를 배우고, 예를 행하라」라고 예의 지행일치(知行一致)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밝은 표정, 올바른 몸가짐으로 예를 갖추어야 한다.

예컨대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을 짓고, 공수(拱手 ; 올바른 몸가짐)로 예를 갖추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자식의 도리라 하겠다. 이 같은 예는 어버이에 대한 보편적인 도리일 뿐이지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이 도덕의 질서, 인륜질서인 즉 이것이 바로 예요, 효다.

불교는 부모은중경에서, 유교는 효경 · 시경 · 예기 등에서 어버이에 대한 효를 강조하였다. 기독교는 십계명 중 5항 및 성경 말씀 중에서 레위기 19장 3절, 마태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사상이나 종교가 모두 인간의 도리로 효를 강조하고 있다. 각설하고 충효예실본총재 김철운 박사의 오부오효론(五父五孝論)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효 -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버이를 모시는 효도 [예기에서는 삼효를 가르친다. : 존친, 불욕, 능양]

(2) 충효 -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로서 국가수반 즉 나라에 충성하는 효도.

(3) 봉효 - 이웃 (사회)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는 효도.

(4) 존효 - 지성과 인격을 가르쳐 길러주시는 스승님을 우러러 존경하는 효도.

(5) 경효 -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길러주신 하느님께 경외하는 효도.

이상에서 볼 때 효야말로 인간이 행해야 할 근본도리이다. 효는 지난 시대의 낡은 도덕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인륜질서요 불변의 예도다.

결론으로 효 즉 예요, 예 즉 효다. 효는 인간의 가장 존귀한 정신이요, 아름다운 마음씨다. 우리는 온고지신해야 한다. 효를 온고지신하고 실천할 때 오늘날은 물론 앞으로의 윤리질서는 확립되리라.

특 집 Ⅱ

등화가친(燈火可親)

동두천문화원
고문 時學 홍 경 섭

가을은 바야흐로 여물어 가고 있다. 이 상쾌한 계절이 찾아오면 으레 등화가친을 강조하면서 책 읽기를 권장한다.

더없이 쾌적한 날씨는 사람마다 사색의 나래를 한껏 펼치게 한다. 특히 풀벌레소리 그윽한 밤이면 무엇인가 읽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계절이다.

중국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韓愈)는 그의 독서권학시(讀書勸學詩)에서 「때는 가을이라 비는 개고 서늘한 바람이 들에 불어오니 등불을 앞에 당겨 가까이 놓고 밤이 깊도록 책을 읽어라」고 하였다. 독서란 꼭 어느 계절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 4계절 가운데 독서하기에 가장 알맞은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독서의 즐거움은 예부터 문화생활의 매력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임어당(林語堂)은 그것을 「문화적 인간의 특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독서는 인생의 깊은 만남이요, 행복한 만남이다. 또한 정신적인 만남이자 창조적인 만남이다. 「격몽요결」을 읽으면 율곡(栗谷)을 만날 수 있고, 「유정」을 읽으면 춘원(春園)을 만날 수 있고, 「도덕경」을 읽으면 노자(老子)를 만날 수 있고, 「파우스트」를 읽으면 괴테를 만날 수 있다.

위대한 인물과의 만남, 이것처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책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눈다. 독서는 인생의 행복한 대화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

의 가장 위대한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독서는 동서고금의 탁월한 선철(先哲)과의 깊은 정신적 대화다. 우리가 옛날의 위대한 인물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그들은 이미 가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책 속에서 살아있다. 우리는 역사의 위인들과 정신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한다.

독서는 즉 만남이다. 책은 사상(思想)의 저장이요, 진리의 창고요, 영감(靈感)의 원천이다. 따라서 독서는 정신적 개안(開眼)은 물론, 우리 마음의 눈을 새로 뜨게 한다. 삶의 양식이며, 삶의 지표이며, 길 찾아 헤매는 길손의 이정표이다. 또한 책은 마음을 키워주는 양식이자 생각을 길러주는 최고의 스승이다.

옛사람은 한우충동이라고 했다.'책을 달구지에 실으면 너무 무거워서 소가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쌓으면 마루가 넘칠 정도로 책이 많아야 했다.'는 말이다. 머큐리는"책이 없는 대궐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책이 있는 다락방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책을 귀히 알고 정성들여 읽는 사람이 현자이며,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인도를 벗어나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한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에서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한다고 우리의 선인들은 말한다. 첫째는 집안에서 어린애 웃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어린애의 희희낙락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그 집을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것이다. 집안에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가정의 큰 비극은 없다. 그것은 그 집안의 종말을 의미한다. 둘째는 집안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일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싸우는 소리나 노는 소리만 들린다면 그 집안은 쇠퇴(가난)할 수 밖에 없다.'근근자자(勤勤孜孜)'썩 부지런하고 충실하며 정성스러워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집안이 부하고 번영한다. 셋째는 집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독서하는 가정이 흥왕하고 공부하는 집안이 잘 살 수 있다."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讀書日起家之本)."고 했다.

또 한 예로 옛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말하는 가운데 첫째는 자기 자식의 입에 주먹덩이 같은 밥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둘째는 가물어서 거북이 등 같이 갈라진 모 심은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은 첫째가 책 읽는 여인의 모습이며 둘째는 젖먹이 애기를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셋째로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애기를 안고 책을 읽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책을 읽는 여인의 모습은 아름답고 고고(孤高)하며 순결하고 청아하고 밝고 깨끗하며 잘 익은 한 송이의 청포도보다 더 탐스럽다. 책을 읽으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며 인격과 정서를 함양하며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타인의 인생관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책 속에서 길을 찾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책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산행길을 오가는 차 속에서 아니면 정류장에서 또는 아무 장소에서 몇 분이라고 책과 친숙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슬기요 아름다움이다.

지금은 책 읽기 좋은 가을이다. 이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더 짚고 넘어갈 일은 주변의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책을 읽을 시간 말고 무엇을 할 시간이 남아있단 말인가? 책은 남는 시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시간으로 읽는 것이다. 책을 안 읽는 사람에게 책을 읽는 시간은 고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넉넉한 시간이 있어도 책을 안 읽는다. 책을 안 읽기로 한다면 아무리 남아도 그것은 썩은 시간이고, 시간의 부패요 악취 나는 시간이다.

책을 모르는 책맹(册盲)은 글을 모르는 문맹(文盲)보다 더 위험하다. 문맹을 자기의 무지(無知)를 자인(自認)하지만 책맹은 자신이 무지한 줄을 모른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글은 무엇하러 배우는가? 글을 배웠으면서도 책을 안 읽는 것은 인생의 퇴학(退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가 인류역사의 가장 큰 스승은 책이라고 한다. 새삼 책의 좋은 점과 책이 역사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 함께 책을 펴자. 그리하여 미래를 준비하자.

"사대부가 3일을 독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우친 어언(語言)이 무매(無昧)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로 보기가 가증스럽다."고 송대(宋代) 소동파 시인과의 교우(交友)가 깊었던 황산곡(黃山谷)이 말했다. 독서가 인간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 준다.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며칠 전에 안중근 의사는 이런 글을 남겼다."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라고 한 그의 유명한 교훈(유훈)은 정말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책 속에는 만종의 곡식이 있고 황금의 가옥이 있다고 하였다. 책 속에는 한량없는 지혜와 한량없는 부(富), 한량없는 덕(德), 한량없는 힘이 있다. 책은 무량지(無量智) · 무량부(無量富) · 무량덕(無量德)을 담은 위대한 그릇이다. 책 속에는 진

리의 광맥이 빛나고 지혜의 원천이 있다. 우리의 선인들은 인생삼보(人生三寶)로, 사(師)·우(友)·서(書)를 들었다. 뛰어난 스승과 훌륭한 벗과 좋은 책은 인간의 세 가지 보배다.

우리는 좋은 스승과 좋은 벗과 좋은 책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좋은 스승, 좋은 벗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좋은 책은 우리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좋은 책한테로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책을 읽는 사람의 자세다.

한 마디로 하루가 다르게 지식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도 역시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밤새워 독서한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밤새워 좋은 책을 읽어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허약한 정신을 살찌워보자!

이 가을이 독서의 생활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 집 Ⅲ

고구려의 건국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 택 기

1. 고구려의 건국설

가. 삼국사기편

고구려의 건국설은 대략 3가지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권에 보면 부여와 해부루는 늙어서 자식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낼 때 대를 잇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어느 날 말을 타고 부여왕이 산천인 연못에 이르렀을 때 큰 돌을 보는 순간 그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를 시켜 돌을 굴려 보았다.

그 곳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금색 개구리 현상으로 있어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하늘이 내려준 씨앗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은 금와(金蛙)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왕 해부루가 죽자 금와는 왕위에 올랐으며 그 후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고 적고 있다. 금와가 왕위에 오른 후 일곱 아들을 두었는데 어느 날 태백산 남쪽 발수에서 하백녀인 유화를 유인하여 압록변에 있는 사택에 가두어 놓고 유화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 당시 유화는 동생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자칭 천제자인 해모수에 의해 감금당한 후 임신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알이 어찌나 컸던지 닷 되나 되었다고 한다.

본문에는 인이유잉생일란대여고승허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알이 아니라 서자를 알로 비유한 문장이다.

서자가 태어나자 금와왕은 개, 돼지가 있는 곳에 아이를 버렸으나 먹지 아니했다. 길 가운데 버렸으나 소와 말이 피해갔다. 그 후 들에 버렸으나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덮었다. 왕은 화가나 알을 깨버리려 했으나 깨지지 아니했다.

즉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는 수없이 유화인 어머니가 강보에 싸서 집으로 데리고 와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껍질을 깨고 남자아이가 나왔다고 되어 있다.

즉 서자를 왕이 죽이려고 갖은 수단을 다 썼으나 죽지 아니했다는 것을 뜻하는 문장이다.

주몽이 일곱 살이 되자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니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의 속담에 따르면 명사수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는 해부루왕이 죽은 후 왕위에 오르자 국호를 동부여라 하고 도읍지를 옮겼다.

그 후 금와는 일곱명의 아들이 있었다. 언제나 주몽은 놀기를 좋아했는데 그 기능이 매우 우수하여 그 누구도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금와인 부여왕의 큰 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고 했다. 주몽의 사람됨이 너무나 용맹해서 일찍 손을 쓰지 아니하면 후환이 두려우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청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아니했다. 신하를 시켜 말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주몽이 워낙 뛰어남을 알고 아주 여윈 말을 기르도록 했다. 하지만 주몽은 여윈말을 살찐 말로 잘 길렀다. 왕이 살찐 말을 직접 타보고는 아직도 말이 여위었다고 주몽에게 말하였다. 하지만 주몽은 살찐 말을 타고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주몽은 명사수가 되었다.

여윈 말을 살찌운 뒤 주몽이 들에서 사냥하는 무예를 닦은 결과적은 화살로 많은 짐승을 잡았다.

그 당시 왕자와 여러 신하들은 주몽을 죽일 것을 모의했다. 이때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이러한 사실을 엄밀히 탐지하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하니 너는 재주껏 어디든지 가도록 당부하였다. 만약 지체하게 되면 엄청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려면 적당히 먼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주몽은 오이, 마리, 협부 등 세 사람의 친구와 함께 이른 곳이 엄사수였다. 엄사수는 일명 개사수라 했으며 압록의 동쪽에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개사수는 개마대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므로 현도군에 속해있다.

현도군은 지금의 섬서성 서안을 말한다.

후한서 동옥저편에 고구려가 있던 곳은 개마대산의 동쪽이라 했다. 이곳은 개마현의 이름이며 현도군에 속해있고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 서쪽으로 평양은 즉 용왕검이 있던 왕검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주몽이 달아난 곳은 엄사수라 했으므로 지금의 섬서성 서안 동쪽에 있는 동관 주위에 있는 위하의 동쪽 하남성 서쪽편인 듯 하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1,128쪽 개마대산의 기록을 보면 동옥저와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었다고 되어있다. 주몽이 오이, 마이, 협부 등 세 친구와 함께 엄사수에 이르렀다고 했으므로 섬서성 서안의 동쪽으로 황하의 지류인 위하 즉 위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주몽일행은 엄사수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없어 건널 수 없었다. 뒤에서는 부여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은 강물에 막혀 건널 수 없었다. 다급한 나머지 주몽은 큰소리로 나는 천자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으로 도망 오는 것이라고 외쳤다. 뒤에서 쫓아오는 자가 오면 큰일이라고 했을 때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놓아 주었다. 여기서 물고기와 자라는 실제 물고기와 자라가 아니라 강 건너에서 천자의 외손으로 금일 도망 온다는 소리를 들은 하백의 후예들이 헤엄쳐 구출하러 왔던 것이다.

고대사회의 언어는 해학적이며 비유적이고 온유적이면서 풍자적인 언어였기에 강가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나타나 다리를 놓아주어 건너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문장이다. 주몽일행이 강을 건너게 되자 물고기와 자라는 흩어졌다고 했다. 뒤 따라오던 부여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모둔곡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서에 의하면 모둔곡이 있는 곳은 보술수라고 되어있다. 본문에서 모둔곡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찾아보았다. 모라는 나라가 있던 곳은 하남성 의양현이 있었다. 이곳에는 모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남성 낙양시 바로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연히 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 한사람은 마의 즉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누더기처럼 누덕누덕 기운 곳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주몽은 말하기를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성씨는 무엇이며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성과 이름이 없었던지 주몽은 이름과 성을 말해주었다. 삼베옷을 입은 사람은 이름을 재사라고 했고 너덕너덕 기운 옷을 입은 사람의 이름은 무골이라 했으며 풀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사

람의 이름은 묵거라고 했다. 또한 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주몽은 재사의 성을 극씨라 했고 무골의 성을 중실씨라 했으며 묵거는 소실씨라고 성씨를 하사했다. 이내 다시 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로부터 빛나는 명을 이어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터전을 닦는데 인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우연한때 세 사람의 어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각자 능력을 헤아리고 각각 일의 임무를 맡기로 하였다. 이들은 주몽과 함께 일행이 되어 졸본천에 이르렀다. 위서에 이르기를 졸본천은 흘승골성이라 했다. 여기서 졸본천은 흘승골성이라 했으며 흘승골성은 현도군에 속한다고 통전 고구려 편에서 고구려는 본래 부여에서 나왔으며 평양성에서 다스렸다고 되어있다. 졸본천에 있는 흘승골성은 보기에도 토질이 비옥하고 경관이 좋았으나 한편 산과 강으로 되어 있지만 산세가 험하다고 되어있다. 드디어 이곳에 도읍지를 정하기로 하고 궁실을 지었다.

비류수가 흐르는 위쪽으로 농막같은 풀집을 지어 살기로 했다. 본문에서 비류수가 흐르는 곳이라 했으므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 519쪽을 찾아보았다. 비류수는 환도성이 있는 환도산 아래 비류수가 동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환도성을 찾아보았다. 지명사전 51쪽에 환도는 고구려의 옛 도읍지라고 적고 있다. 통전에 의하면 성이 있는 곳은 환도성 아래 비류수의 동쪽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후한서 동옥저 편에 고구려는 개마 대산의 동쪽에 있으며 개마현의 이름은 현도군에 속한다고 적고 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 서쪽이며 평양은 즉 왕검성이라고 했으므로 삼국사기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주몽이 달아난 곳은 엄사수였으며 엄사수를 건너 모둔곡까지 이르렀고 다시 찾아간 곳은 졸본천이 있는 흘승골성이었다. 흘승골성이 있는 곳은 비류수가 있는 곳으로 개마대산의 동쪽이라 했다.

개마대산에는 평양성이 있으며 평양성은 요왕검 BC 2357년부터 요왕검이 살던 왕검성은 고구려가 도읍하면서 평양성이라 했으며 고구려 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개축하면서 장안성이라 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몽은 국호를 구려라 했으며 그로 인해 고위씨 즉 고씨의 성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주몽의 그때 나이는 22세라고 했으며 본래 부여왕은 아들이 없어 주몽의 사람됨이 비상하므로 부여왕이 죽은 후 주몽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제1권 시조편은 주몽의 고구려 건국설을 기록하고 있다.

나. 통전편

통전 고구려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구려는 후한의 조공을 받은 바에 의하면 본래 부여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 선조는 주몽이며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여로서 부여왕의 처라고 되어 있다. 어느 날 햇빛이 들더니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을 주몽이라 했다.

여기서 본문을 보면 (위일소조, 수유잉이생, 급장명왈주몽)이라고 되어 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은 부여왕을 본후 잠자리를 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임신 후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속언에 따르면 주몽은 명사수로서 활을 잘 쏘았으므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 그때 부여왕은 주몽을 버리기로 했다. 주몽은 동남쪽으로 달아나 보술수에 다다르고 흘승골성에 이르러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라이름을 구려라 하고 고위씨라 성을 갖게 되었다. 한무제(BC 140~135)가 조선을 멸한 후 고구려는 고을을 두게 되었는데 그곳은 현도군이라 했다. 이곳은 동진(AD 317~420)이후 고구려왕이 살던 곳은 평양성이라 되어있다. 즉 한나라 때의 낙양군이었으며 왕검성이라고 했다. 위나라 정시(AD 240~249)때부터 진 강제 건원(AD 343~344)에 이르러 모용황은 환도성을 침공하므로 인해 나라 안에 있는 성으로 도읍지를 옮긴 곳이 장안성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 보면 주몽은 처음부터 고구려란 나라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처음 도읍할 때 구려라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전 본문에서 구루는 구려이며 이름은 성이라 되어있다. 여기서 구루는 도랑을 말하여 구려가 하천의 주변에서 제후국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 당시 왕망은 구려병을 동원하여 흉노를 벌했다고 했다. 왕망은 아무 욕심없이 흉노를 물리치고 구려를 지키려고 나아갔다고 되어있다. 그때의 사회는 어지러워 모든 나라들이 망할 즈음에 이르자 도적 떼들이 창궐했으므로 왕망은 구려병을 일으켜 한나라를 격파한 후 고구려라고 이름을 고치고 천하에 반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밑에는 제후국으로 구려를 두기로 했다고 되어있다. 통전의 본문을 보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것이 아니라 왕망은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주몽과 왕망을 어떤 관계이며 고구려의 맥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문 제1장

고양씨와 고신씨편에서 고구려의 뿌리를 밝히기로 하겠다. 주몽의 이름을 보면 추모라고 했고 또한 중해라고도 했다. 한편 왕의 호로는 동명성왕 그리고 추모왕이라고 했다. 주몽은 22세 때 비류수 위쪽에 터전을 잡고 고구려라고 한 후 18년 뒤 40세에 승하했는데 용산에 장사 지낸 후 동명성왕이라 했다고 삼국사기에 적고 있다.

◎ 통전과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의 건국이 엇갈리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고구려라고 했다면 통전과 후한서 구려전에서는 왕망이 고구려라고 천하에 이름을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다.

◎ 고구려는 후한 광무제 8년(AD 25~56)에 파견사를 조공을 받쳤다고 되어있다. 그리하여 왕호를 받아 제왕으로 불리었다고 통전에는 적고 있다. 고구려국은 주로 요동의 동쪽으로 천리나 되었다. 이 때 남쪽으로는 조선이며 예맥과 동으로는 옥저가 있었고 북으로는 부여가 인접해 있었다. 고구려의 강역으로는 사방 2천리이며 많은 산들과 깊은 계곡이 있었고 들은 별로 없고 연못과 산과 골짜기 같은 곳에 살았다. 농사로는 작은 밭을 힘으로 일구고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자산을 갖고 살았다. 풍속으로는 절기마다 음식을 해 먹고 좋은 궁실을 수리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 통전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현도군에 속해 있는 흘승골성에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한 바와 같이 현도군은 지금의 서안일대이며 한나라 무제(BD 140~135)가 조선을 멸할 때 고구려 현을 두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현은 한나라 무제 때 있었으므로 그보다 훨씬 100년 전에는 구려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삼국사기와 다른 사서들은 고구려 건국을 BC 37년으로 보고 있으나 고구려 28대 보장왕 27년(AD 634~668)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금 900년으로서 고씨자한유국 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금 900년이라 하는 것은 고구려가 900년 이어 왔음을 말한다.

◎ 앞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 무제(BC 140~135)때 이미 고구려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건국 시기는 BC 37년에서 195년의 차이가 있으

므로 BC 232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건국연대는 구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고구려의 건국설은 삼국사기에서 위서를 인용한 흘승골성과 통전을 인용한 흘승골성 그리고 북사에서 인용한 흘승골성 등은 같은 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삼국사기에서 졸본천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궁실을 지은 곳은 비류수가 흐르는 위 땅에서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졸본천과 흘승골성 그리고 비류수의 지역은 모두 현도군에 속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주몽은 처음부터 구려를 건국할 당시 지금의 서안 동쪽인 개마대산의 동쪽인 현도군에서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후한서 동옥저 편에는 분명히 고구려가 개마대산의 동쪽인 개마현이며 이곳은 현도군에 속해있고 평양성 서쪽이라고 적고 있다. 평양은 고대 요 임금이 살았던 왕검성이라 했다. 이 기록은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보아서 주몽은 통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현도군에 속하는 흘승골성에 도읍지를 정한 후 건국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양서편

고구려의 선조는 동명이며 동명은 본래 북쪽 고리국의 왕자라고 했다. 고리국왕이 출행한 후 고리국 왕의 시녀는 후에 임신을 하였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같이 동명은 본래 북이 였던 고리국의 왕의 왕자로 되어있다. 자치통감 201권, 당기 17권 1,938쪽 당고종 때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고구려 백제하북지민이라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 백제는 하북성의 백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선조가 있던 고리국은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1305쪽에는 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이란 한국이며 고리국의 후손이므로 한의 기록을 보면 고리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한은 옛 나라 이름이다. 이곳은 지금의 하북성 고안현 동남이며 한나라 때 삼한의 땅이라고 되어있다. 한나라는 본래 진당숙우와 형제간이다. 즉 대부한만은 주(BC 1134~1116) 무왕의 큰 아들이며 진당숙우는 셋째 아들이다. 주무왕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인 성왕이다. 큰 아들 대부한만과

진당숙우는 각각 지방의 제후왕으로 있다가 주나라 위열왕(BC 425~402)에 진나라에서 분리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갈라져 나온 것이 삼한이다. 삼한이 떨어져 나오기 이전의 한나라는 전술한 바와같이 하북성 고안현 동남에 있었다. 다시 말해 한나라의 조상은 고리국으로 구려와 부여국은 바로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후예이다. 양서 본문에서 본 바와같이 고리국 왕의 아들이 동명이라면 주몽과는 년대 차이는 약 195년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AD 634~668) 27년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는 900년의 역사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고리국에서 갈라져 나온 부여에서 195년 후에 주몽이 하백여인 유화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몽의 건국 시기는 BC 37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한서 부여전에도 고리국의 왕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부여의 왕자가 주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서, 수서, 주서, 북사에는 본래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다고 되어있다. 즉 고구려의 선조는 부여임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당서와 구 당서에는 고구려가 생기게 된 것은 부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적고 있다.

◎고구려의 선조는 동명으로부터 나왔다. 동명은 본래 북이 즉 북쪽의 동이인 고리국의 왕자이다. 고리국 왕이 출타한 후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하였다. 고리왕이 돌아와 죽이려고 했다. 시녀가 말하기를 전에 천상의 기운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하여 큰 닭 같은 자식이 나에게 내려왔다.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고리왕은 듣지 않고 가두어 버렸다. 여기서 큰 닭이란 여자를 뜻한다. 즉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다.

◎그 후 아들을 낳았다. 왕은 그 아들을 돼지우리에 두게 했으나 돼지는 입으로 기를 불기만 하고 죽이지 아니하였다. 고리왕은 이상히 여겨 신이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내 그 소식을 듣고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점점 성장하면서 명사수가 되었다. 왕은 용맹스러움에 두려워 다시 죽이려 했다.

◎그 때 동명은 달아나 남쪽인 엄체수에 이르렀다. 군사들이 뒤 쫓아와 활을 쏘았으나 물에 떨어졌다.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떠올라 다리를 놓았으므로 동명은 물고기와 자라들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리하여 구려왕이 되었다. 그 후 가지처

럼 떨어져나가 구려가 되었는데 부여와는 같은 종족이었다. 동명왕이 세운 부여국은 한나라가 있던 현도군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본문에서 이궁격수의 문장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결점이다. 동명이 엄체수에 이르러 강을 건널 수 없었으므로 나는 하백의 외손인 천제의 아들이라고 외쳤다는 기록이 위서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와 똑같음을 볼 수 있다.

◎ 위서와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도망간 곳이 엄사수라고 했다. 엄사수와 엄체수는 같은 곳으로 일명 개사수라 했으며 압록이 있는 동북이라 했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그 후 이른 곳은 모둔곡이며 이곳은 보술수라고 적고 있다. 그 후 또 다시 이른 곳은 졸본천이며 이곳은 흘승골성이라고 되어있다. 한편 후한선, 동옥저 편에서는 개마의 동쪽에서 고구려가 도읍한 곳으로 되어있다. 삼국지와 남사에서는 환도성 아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후한서에는 개마대산의 동쪽에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적고 있다. 또한 통전과 양서 그리고 후한서, 동옥저 편에는 현도군에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위서와 당서, 구당서 그리고 수서와 주서에는 고구려의 도읍지가 평양성이라고 적고 있다. 흘승골성에는 고구려가 도읍한 것으로 되어있는 사서는 통전과 북사 그리고 주서이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마대산의 동쪽이나 흘승골성 그리고 평양성에서 고구려가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다는 곳은 현도군에 속하는 것으로 사서와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등에서 고증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건국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요즘 한국의 사학자들은 졸본수와 환도성이 만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북한의 평양에는 평양성이 없으며 본래 평양성은 모든 정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검성이다. 왕검성은 요임금이 살던 성으로 후일 평양성이다.

◎ 고구려의 건국설은 고리국에서 파생된 구려와 부여에서 발생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구려와 부여의 뿌리인 한이며 한의 뿌리는 고리국

이다. 고로 고구려의 건국은 고리국에서 생겼다는 설과 부여 해부루왕의 서자로 생겼다는 설 또한 부여와는 다른 종이라는 몇 가지의 건국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삼한의 군장으로부터 고씨로 이어져 왔으며 고씨의 먼 조상은 요, 순임을 통전은 기록하고 있다. 여하간 고구려의 건국은 삼한의 뿌리인 한에서 고리국으로부터 부여, 구려로 기원되었음을 정사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 자료는 고구려의 뿌리역사에서)

2. 고구려 전성기 疆域[영토]

◎ 고구려 건국시 강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가 초기 도읍지인 현도군에서 점차 강역을 넓히기 시작하여 두루 사방 2천리의 영토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전성기 강역은 얼마나 되었을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나라 때에는 고구려가 아닌 구려국으로서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했다. 현도군은 지금의 서안으로서 개마대산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후한서에는 적고 있다. 특히 개마대산에는 개마현이 있었으며 개마현은 현도군에 속해 있었다고 했다. 개마대산이 있는 곳은 평양성이 있는 서쪽이라 했고 평양성은 왕험성을 왕검성이라 했다. 왕검성은 삼국유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요 즉 요왕검이 살던 곳으로 고구려가 도읍하면서 평양성으로 바뀌었다. 평양성이 지금의 장안성이다. 평양성의 길이는 동서 6리라고 주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고구려가 성을 수리하고 다시 쌓아 지금은 평양성인 장안성의 길이가 무려 13.6Km이다. 수서와 북사에서는 고구려왕이 궁실을 좋게 수리했는데 도읍을 평양성이라 했으며 평양성은 역시 말하자면 장안성이며 동서가 6리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평양성을 언제부터 장안성이라 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고구려 11대 동천왕 21년 봄 2월에 환도성에 경난(학자들의 난동)이 일어나 부득이 다시 도읍지인 환도성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므로 동서가 6리였던 평양성을 다시 쌓았다고 했다. 동천왕 21년 전까지는 환도성에 있다가 학자들의 난동으로 인해 부득이 21년 봄 2월에 왕검성인 왕험성을 평양성이라 하고 성을 다시 쌓아 도읍지를

평양성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11대 동천왕 때부터 평양성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평양성이 동서6리라고 했는데 10리가 4Km이므로 6리라면 2.4Km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장안성의 길이는 13.6Km이며 폭은 약 13m가 된다. 다시말해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 4년 가을인 8월에 다시 평양성을 증축하게 된다. 그러나 고국원왕 12년 봄 2월에 다시 환도성을 수리하여 평양성에서 환도성으로 옮기게 된다. 다음해 13년 가을 7월에는 다시 평양인 동황성으로 또 다시 도읍지를 옮긴다. 이곳은 동황성이 있는 서경의 동쪽인 목멱산중이라 했다. 그 후 고국원왕 41년 겨울 10월에 백제왕이 직접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한 후 17대 소수림왕 7년 겨울 10월에도 백제군 3만 명이 평양성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8대 고국양왕 3년 봄 정월에 태자인 담덕이 옹립되고 8월에는 왕이 직접 군사를 일으켜 남쪽에 있는 백제를 정벌했다. 19대 광개토왕 2년 가을 8월에 백제의 남쪽변방을 침공한 후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한다. 3년 가을 7월 백제가 다시 침공해 오자 왕은 기병(훈련된 기병대) 5천명으로 격퇴시킨다. 그리고 8월에는 나라 남쪽에 7개의 성을 쌓았는데 도적 같은 백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장수왕 15년에는 동황성에서 다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긴다. 광개토왕 23년 여름 6월에는 위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정벌한다. 24년에는 위나라를 공략했다. 이때, 연나라의 백낭성을 극하게 했다. 즉 이긴 것을 뜻한다.

◎ 광개토왕은 남쪽으로 백제의 10성을 뿌리 뽑고 북쪽의 걸단을 정벌하는 등 남북으로 강역이 넓어짐을 볼 수 있다. 이후부터 고구려는 남벌과 북벌이 끝나갈 무렵 동벌(동쪽을 정벌)과 서벌, 특히 20대 장수만이 들어서면서 27년 겨울 11월, 12월에는 위나라가 파견사를 보내 조공을 받치려고 왔다. 다시 50년 봄에도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려고 왔다. 53년 봄 2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려고 왔다. 이때의 위나라는 북조인 북위를 말한다. 3국시 위나라 문제인 황초(AD 220~265년)가 망한 후 북조인 북위시대가 되면서 위나라 도무제인 탁발규가 등극(AD 386~396년)하면서 본격적으로 고구려에게 조공을 받치러 오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20대 장수왕 때 고구려는 천자의 나라로 대강국이었기 때문이다.

◎ 역시 장수왕 55년 봄 2월에도 위나라에서 파견사를 보내 조공을 받치러 왔다. 그리하여 58년 봄 2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오게 된다. 또한 계속해서 61년 봄 2월에도 63년 2월과 8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오게 된다. 20대 장수왕 62년 가을 9월에도 왕이 직접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해 함락시킨 다음 평양성에서 한성으로 도읍지를 옮긴다. 이때의 한성은 백제가 도읍하고 있던 지금의 사천성 성도이다. 즉 백제가 하남성에서 밀려 즉 백제가 하남성에 밀려 사천성 성도인 한성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지만 19대 광개토왕에게 함락되었다. 이때 백제는 대륙의 남쪽으로 쫓겨나 임시로 도읍했다.

◎ 64년 봄 2월과 가을 7월 그리고 9월에도 위나라는 조공을 받치러 온다. 65년 봄 2월과 가을인 9월에도 두 차례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려온다. 66년에는 송나라가 조공을 받치러 오고 67년 봄 3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온다. 또한 69년에는 남제에서 조공을 받치러 온다. 72년 겨울 10월과 73년 여름 5월 그리고 겨울 10월에도 역시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온다. 74년 여름 4월, 75년 여름 5월, 76년 봄 2월과 여름 4월 그리고 가을인 윤 8월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하러 온다. 다시 77년 봄 2월과 여름 6월 또한 가을인 9월, 겨울인 10월에도 네 차례에 걸쳐 위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왔다. 79년 여름 5월과 가을인 9월에도 북위에서는 조공을 받치러 왔다.

◎ 그 후 문자명왕 때 까지 북위의 조공은 이어졌다. 그 후 22대 안장왕 때에는 양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왔다. 23대 안원왕 때에도 북위가 한두 번 조공한 뒤 끊어졌다. 그러나 양나라에서는 계속 조공을 받치러 왔으며 북위에 이어 동위가 24대 양원왕 때 까지 조공을 받치러 왔다. 그러나 23대 안원왕 때 역시 양나라와 동위들을 계속해서 조공을 받치러 왔던 것이다. 특히 24대 양원왕 8년에는 평양성을 장안성이라 하고 장안성을 쌓았다고 했다.

◎ 고구려 24대 양원왕 6년부터 북제가 조공을 오기 시작했다. 25대 평원왕 때 에는 북제와 진나라 그리고 수나라까지 조공을 받치러 왔다. 28년에는 도읍지를 장안성으로 다시 옮겼다. 26대 영양왕 때까지 수나라에서 조공을 받치러 왔다는 것은 고구려

가 대강국인 천자의 나라로 부상했다는 증거이다. 영양왕 18년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고 자치통감 181권 수나라 양제 상편 1728쪽의 기록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같으므로 본문에 있는 것을 적고 풀어보기로 한다.

「고구려는 본래 기자가 도읍하고 다스리던 땅이다. 한나라 때 와 진나라 때 모두 군과 현이 있던 곳이다. 지금의 신하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곳은 다른 지역이라고 할 것이다. 고로 앞서 제왕들은 욕심을 갖고 다시 오래도록 정벌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그렇다면 고구려는 기자가 도읍한 곳과 한나라와 진나라에서 다스렸던 모든 군과 현이 있는 지역을 가진 강대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고구려의 강역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의 나라요 천자국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자치통감 195권 당나라 기록 11권 1886쪽을 보면 고구려는 본래 한사군인 현도, 락랑, 진번, 임둔의 네 군데의 군을 모두 고구려가 다스렸다고 되어있다. 그 뿐 아니라 자치통감 198권 당나라 기록 14권에 보면 동정 고려서토구자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고구려가 동쪽을 모두 정벌하고 서역에 있는 신강성 서쪽인 구자까지 토벌했다고 적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구려가 전성기에는 지금의 동부 삼성인 만주에서 내몽고와 외몽고 일부까지 모두 고구려 강토임을 정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771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본문을 해설해 보기로 한다.

「고구려의 나라는 그 선조가 스스로 부여에서 나왔다. 한나라 때 피난 와서 졸본수에서 살았다. 그로 인해 칭하기를 졸본부여라 한다. 그 지역은 한나라가 있던 현도군이며 현도군에 속하는 삼현 즉 세 고을이다. 그 중 고구려가 하나이다. 이로 인해 나라이름이 불러졌다. 그 강역은 서역인 서쪽을 걸친 거리이며 요동으로 천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구려가 전성기일 때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가 처음 도읍하여 비류국인 다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송양왕이 스스로 항복한 땅과 노예의 나라인 태백산 동남에 있던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벌하면서 사방 2천리의 강토로 넓혔다. 그 후로 광개토왕이 등극하여 남백제와 북쪽에 있던 걸안을 정벌하면서 강역이 동서 일 만 리 남북이 육 천리로 늘어나면서부터 강대국으로 부상되자 북위와 동위는 물론 양나라와 진나라 그리고 수나

라 등 여러 나라들은 제후국이 되어 강대국인 고구려에게 조공을 받치러 왔던 것이다. 심지어 산서성 태원에서 이연이 선통하여 당나라가 선지 8년 만에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고부터 고구려에게 조공을 받친 일이 있다. 강대국에 조공을 받치는 것은 호시탐탐 강국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사단법인 상고사학 학회 이중재 회장님께서 1999년도 소련에서 외몽고로 들렸을 때 박물관을 견학한 일이 있다. 고고학지인 서울대 임효재 박사와 고려대 김정배 교수 일해 7명이 몽고 박물관에 견학을 했었다. 이들은 몽고에 있는 유물을 보고 와서 발표도 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교육부 사회과학 편수관이었던 신순범씨와 교육부에서 함께 자리한 곳에서 몽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모두 고구려 것이라고 실토했었다. 그 후 이중재 회장이 편수관실 신순범씨에게 갔더니 편수관이 저에게 몽고에 다녀왔느냐고 물었다. 그 때 회장이 답하기를 고구려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서울대 임효재 박사와 김정배 교수가 와서 몽고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모두 고구려의 것임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말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상에서 고구려의 강역은 동쪽인 요동천리에서부터 중국대륙의 서역의 경계까지 전성기 때의 고구려 강역임을 정사에서는 확실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중국의 학자와 한국의 역사학자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고구려가 동부 3성에만 있었던 나라인가? 라고 다시 묻고 싶다. 제발 눈을 뜨고 고구려의 역사 아니 한민족의 역사를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역사교육에 눈을 돌리고 한민족의 위대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위에서와 같이 고구려는 몽고와 중국 대륙 전 국토를 가진 전성기 때의 강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음미해 주길 바란다.

고구려왕의 계보

삼국사기에 보면 왕망의 이름은 백고이다.

고구려 제7대 차대왕 때 명임답부는 국상으로서 차대왕을 시해하고 8대 신대왕, 백고를 옹립한 후 한나라 군사와 싸워 크게 승리하는 기록이 보인다. 신대왕의 이름은 백고로서 고구려 8대왕으로 오른 신대왕이 바로 왕망이다. 고로 왕망은 고구려를 국호로 새롭게 출발시킨 고구려왕이다. 그럼 왕망의 혈통과 고구려왕의 계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대 : 주몽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부여왕이 늙어 아들이 없자 산천에 기도드리기 위해 갔다. 부여왕의 말이 큰 고기가 있는 연못가에 이르자 큰 돌이 있는 곳에서 울음소리를 들었다. 신하를 시켜 돌을 굴려 보았다. 그 곳에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속의 개구리 같아 이름은 금와라 했다는 것이다. 왕은 하늘이 준 씨앗이라고 기뻐했다. 부여왕이 죽은 후 금와는 도읍지를 옮기고 나라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다. 금와왕이 어느 날 태백산 남쪽 우발수 사잉에서 유화를 만나 낳은 아들이 주몽이다. 그러니까 주몽이 서장이다.

제2대 : 유리왕의 이름은 유리로서 주몽의 원자이다.

제3대 : 태무신왕의 이름은 무휼로서 2대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다.

제4대 : 민중왕의 이름은 해읍주이며 3대 태무신왕의 동생이다.

제5대 : 모본왕의 이름은 해우로서 3대 태무신왕의 원자이다.

제6대 : 태조왕의 이름은 수이며 죽은 후의 휘호는 궁이다. 2대 유리왕의 왕자가 6대 태조왕이다. 유리왕의 왕자가 된 것은 태자가 태자답지 못하고 사직을 받을만한 사람이 못 되어 나라 사람들 중에서 옛 추가국인 재사라는 사람의 아들을 뽑아 궁으로 맞이한 사람이 태조왕이다.

제7대 : 차대왕의 이름은 수성이다. 6대 태조왕의 어머니의 동생이다.

제8대 : 신대왕의 이름은 백고이다. 6대 태조왕 막내동생이다. 신대왕 백고가 바로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다.

제9대 : 고국천왕의 이름은 남무이다. 8대 신대왕 백고 즉 왕망의 둘째 아들이다.

제10대 : 산상왕의 이름은 연우이다. 9대 고국천왕의 동생이다.

제11대 : 동천왕의 이름은 우위거이다. 10대 산상왕의 아들이다.

제12대 : 중천왕의 이름은 연불이다. 11대 동천왕의 아들이다.

제13대 : 서천왕의 이름은 약로이다. 12대 중천왕의 둘째 아들이다.

제14대 : 봉상왕의 이름은 상부이다. 13대 서천왕의 태자이다.

제15대 :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이다. 13대 서천왕의 아들이다.

제16대 : 고국원왕의 이름은 쇠이다. 15대 미천왕의 태자이다.

제17대 : 소수림왕의 이름은 구부이다. 제 15대 미천왕의 아들이다.

제18대 : 고국양왕의 이름은 이연이다. 17대 소수림왕의 동생이다.

제19대 :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담덕이다. 16대 고국원왕의 아들이다.

제20대 : 장수왕의 이름은 신련이다. 19대 광개토왕의 원자이다.

제21대 : 문자명왕의 이름은 라운이다. 19대 광개토왕의 손자이다.

제22대 : 안장왕의 이름은 홍안이다. 21대 문자명왕의 장자이다.

제23대 : 안원왕의 이름은 보연이다. 22대 안장왕의 동생이다.

제24대 : 양원왕의 이름은 평성이다. 23대 안원장의 장자이다.

제25대 : 평원왕의 이름은 양성이다. 24대 양원왕의 장자이다.

제26대 : 영양왕의 이름은 원이다. 제25대 평원왕의 장자이다.

제27대 : 영유왕의 이름은 건무이다. 26대 영양왕 어머니의 동생이다.

제28대 : 보장왕의 이름은 장이다. 27대 영유왕의 동생이다.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망은 중국인이 아니며 엄연히 고구려 8대 왕으로서 왕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 중국역사 기년표에서는 전한을 정벌한 후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으로 연대표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이름을 처음으로 천하에 포고한 사람은 신대왕 백고인 왕망임이 정사에서 고증하고 있다.

◎ 중국역사 기년표를 보면 왕망이 신이라는 나라를 세운 후 왕망의 연호는 시건국이며 다음은 천봉 그 다음이 지황이며 네 번째 왕이 갱시로 신의 나라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어서 후한인 동한의 광무제가 건국되는 것으로 연대표에는 되어있다. 그러나 아주 잘못된 역사 연대표를 중국에서는 조작하고 있다. 왕망이 고구려를 건국한 후 후한이나 동한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은 정사에 없다. 솔직히 말한다면 왕망은 고구려 8대 신대왕으로서 고구려의 천자의 나라고 계속 왕통을 이어 왔음이 고구려사 년대에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본다면 후한이나 동한이 아니라 후한이란 나라 자체가 고구려임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는 왕이 없는 것으로 본다. 후한은 고구려왕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청해성에 왕망이 산동성과 낙양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였다. 청해호 입구에 서해군유지비기 라는 비석이 2002년 중국 청해서 인민정부에 의해 세워져 있다. 비석내용은 왕망이 청해성 일대를 다스렸다는 것이다. 또한 청해호는 옛 청해 바다로 조선의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그렇다면 왕망을 고구려 8대 신대왕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동성 일대에서 청해성과 감숙성 동남부 그리고 서안을 중심으로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까지 광범위하게 통치했음을 알 수 있다. 왕망은 고구려를 세운 뒤 동쪽에서 서쪽까지 동서의 강

역이 약 6천리 이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왕망인 신대왕이 다스리던 남북의 강역은 약 4천리 정도임을 볼 수 있다. 고로 왕망은 고구려 8대 신대왕 백고로서 역사의 맥이 끊어지고 왜곡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 고구려가 약 900년간 대륙을 다스려 온 것은 왕망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해 바다 앞에서 있는 서해군 유지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망은 고구려를 세운 후 중국 대륙을 모두 지배하고 통치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집 Ⅳ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

민족사바로찾기한수이북지부
대 표 김 택 기

(가) 태조왕건의 출생과 활동상황

이제 정인지의 고려사를 부분적이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정인지의 고려사는 전부는 기록할 수 없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발취(拔取)하려고 한다. 발취한 여러 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뽑는다는 뜻이다. 독자들을 위해 정인지 고려사에서도 과연 현 중국대륙에서 고려가 도읍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원나라, 명나라 이전에 태조 왕건은 건국하게 되었으므로 왕운을 탔다고 볼 수 있다. 원나라 명나라가 강했을 때였다면 등극하지 못했을 것이다. 왕건은후양(後梁, 기원 후 555~562년) 대정(大定) 이름은 숙찰 왕의 칭호는 선제(宣帝)이다. 왕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 후양의 혈통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후양은 남조 때 속한다. 숙찰은 항복하여 위나라가 양나라 왕에게 벼슬을 주어 도읍을 하게 했다. 숙찰이 도읍한 곳은 강릉이다. 강릉은 현재 중국대륙에 있는 호북성 강릉현이다.

고려왕 태조는 덕이 있고 효성이 있으며 준수하면서도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밝은 혜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성(神聖 : 신과 같이 성스러운 것)한 대왕이라 했다. 성은 왕씨이며 죽은 후에 휘호(諱號)는 건(建)이라 했다. 왕건의 자는 약천(若天)이며 송악군 사람이다. 세조의 장자이다. 세조는 당나라 무종이다. 당나라 무종의 이름은 이법(李法)이며 연호는 회창(會昌 : 기원 후 841~846)이다. 당나라 무종을 당무후라고 한다. 당나라 무종인 무후(武后)가 바로 세종이다. 세조의 장녀인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후양(後梁 ; 기원 후 555~562 을해년) 선제였던 숙찰 왕후인 한씨는 당나라 건부(乾符 : 이름은 이현(李儇)) 왕의 연호는 희종(僖宗 ; 기원 후 874~979 갑오년) 4년 정유년 정월 병술일 닭띠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송악이다. 왕건이 태어 날에 남쪽에 걸쳐 신의 빛과 자색의 기운이 창공에 가득 차게 빛났다고 되어 있다. 그 때 뜰에는 햇빛이 반석처럼 빙빙 돌았고 어린용(龍)이 교합(交合)하여 총명과 밝은 지혜가 넘쳤다. 용안은 빛나고 있었고 얼굴과 넓은 이마는 준수했으며 넓은 얼굴 전체에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태조 왕건의 깊은 태도와 숨겨진 말은 넓고 웅장했으며 세상을 다스릴 만한 도량을 갖고 있었다. 옛날 신라시대 때 정책이 쇠할 무렵 많은 백성과 신하들 중에 서로 경쟁하듯 도적의 무리들이 성행했다. 이때 견훤(甄萱)이 반란을 일으켜 거점을 남주에 확보했다. 남주는 현 중국대륙에 있는 사천성 만현 서쪽이다. 견훤은 본시 상주(尙州는 요나라 때 요령성 경계) 가은현 사람이라고 삼국사기열전편에 적고 있다.

견훤은 본시 성이 이씨였지만 후에 견씨 성으로 개명한 것이다. 견훤은 남주 사천성 만현 서쪽을 거점 삼아 후백제의 궁예라 했다. 견훤이 거점을 확보한 사천성 만현 서쪽은 본시 백제 땅이었다. 백제가 쇠약하면서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 후에 백제와 쇠약하면서 고구려의 땅이 되었다. 후에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자 신라 땅이 되었다. 신라가 망한 후 오대(五代) 십국(十國)이 들어섰지만 결국 고려 땅이 되는 것이다. 견훤이 도읍한 곳은 철원이며 국호 즉 나라의 이름은 후백제라 했다. 지금 고금 중국지명대사전에서는 철저하게 지명을 바꾸어 그리하여 철원을 찾아보니 없고 철주만 보인다. 철주는 서안에서 서북쪽이라고 되어 있다. 감숙성과 섬서성의 경계로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세조는 당나라 무종(武宗 : AD 841~846 신유년)이다. 무종은 당 무후이다. 그러니까 당나라 세조 때부터 송악군을 두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나라 사찰 건영(沙察乾寧 : AD 894~898 갑인년) 3년 병진인 용해에 송악군으로 돌아왔다. 송악군으로 돌아온 후 크게 기뻐했다. 금성 태수는 당나라 무후인 세조의 말을 듣고 대왕은 욕심이 많은 왕이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은 옛 조선이었던 숙신의 땅이며 여기는 변한의 땅이다 라고 되어 있다.

앞에서 보면 송악군의 땅이름은 없어졌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감숙성에 있던 금성 태수는 감숙성 난주에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송악군은 감숙성과 섬서성의 경계선

지역인지 아니면 서안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원사나 명사에서 보면 송악은 동경이며 서경자 평양이라고 한 점을 보면 지금의 서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인지의 고려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악군은 조선 숙신(肅愼)의 땅이며 변한의 지역이라 했으므로 대륙의 섬서성 서북쪽임을 나타내고 있다. 선조들이 앞서 송악군에 와서 자리를 잡았으므로 태조 왕건이 축을 쌓고 참호를 파서 성을 튼튼히 만들었다. 그리하여 성주 즉 성의 주인은 태조가 되었다. 태조 20년은 당나라 광화(光化 : AD 898~901 무오년)원년이다. 이때가 무오년이므로 말띠해이다. 송악군을 옮겨온 태조는 모든 기병과 여러 가지를 재점검하였다. 대대적인 감사를 할 때가 태조 3년 경신 즉 잔나비해이다.

고려 태조의 명을 받아 넓고 광활한 충청의 3주 지방을 정벌했다. 여기서 충청 3주의 땅이란 충주, 청주 등을 말한다. 고려가 대륙에 있었기 현재 한국에 있는 충주와 청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한자로 된 땅이름이 완전히 정착될 때가 고려 27대 충숙왕(忠肅王 : AD 1332~1356 신해년) 때이다.

정도전이 기록한 고려사는 태조 이성계 4년인 1396년이다. 그리고 정인지와 김종호, 신숙주 등의 28명이 역은 고려사절요는 1452년 고려 제5대 문종 때이다. 이때 고려사의 지명이 충주와 청주도 대륙의 땅이였다.

그럼 충주를 찾아보기로 한다. 충주는 한나라가 설치한 임강현(臨江縣)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중국대륙인 사천성(四川省) 충현(忠縣)을 말하고 있다. 한편 안휘성 화현 동북으로도 되어있다. 청주는 당나라가 기미주라 했다. 송나라 때 귀주성의 옛 사남부의 경계에 있다고 적고 있다. 한편 직예성 청현으로 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본다면 사천성과 귀주성 그리고 넓고 광활한 땅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안휘성까지 합한다면 현재 한국의 땅 전체보다 약 4배 정도이다. 충청 3주란 얼마나 지역이 넓은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충청 3주와 더불어 당나라의 괴성(槐城)과 군현(郡縣) 모두를 합했으므로 강역의 넓이가 얼마나 커겠는가. 이 3주를 병합한 공을 인정받았다. 아찬은 당나라 천복(天復 : AD 901~904 신유) 3년 계해년 3월이다. 배를 타고 군사와 장수를 거느리고 발해바다에 있는 광주에 다다랐다. 이때의 광주는 지금 중국의 산동성 액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본문 p.286에 배가 광주에 이르자 즉시 금성군을 공격했다. 금성군은 금현이며 금현은 요서군이다. 요서군을 찾으니 하북성 옛 영평이다. 군사

를 거느리고 산동성 광주 즉 액현에서 육로를 통해 하북성 옛 영평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다. 이때는 주로 강과 바다를 이용하였다. 금성군은 금현이다. 금현은 영락현이다. 영락현은 하북성 남쪽 산서성 경계이다. 이때 공격하여 뺏은 10여군과 현을 통합해 금성이라 이름을 고쳤다. 한편 나주에 있던 남은 군인들은 계속해서 지키며 돌아오도록 기다렸다. 나주는 현재 중국대륙 남단에 있는 광동성 화현 동북이다. 태조는 훈령을 내려 병사를 급히 양주로 보냈다. 이때 양주는 춘추전국시대 때 땅이름으로 양이라고 했으며 후일 양주라 하였다. 이곳은 현재 중국의 강소성 비현이다. 태조는 정벌하고 돌아왔다. 왕건은 문변사(問邊事 :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책임자)에 맡기고 태조는 진안이라는 곳에 와 변두리 땅을 개척하고 좌우의 비서 즉 책략에 능한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당시 기이하게도 벼슬에 오른 사람은 알찬이다. 당나라 천우(天祐 : AD 904년) 2년 을축 즉 소달이란 섣달(12월)이다. 태조 왕건은 12월에 철원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음해인 천우 3년 병인월에 명령을 받은 태조는 정병과 말 탄 기병 등 장군을 거느리고 군대 사열을 가졌다. 그때 명령을 받은 정병의 군인들은 3,000명이 상주를 공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상주는 요나라 때 요령성 경계에 있는 것으로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은 적고 있다.

(나) 왕건과 신라 경순왕과의 관계

정인지 고려사 중에서 고려 도읍에 대해서만 기술해 보기로 하자.

다른 글들을 부분적으로 간략하게 뽑아서 적어 보기로 한다. 태조 2년 기묘(己卯)이다. 기묘란 토끼해를 뜻한다. 2년 봄 정월 즉 1월 도읍지를 정할 때, 송악의 양지쪽에 궁궐을 나누어지었다. 삼성(三省 : 세 곳의 성을 다스리는 관청)과 6 상서관(六尙書官 : 여섯 군데의 학문 연구소와 같은 관청) 그리고 9개의 절(九寺) 등을 세웠다. 또 고을과 마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부와 육위(六衛 : 여섯 군데 방비하는 곳)로 구역을 정리하였다.

3월초에는 법을 다시 만들어 왕의 제도에 대한 법과 사찰 즉 절 열 곳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었다. 도읍지 안에 두 곳의 서울을 두기고 했다. 탑과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고 초상은 부족했지만 곁들어 집을 짓고 수리하여 모시도록 하였다. 신

사년은 3대(三代 : 나, 아버지, 할아버지)에 걸쳐 만장처럼 시호를 붙여 추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증조부(曾祖父 :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즉 4대 조상임)까지 모시기로 했으며 원(元) 조상 즉 원 시조이던 원덕대왕의 부인인 정화왕후의 선조까지 추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히 아름답고 큰 조상인 경강대왕의 황후인 원창왕후와 세조는 당나라 무종 이름은 이법인 무위 대왕의 부인이었던 위숙왕후도 함께 사당을 지어 모시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고려태조왕건의 혈통계보를 간략하게 기록해 보기로 한다.

전항에서 왕건의 혈통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지만 여기서는 가까운 혈통에 대하여 정인지가 쓴 고려사를 인용해서 적어 보도록 한다.

필자가 1993년 여름 한 달 동안 대륙을 답사한 일이 있다. 그때 사천성 성도에 갔을 때 젊은 가이드(안내자)들은 한결같이 왕건은 농민의 자식으로 무위도식하다가 군대에 들어가 깡패 비슷한 천민의 후손이라고 들려주었다.

현재 중국 사천성에서는 젊은 안내자 교육을 왕건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 중국정부에서 역사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려는 수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위함이다. 필자는 고려사에 대해 책을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역사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집필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왕건의 증조부인 원덕대왕은 당나라 천보(天寶 : AD 742~756 임오년) 이자 당나라 9대왕이다.

당나라는 네 가지 당나라가 있다. 첫 번째 당나라(BC 2357~2259)는 요임금 때가 도당씨(陶唐氏)이다. 두 번째 당나라가 당고조인 이연(李淵) 무덕(武德 : AD 618~684 무인년)이다. 세 번째 당나라는 중종 이현(李顯) 신용(神龍 : AD 705~907 을사년)이다. 네 번째 당나라는 장종이며 이름은 이존욱(李存勖) 즉, 동광(同光 : AD 923~936 계미년)이다.

정인지의 고려사에서는 원덕대왕을 증조부로 보았다. 그러나 정인지의 고려사에서 따져보면 고조부에 속한다. 제왕운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도 태조 왕건에게 고조부가 된다. 원덕대왕의 후손은 당나라 숙종황제이다. 사실 원덕대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직계손이다. 태조의 증조부격인 사람일 당나라 숙종황제(AD 756년)이다. 숙종황제의 이름은 이형이다. 당나라 숙종의 연호는 지덕(至德 : AD 756년)이다. 태조왕건의 할아버지는 경강대왕이다. 경강대왕은 당나라 헌종이다. 이름은 이순이며 연호

는 원화(元化 : AD 806~820 병술년)이다. 아버지격인 사람은 당나라 세조이다. 왕의 연호는 무종이다. 무종의 이름은 이법이며 연호는 회창(會昌 : AD 841~846 신유년)이다. 세조인 무종은 당나라 무후이다. 즉 당무후(唐武后)라고도 한다. 당무후의 아들이 바로 왕건으로 되어있다. 그렇게 본다면 왕건은 엄연히 왕손이다. 농민이나 부랑배나 작배 출신이 아닌 왕의 혈손이 분명하다.

삼국사기 백제 의자왕편에 보면 당무후의 손자가 신라 마지막왕이었던 경순왕이라고 적고 있다. 경순왕은 일명 경습왕(敬襲王)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경순왕때 경순왕은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주색에 빠져 있었다. 이때 왕궁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장수와 사신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붙은 별명이 경습왕이라고 했다. 경습왕은 당무후의 손자라고 되어 있다. 당날 무후 즉 무종은 본이름이 이법이며 그렇다면 경순와이 이씨란 말인가 만약 이씨라면 친손자가 될 것이고 경순와의 성이 김씨라면 당나라 무종의 외손(外孫 : 어머니쪽의 손자)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해 외손자란 당나라 무종 이법의 부인인 위숙왕후(威肅王后)의 형제가 낳은 아들이 경순왕이란 뜻이다. 태조 왕건은 당나라 무종의 친아들이다. 즉 세조에게는 무위대왕이므로 왕건에게는 당나라 무종이 친아버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경순왕과 왕건은 어떤 사이인가 살펴본다. 물론 앞글에서 해답은 나와 있다. 왕건은 사실상 이씨이다.

그러나 경순왕(AD 927~935 신축년)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씨이다. 왕건은 당무후 즉 당나라 무종의 아들이다. 경순왕은 당무후의 손자이므로 삼촌 조카사이다. 다시 말해 경순왕의 외삼촌이 왕건이다. 친삼촌은 아니고 외삼촌격이다. 만약 왕건의 아버지인 당무종이 할아버지라면 신라 마지막 경순왕과는 외사촌이다. 외사촌은 형제 행렬이다. 왕건의 직계 조상이 세조인 것만은 정사에 기록되어 있어 부인할 수 없다. 당나라 세조는 무종이다. 이름은 이법이며 연호는 회창(AD 841~846 신유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왕건은 당나라 이씨의 직계혈손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정인지 고려사에서는 확실한 혈통관계를 고증해 주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다) 태조는 아선성을 쌓다.

그때 가을 8월 계묘년에 청주(淸州 ; 지금 중국 산동성 제남임)에서 쥐새끼같은 청주 수령이었던 순이란 자가 반역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퍼트려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홍을 친히 보내 위로하고 달래서 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계미년 9월에는 오월국(吳越國)의 문사(文士)인 추언규가 찾아왔다.

오월국이란 오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은 현재 강소성과 안휘성 절강성에 있던 작은 나라이름이다. 계미년 9월 오월국이 찾아왔다는 것은 고려 초기에 고려가 얼마가 강한 나라였는가를 짐작케 한다. 그 후 10월인 겨울에는 직접 평양성을 찾아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월국이 중국에 있으면서 고려가 현 한국에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찾아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고려가 있고 아무리 강한 나라였다고 해도 오월국이 찾아올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가 현 중국대륙의 한복판이자 서울이라 할 수 있는 서안 즉 서경에서 강한 나라로 오대십국 때 부각되었기에 천자 나라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시대에 국가의 질서이자 사회적 규범이었던 것이다.

신사년 11월 진보성의 성주인 홍술을 파견했다. 파견된 홍술의 청에 따라 원(元), 윤(尹), 왕(王)씨 등을 항복시켰다. 이들 유생들은 벼슬한 사람들로 관사에 불러놓고 좋은 말로 위로하듯 달랬다. 세월이 지나 이들은 정승자리에 올라 큰 벼슬을 하였지만 한편은 파도처럼 시련도 많았다. 아버지와 형제 그리고 자식과 제자들은 모두 지방의 군과 현의 자리에 올랐다. 따라서 좋은 양가의 제자들과 인연을 맺고 서경에 머물게 되었다. 다행한 것은 서경에 새로 관의 도읍지를 신설하고 좋은 관리들도 두고 성을 쌓았으며 태조 왕건은 친히 이름을 아선성(牙善城)이라 했으며 백성들도 함께 살게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정인지 고려사 본문에 보면 분명히 서경에 성을 쌓고 서경에 살도록 하기위해 아선성을 지었다고 기록은 너무나 충격적인 기록이다.

(라) 고려와 발해왕의 등장

乙酉 8년 3월에는 다행스럽게도 태조는 서경에서 지내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가을인 9월에는 병신년 발해장군인 신덕 등이 500명 데리고 찾아왔다. 그 후 경자년에 발해는 예부(禮部 : 예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기악과 현악 관혼상제 즉 혼례와 장례식을 맡아 행하는 행정부처임)를 두고 큰 벼슬을 한 사람들은 골고루 풍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사정(司正 : 요즘 같으면 사법부와 행정부 같은 곳)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우하게 하였다. 구공부(모든 연장 즉 공기구를 만드는 부서)를 설치하여 대복모좌(大福謀左란 벼슬을 주었다).

한편 우위장군을 대심리(大審理)라는 벼슬자리에 겸직하게 했다. 게다가 백성과 100가구를 한데 묶어 주기도 하였다. 이 당시 동쪽에는 발해가 있었다. 고려의 동쪽이면 고려가 현 대륙의 섬서성 서안 즉 서경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발해가 있던 곳은 현 중국의 북경 남쪽인 천진부근이다. 천진 앞바다가 지금도 발해이다. 발해가 천진과 산동반도에 있었으므로 고려가 서안에서 보았을 때는 분명히 동쪽인 것이다. 만약 한국 땅이라면 동쪽은 한국해 즉 동해(東海란 17세기 후에 지어진 이름이다) 발해는 본시 이름으로 속말(粟末)이라 했다. 속말은 말갈(靺鞨)이다. 당무후 때 고구려 사람인 대조영은 요동을 달려왔다. 이때 고려 16대 예종 때 발해군왕은 자칭으로 발해라 하고 발해국은 옛날 부여와 숙신(肅愼) 등 10여개국을 합했다. 그리하여 문자를 정하고 예악관부(禮樂官府 : 문학과 국악과 관혼상례 등을 맡은 행정부처임)의 제도를 두었다. 또 오경(五京 : 다섯 서울) 15부를 두게 하고 62주(62州 : 62곳의 고을 행정을 보는 관청)을 두었다. 북쪽 지방은 5000리나 떨어져 있었다. 수십만이 넘는 우리 마을 국경과 옆에 있는 글란(契丹)이 있어 세상에 원수처럼 지냈다. 글란을 위주로 한 좌우에는 세계에서 원수처럼 지내면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언제 대거 글란이 공격할지 모를 처지였다. 발해를 크게 공경하고 있던 글란은 홀한성(忽汗城)을 골라 포위했다. 홀한성을 둘러싸고 일대 전쟁을 벌인 결과 발해는 항복하면서 멸망하였다. 이때 발해국 사람들은 멀리 동으로 도망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인지 고려사 본문에서 보듯이 고려가 서경에 있을 당시 발해장군 신덕 등이 5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 투항한 기록이다. 그리하여 발해를 예부로 두게 했다는 것이다.

또 발해왕 대조영이 달려 왔을 때 16대 예종께서 요동을 보호하게 하고 발해군왕으로 있게 하여 자칭 발해왕으로 등극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숙신과 부여 등 열몇 나라를 통합시켜 강대국으로 부상되었으나 결국 글란의 공격으로 망한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고려가 강대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는 서경에 도읍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글란은 발해와 해(奚 : 계집종 들이 뭉친 나라임) 나라를 격파 한 뒤 후진(後晉) 때 점점 세력이 커지다. 요(遼) 나라로 나라이름을 바꾸었다고 적고 있다. (중국 고금지명대사전 본문 606쪽 참조)

(마) 삼한의 강역(疆域)과 역사의 실체

계사년 16년 봄 3월이다. 현토주 도독(都督 : 도읍지의 행정최고책임자 즉 도지사와 같은 직책)은 상주국(上主國 : 최고 윗자리에 있는 나라)이었다. 고려왕은 능히 대의군사(大義軍使 : 총 책임자이며 특사와 같은 직책을 겸 한 것)의 직책을 크게 말았다. 다음 차사(差使)는 태복경(太僕卿)과 왕경이다. 부대부(副大府 : 부대사격)는 소경(少卿) 즉 적은 벼슬이다. 소경벼슬의 책임은 양소업(楊昭業) 등이 만단의 준비를 하고 예를 갖춘 사절단으로 임명됐다. 중약. 왕건의 인품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고 별과 같았다. 성품이 수려하고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마치 금석(金石 : 금을 뜻함)과도 같았다. 신의가 두텁고 책임감이 있었다. 주위 사람과도 화목하고 충효의 정신이 뚜렷했다. 왕건이 맡고 있는 큰 임무의 명령권한은 삼한의 즐거운 땅이었다. 삼한의 즐거운 강역이란 삼한이 차지하고 있던 넓은 땅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삼한의 낙원처럼 즐겁게 살던 아름다운 고토가 현재 넓고 넓은 중국대륙임을 정인지 고려사에서 여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럼 다음 문장을 연결해 보기로 한다.

삼한의 넓은 강역에서 주나라를 받들고 바르게 살았다. 이곳은 만리를 넘어 넓은 파도처럼 무한대의 지역이었다. 옛날 하(夏)나라 우(禹)임금 때 공로가 언제나 이어져 왔음을 뜻한다. 하 나라 우 임금의 공훈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혀지고 벼슬도 아쉽지만 숭고하고 총애롭게 마땅히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는 벼슬도 주고 우대하는 관습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들녘에 핀 복숭아를

구하듯 한 사람이 나타나 고려국왕으로 벼슬을 이었다. 다음 차사는 부대사(副大使)를 두어 책명(册命 : 임금의 명을 받은 특사와 같은 사람)을 받고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위나라 임금에게 명을 받기 위한 예법을 갖춘 물품과 그에 따른 만단의 준비를 다한 것을 뜻한다. 책명을 받을 자는 상감의 명령을 알리기 위해 모든 대비와 마땅한 지식 그리고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책명사의 임무를 하도록 하였다.

그때는 음력 날짜를 빠지지 않고 적었다. 그때가 무주(武周 : 당나라 바로 뒤에 주나라의 후예로 있던 나라. AD 684 갑신)이다.

무주의 첫째왕은 칙천후(則天后)요 이름은 무조이며 연호는 광택(光宅)이다. 무주의 다섯 번째 왕이 천수(天授 : AD 690~692 갑인년)이다. 그 당시 천수의 연호를 썼다가 그 후 당나라 연호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갑오년 17년 봄 정월이다. 정월은 1월을 말한다. 1월 달에 서경은 다행스럽게도 북쪽에 있는 군진을 순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인지 고려사 본문에서 왕건의 효성스런 인품과 수려한 용모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형편없는 상놈의 출신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현재 중국에서 왕건은 불량배 비슷한 천민의 자식으로 매도하는 이유는 고려사의 빛나는 업적을 왜곡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만약 왕건이가 중국쪽 역사 인물이라고 보았다면 중국의 역사가 들은 엄청나게 왕건을 치켜 올리는 기록을 남길 것이 뻔하다. 그러나 왕건은 고려태조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분명하다. 특히 한국에 있는 식민사학자들은 말한다. 고려가 무슨 사천성에 있을 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건의 묘가 사천성 성도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북 백성들이 약 50년간 김일성교육을 받다보니 김일성 외에는 아무런 역사도 조상도 사상도 모르는 것과 같다. 거짓말도 참말 되듯이 말이다.

광복이후 50년 동안 일본인과 함께 역사왜곡의 주역이 된 이병도의 손에서 한민족의 역사는 난도질당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날조된 식민 사관만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까지 대륙에 있었다고 하니까 미친 사람으로 몰아 세웠다. 이것을 보더라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나는 장면이다. 자기가 배운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 한다. 불신풍조가 만연 된 것은 여태껏 50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잘못된 역사를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통분하고 통탄할

일인가. 한민족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 버린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니 더더욱 딱한 일이다.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선조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역사를 모른다면 뿌리를 알지 못함과 같다. 역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므로 뿌리를 알고 사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조상과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어찌 성공할 수 있으랴. 역사를 안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나를 알게 하는 첩경이요 내일을 잘 살게 하는 진리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역사 없는 민족은 망한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방황하게 된다. 정신이 한 개인의 생명이라면 한 개인의 생명체가 묶어진 덩어리가 국가이다. 그렇다면 역사가 날조되고 망가지고 동강난 민족은 생명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병들어 망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역사의 맥은 비록 과거를 보는 것이지만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보장을 예견해 주는 중요한 산파역을 하는 것이기에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은 대단히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정신과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의 실체도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시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망상이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크나큰 선물이다. 그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사람 속에 있는 마음과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 대자연 속에 있는 산소 즉 공기는 한시라도 없으면 죽는다. 기(氣)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심기(心氣), 천기(天氣), 공기(空氣), 천체기(天體氣)는 보이지 않는다. 전기는 불빛만 보이지만 전기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우주기와 같이 기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물질을 움직이는 생성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이 역사의 기운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정신은 국가와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일본인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조작하여 한국인을 노예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역사를 말살 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은 말살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예화하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역사를 말살 시키지 않으면 그 나라 정신이 살아 있어 노예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역사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국가는 방황하고 길을 잃는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사치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다시 말해 정신이 썩으므로 인하여 범죄 도

박 마약 밀수 사치 권위주의 한탕주의 등의 악랄한 인간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역사왜곡은 국가의 국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다. 가장 중대한 것은 그 나라의 역사인데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질 않는다. 짐승도 교육을 시키면 안다. 하물며 이성이 있다는 지식인들이 모른대서야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면 무리일까? 사람 못된 것은 개만도 못하다는 속성이 바로 그것이다.

(바) 고려는 장안성을 쌓다.

그럼 정인지의 고려사를 좀 더 간략하게 기술해 보기로 한다. 정인지 고려사가 워낙 방대하므로 토막토막 잘라서 부분적으로 기술해 보기로 한다.

무술(戊戌) 21년 봄 3월이다. 서 천축(西天竺 : 곤륜산과 천산 중간에 있는 중국 서부 국경선 근처) 스님이었던 홍범대사(弘梵大師)는 어린애처럼 웃으면서 주문을 외우며 먼 길을 걸어서 마갈타국이란 나라에 도착했다. 마갈타나라에는 큰 법을 설법하는 보제사(菩提寺)에 사문스님이 있었다. 크게 준비된 가운데 양길 옆에는 위엄 있는 왕의 수레를 영접하기 위해 모두가 의식을 갖추고 있었다. 임자년 가을인 7월이다. 벽진군에 있던 장군 이총언(李悤言)이 죽었다. 7월은 처음으로 후진(後晉 : 기원후 936~946) 연호를 사용하면서 서경에 나성(羅城)을 쌓았다. 그해 겨울 12월에 탐라국의 태자가 늙어서 찾아왔다. 그리하여 고려국에서는 왕자의 벼슬을 정식으로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세월이 약간 지났다. 발해 사람인 박승이는 3,000여 가구를 기증하여 왔다. 본문에서 보면 고려는 후진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고려가 처음부터 후진 즉 나중에 생긴 진나라 연호를 왜 사용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태조 왕건은 후진의 씨족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고려의 국호를 기록하기로 한다. 본문에서 보면 고려가 서경에 성을 쌓았다고 되어있다. 서경은 아시다시피 지금의 중국대륙에 있는 서안이다. 서안에는 장안성이 있다. 서경에 나성이란 성을 쌓았다는 기록은 놀랄만하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서경 즉 장안성 쌓는다는 기록이 있어 여기에 소개한다. 이중재가 저서한 상고사의 새 발견을 참고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현재 한국 땅에 없었고 대륙에 있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해 두었으므로 참고 하길 바란다.

삼국사기에 고구려 24대 양원왕(陽原王 : AD 496~521) 8년 장안성을 쌓았다고 되어있다. 25대 평원왕(平原王 : AD 522~562 경신년) 28년은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긴 것으로 되어있다. 장안성을 쌓은 후 왕의 도읍지를 서경인 서안으로 옮긴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고구려 26대 영양왕(瓔陽王 : AD 563~600) 18년이다. 수(隨 : AD 581~618, 37년간)나라 양제(煬帝 : AD 605~617, 이름은 양광, 연호는 대업)는 백성들을 계몽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구려의 사신도 함께 백성들도 함께 백성을 계도하였다. 그러나 수나라 양제가 보듯이 백성들의 계몽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별로 감응이 없었다. 황문시랑(黃門侍郞)이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황제의 숙소에서 호위하는 관인 즉 벼슬을 말한다. 시랑벼슬은 한나라 때 두었다고 되어 있다. 벼슬은 정사품에서 높게는 종이품(從二品)까지였다고 중국고대 직관대사전은 기록하고 있다. 황문시랑이던 배구(裵矩)가 왕에게 말씀드리기를 고구려는 본시 기자가 도읍하고 있었던 땅에 고구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나라 진나라 때 모두 군과 현을 두었던 곳이다. 지금의 신하들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넓고 넓은 대륙은 지금은 와서 별천지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 곳은 옛 고구려는 고토라는 것을 삼국사기에서 강하게 시인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 선조의 왕들은 광활했던 옛 땅을 다시 정복하여 찾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사기 본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강역(疆域)이 한반도가 아님을 고구려 본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선조왕들은 중국대륙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통하여 염원했음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사) 마니산의 유래와 서도(西都)

현재 강화도 마니산은 한마디로 통곡의 산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가 망한 후 중국대륙의 고토(故土)를 잃고 와서 중국대륙을 바라보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서역 하늘을 보면서 통곡하던 곳이 마니산이다. 본시 마니산의 유래는 이러하다.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태자는 나라가 망하는 슬픈 장면을 보고 개골산으로 떠난다. 태자는 기암이 있는 곳에서 절벽과 바위를 지붕 삼아 풀잎으로 밥을 먹고 삼베옷을 입으며 평생 동안 살았다고 되어있다. 삼베옷이란 마의(麻衣)다. 마의란 삼베옷이자

만 나라가 망하여 죄인이란 뜻도 있으며 한이 서린 죄인이기에 좋은 옷도 아닌 삼베옷을 입었다하여 마의태자란 별칭이 붙은 것이다. 그러기에 나라가 망한 한 서린 옷이 마의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마의산(麻衣山)이라 한다. 지방사람들이 마의산을 마니산 마리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세월 탓이라고나 할까 마의태자가 입은 삼베옷은 신라가 망하면서 한 많은 슬픔 속에서 생겨난 시운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강화도 마니산인지 마리산 인지는 지방 사람들의 방언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화도 대륙을 바라보는 곳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서 대륙을 바라보는 곳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대륙에 있던 고토와 선조 그리고 천지신명께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주는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한다. 어떤 사회단체들은 마이산을 단군이 세운 삼신산 중에 하나라 하여 해마다 제사 지낸다고 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필자는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통곡의 산이라는 뜻에서 처음 한 번 가 본 후에는 일체가지 않았다. (개골산은 호남성 강화이다.) 백제가 망한 후 백제의 유민들이 와서 백제가 망한 망국의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바로 산유화란 노래이다.

이 가사는 1500여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산유화 가사 중에는 구구절절 백제가 망한 한 서린 노래 가사가 산유화에 비유돼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는 엄연히 기자(箕子)가 도읍했던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에 있었다. 그러기에 고구려의 후예이자 당나라의 후손인 고려가 중국대륙에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경순왕 본기 마지막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짤막한 글귀가 눈을 끈다. 평백제고구려(平百濟高句麗)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신라는 백제를 망하게 하고 고구려도 무너지게 했다는 글귀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신라 백제는 같은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논증이다. 신라 고구려 백제가 같은 당위에 살았기에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맞붙어 싸우려면 강역이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만약 고구려 백제가 대륙에 있고 신라는 한국 땅에 있다고 한다면 고구려 백제를 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3국이 대륙에 함께 공전하고 있었기에 고구려 백제를 쳐서 평정했다는 뜻이다. 고려 3대 정종(定宗 : AD 963~966 병인년) 丁未 2년이다. 정종 2년 봄에는 서경에 왕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 3대 정종왕 때라면 지금이 1994년이므로 불과 1028년 전의 일이다. 1028년 전에 고려가 서경 즉 지금의 서안

에서 왕의 성을 쌓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과 무개 두 사람아 찾아왔다. 말 700필과 방물(方物 :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왔다. 그 말들을 3등급으로 나누어 검열하기로 하였다. 말이 1등급일 때는 은으로 만든 주전자와 비단을 각각 한 필씩 주었다. 말이 2등급일 때는 밥그릇 같은 은 식기류를 주고 비단도 1필 주었다. 말이 3등급일 때는 비단 1필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1등급과 2등급에게는 은 주전자와 은 식기류 한 벌을 주었다는 기록은 자못 흥미롭다. 본문에서 보면 동족에 있는 여진족이 찾아와 말 700필과 함께 투항했다는 것은 고려사에서 가치 있는 대목이다.

이때의 동여진은 지금의 하북성 지방이다. 고려삼대 정종 2년에 왕의 성을 서경에 쌓은 후 정종 4년은 己酉이다. 도읍을 서경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읍을 옮긴지 머지않아 서경은 증발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때 고려 궁궐 내부에서 심한 갈등과 압력으로 민심이 이탈되어 있었던 것으로 적고 있다. 고려 4대 광종(AD 967~992) 11년 庚申 3월이다. 최광범은 급제했다고 적고 있다. 이때 공복(公服 : 대감들이 입는 관복)입은 백관들은 새롭게 연 서울 황도(皇都 : 임금이 있을 곳)가 새로 생겼으므로 서경(西京)은 서도(西都)라 고쳤다고 했다. 본문에서 보다시피 왕의 도읍지를 옮기게 되자 서경을 서도라 불렀다고 했다. 그러나 이북에 평양을 서경이라 한다면 서도라고 부른 사실조차 없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운 역사 상식으로는 고구려가 평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왕의 도읍지를 정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 조차 없다. 본문에서는 뚜렷이 서경을 임금의 도읍지라고 적고 있다. 이때는 서경을 서도라고 했으며 서쪽의 도읍지라 고쳐 불렀다 한다.

(아) 고려 충신 서희와 글란(契丹)

다음은 고려사 94권 중에서 고려사열전 제 7권 서희(徐熙) 편을 정인지가 교수(敎脩 : 가르치면서 수정하고 정정하는 것) 고려사열전을 간추려 뽑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서희(徐熙)는 고려 4대 광종(光宗 : AD 967~992) 11년 18세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수재이다. 성품은 엄격하고 성실하며 빈틈이 없다고 적고 있다. 광종 2년에 시랑(侍郞 : 상감을 모시는 관리)의 직위에 있었다. 그 후 사신의 명을 받고 송나라에 가서

10여 년간 파견사 근무를 했다. 송나라 태조(太祖 이름은 조광윤 연호는 건융 기원후 960~963)의 간곡한 배려로 교병부(校兵部 : 모든 군사 업무를 보는 곳)에서 검열관으로 일했다. 특히 서희(徐熙)의 직책은 상서관(尙書官)이었다. 상서관이란 대신자리로서 궁중에서 중요한 병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다. 송나라 태조의 각별한 호의로 송나라에서 상서관을 지낼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모두 한문자의 문화권이므로 가능할 수 있었다. 송나라도 고조선 즉 조선의 한 부분이었으므로 같은 문화권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6대 성종(成宗 : AD 999~1014 기해년) 2년에는 좌승지에 올랐으며 병관어사(兵官御使 : 모든 군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에 종사했다고 적고 있다.

이 당시 다행한 것은 서경에 있는 영명사절에 성종은 미행을 나갔다고 되어 있다. 그 후 12년에는 글란(契丹)이 침범해 왔다. 이 때 서희(徐熙)는 중군사(中軍使 : 전투부대의 총수)의 직책을 맡았다. 박양유는 시중(侍中 : 중군사를 보필 하는 역할)으로 최량은 문하시(門下侍 : 시중을 보필하는 자)로 하여 북쪽 경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다. 고려 6대 성종은 욕심이 생겨 고려 장수들을 서경에 진출케 하여 안북부(安北部 : 서경에 있는 글란의 행정)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때 글란은 동경유수(東京留守 : 서안을 지키는 행정 책임자)인 숙손영을 통해 고려를 격파하였다고 적고 있다. 고려 6대 성종은 한때 서경에 왕성을 지어 있었지만 고려사열전에서 보다시피 글란에게 왕성을 일시 빼앗겼던 관계로 성종은 서희의 장군을 동원하여 탈환하게 된 것이다. 이 곳 서경은 본시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중략. 서경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황주에 이른다. 황주는 서경의 북쪽인 섬서성과 산서성 일부지방을 뜻한다. 그러나 후일 원나라 때 호북성 쪽으로 옮겨 버렸다.

서경의 북쪽 산서성과 섬서성에는 험준한 산봉우리들이 즐비해 있다. 이곳의 강역은 고려 6대 성종 때 장수를 시켜 분할한 땅들이다. 특히 서경지방은 백성들이 쌀을 많이 생산하여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가 고려 6대 성종은 항상 적이 침공해올까 봐 공포증이 떠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이곳은 곡식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대동강이란 즉 패수지역으로 곡창지대이다. 패수(浿水)는 서안에서 낙양으로 흐르는 강을 말한다. 그러기에 성종은 더욱 공포증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희가 아뢰기를 곡식이 풍족한 들녘과 성을 굳게 지켜서 싸움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성종에게 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략. 서희(徐熙)가 다시 성종에게 아뢰기를 글란이 있는 동경은 우리 즉 고려가 있던 안북부(安北部 : 고려가 있었던 서경 지금의 서안

이며 행정수도)에서 수 백리 떨어진 곳에 여진과 글란(契丹)이 모두 진을 치고 있다고 했다. 고려 4대 광종(AD 967~992 기사년)때 가주에 있는 송성을 뺏고 성을 쌓았다. 가주(嘉州)는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찾아보니 사천성 락산현에 있었다. 이때 글란은 사천성까지 와서 고려의 성을 몽땅 갖고 싶었으나 불과 두 곳의 성만 가졌을 뿐이다. 이곳은 옛날 고구려의 옛 땅이어서 사실 글란에게 뺏길까 봐 무척 두려워하였다. 지금 병사를 총동원하여 막강한 군사를 서경 이북쪽을 할당해 배치시켜다. 그것은 본시 계책이 아니었으나 글란의 갑작스런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삼각산 북쪽도 옛날 고구려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정인지 고려사열전에서 서희의 기록 속에 두드러지게 중요한 것은 서경 즉 서안지방이 쌀이 곡창지대라는 점이다. 고려 6대 성종 시에 지금의 중국대륙인 서안지방과 호북성 북쪽 그리고 황하의 북쪽 지방이 모두 고려의 강역이었다는 기록은 놀랄만하다. 또 고려 4대 광종 때 지금의 사천성 일대도 고구려의 옛 고토가 영토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고려사열전 서희전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삼각산이다. 삼각산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여태껏 알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삼각산은 엄연히 대륙임을 기록하고 있다.

삼각산 이북은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했으므로 삼각산을 조사해 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삼각산은 호북성 황안현 동쪽으로 30리에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하나는 호북성 근수현의 동쪽 60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각산은 현재 서울 도봉산이 있는 곳이 아니고 본래 중국대륙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자로 된 이름이 현재 한국 땅에 옮겨진 것이 고려말 충숙왕 때까지 임으로 그 옛날은 한자로 된 땅이름은 1332년 전에는 대부분은 대륙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1994년을 기준해 보았을 때 662년 전에는 한자로 된 땅이 이름이 거의 중국대륙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물론 고려 태조 이후부터 즉 기원후 936년 후부터 한국 땅에 점차로 한자로 된 이름이 하나 둘씩 행정상 옮겨지긴 하였지만 완벽하게 한자의 땅이름이 한국에 옮겨져 정착된 것은 1994년 따졌을 때 662년 밖에 되지 않는다. 고려 6대 성종은 군신(君臣 : 모든 신하)들을 모아 놓고 물었다. 군신들 중에 누가 능히 글란(契丹)이 병영을 갔다 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때 서희가 갔다 오겠다고 청원한 후 글란(契丹) 진영으로 행했다. 글란 지역은 사실상 말썽이 많은 지

역이다. 그러나 후세에 공이 될 수 있으므로 자청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희는 왕명을 받들고 갈 때 왕께서 강둑까지 위로하면서 전송하였다. 서희는 왕명을 받들고 왕의 친서를 손영의 역사(譯使 : 통역하는 사람) 그리하여 글란의 총사령관인 숙손영(肅遜寧)을 만났다. 서희(徐熙)를 만난 숙손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대 조선에서는 귀한 사람을 마땅히 대접하는 것이 도리로 되어 있다고 했다. 글란은 스스로 대조선으로 자칭했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글란의 선조는 진나라이다. 진나라가 망한 후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한 덩어리는 신라이며 한 덩어리는 글란이기에 진나라 후예들은 스스로 조선이라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진나라 자신이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고금지명대사전 본문 743~744페이지 참조)

고려국의 사신은 2차 3차로 만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글란의 숙손영은 다른 마음을 품고 허락하지 아니했다. 글란 장수인 손영은 고려장군 서희를 병영에 들어오게 해 서로 마주 앉았다. 그때 손영이 말 하였다."지금 글란국이 가지고 있는 시라지(新羅地) 즉 신라 땅과 고구려 땅은 모두 우리의 소유이다"라고 했다.

이때 서희(徐熙)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야금야금 침식하여 먹어왔다.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저 바다와 같은 넓고 넓은 옥토는 송나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가 분할한 땅이다. 그런데 너희 들이 무조건 침식한 후 고려보고 헌납하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 땅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 즉 고구려의 옛 강역으로 인해 국호를 고려라 했으며 도읍도 평양으로 한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상국인 동경(東京 : 그 당시 서경)이 모두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땅인데도 너희들이 감히 침략하여 가질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압록강 안팎으로는 우리나라 경계이며 지금은 여진의 도둑들이 거점을 확보하고 무례한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기성의 행위임으로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과 불통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여진이 다시 돌려준다고 한다면 옛 땅에 성을 쌓고 작은 통로로 연결하여 도로로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의 압록강은 하남성 급현으로 흐르는 강이다. 글란왕은 손영과 서희의 만남에서 대화가 잘못 된 것을 글란왕 들었다.

글란(契丹)의 총사령관 숙손영(肅遜寧)은 기개는 대단히 좋지만 지나친 강직함으로 외교의 정사를 그르친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글란왕은 생각했다. 글란왕은 고려에게 총사령관의 잘못을 용서를 빌고 서로 화해할 것을 청했다. 이때 돌아온 서희는 분노한 나머지 눕고 말았다. 고려를 찾아온 숙손영(肅遜寧)은 서희에게 용서를 빌고 위로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글란(契丹)의 본국은 상국인 고려에게 너무 무도하였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아래나라인 글란의 임금의 위나라의 고려 왕건에게 무력이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뜻을 같이했다. 그리하여 양국 간에 연락(宴樂 : 주연을 베푼 연회장)을 하게 되었다. 이때 대신들은 화기애애하며 서로 정답게 환담하고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서희는 글란(契丹)의 진영에서 일주일간을 머물고 있었다. 서희가 돌아올 때 낙타 10마리와 말 100마리, 양 1,000마리 그리고 비단과 옷감 등 100필을 주었다. 이때 성종은 크게 기뻐하고 강둑이 있는 곳까지 마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첫째 : 서희(徐熙)의 충성 어린 마음이다. 아무도 적의 군지를 찾아가지도 않는데도 솔선해서 적장인 글란(契丹)의 총사령관인 숙손영을 만날 자리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고려의 영토에 대하여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날 신라 땅과 고구려 땅은 고려의 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둘째 : 넓고 넓은 광활한 옥토가 모두 고려의 영토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셋째 : 고려국은 선조나라였던 고구려의 영토에서 고구려의 옛 강역을 지키며 고구려 후예답게 중국대륙 서안의 옛 서울인 서경을 지키며 당당히 역사의 삶을 이었다는 점이다.

넷째 : 여진이 갖고 있던 땅도 옛 고구려의 강역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 글란(契丹)이 침공한 땅들도 모두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고려 6대 성종 초기에는 글란(契丹)에게 침공을 당했지만 중국대륙의 중원(中原 : 대륙의 중간의 들) 부분은 모두 고려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명확한 기록임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보다시피 고려사열전 서희전에서 너무도 확실하게 대륙의 강역이 고려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려의 도읍지는 앞에서 여러 정사들에 의해 공증된 것과 같이 고려의 도읍지가 서경이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사료의 가치가 돋보이

는 장면이다. 고려사열전에서 황보유의(皇甫兪義)에 대한 기록을 장정우가 하고 있는 대목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고려 10대 정종(定宗 : AD 1053~1064 기축년) 2년에 왕의 시중을 드는 관리인 시랑의 이름을 모두 고쳤다. 그 후 8년이 지나 장정우는 죽었다. 영주(현 북경 남쪽에 있는 하간현 자리) 상질현 사람이다. 신라말기 때 아버지는 유학자였다. 오월(吳越 : 현재 상해지방에 있던 오나라)로 피란해 왔던 사람이다. 그 후 나라로 돌아와 화어(고려초기 중국 중원 땅에서는 각종 방언이 뒤섞여 있어 표준적 언어)를 연구하고 풀이하는데 몰두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자) 강한찬의 충성은 글란을 격파하다.

강한찬(姜邯贊)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려사열전에 인용해 보기로 한다.

강한찬의 본 이름은 은주(銀州)이다. 본시 금주(衿州)사람이다. 금주는 시흥군이다. 시흥군을 금(衿)이라했다. 시흥군은 오나라가 설치했다. 그런데 남조시절 송나라가 이름을 고쳐 광흥이라 했다. 그 후 제나라가 다시 부활시켜 시흥이라 했으나 수나라가 폐지시켰다. 그러나 당나라가 찾아 설치했으며 곧 폐지시켜 지금은 광동성 곡간현이다 라고 지명사전은 적고 있다.

강한찬(姜邯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교육을 시킬때 강감찬이라하여 역사교육을 시켜왔다. 착각도 유분수지 한(邯)자를 감자로 잘못 알고 역사교육을 시킨 것은 정말 웃지 못 할 일이다. 강한찬의 5세조는 성품이 청아하고 결백하여 신라에 와서 살았다. 그곳이 시흥군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시흥군은 중국 남쪽에 있는 홍콩 옆 광동성이다. 광동성 곡강현이 시흥군이며 시흥군이 금주로 되어있다. 강한찬(姜邯贊)의 아버지는 궁진사(弓珍事 : 활을 만드는 일하는 관청)의 직책을 가졌다. 좋은 활을 만들어 태조 때부터 활을 전시해 오던 삼한의 벽 위에 걸리게 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삼한의 벽이란 요즘 같으면 전시하는 전시장의 이름이 삼한이다. 삼한이란 전시장에는 삼한 때부터 전시한 활과 창 그리고 갖가지 군사에 관한 물건들이 전시된 것이다. 강한찬(姜邯贊)은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배우기를 좋아해서 많은 학문을 익혀 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고려 6대 성종 때 과거에 일등으로 급제하였

다. 그리하여 예부(禮部 : 학문과 예술에 관한 행정 부처)에 속한 시랑(侍郞 : 상감을 모시는 관리)으로 자리를 옮겨 맡았다. 고려 8대 현종(顯宗 : 기원 후 1028~1049 병인년) 원년이었다.

글란(契丹)의 주부(州府 : 주에 있는 행정부) 대(大) 장병들이 고려가 있는 서경을 공격해 왔다. 고려 군사는 완전히 패했다. 고려 조정에서는 글란 군대를 보복하기 위하여 급히 군신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군신들은 무조건 항복을 하자는 쪽으로 회의가 기울고 있었다. 이 때 강한찬은 혼자 말하기를 지금부터 죄를 지어도 내가 질 것이다. 편안히 있을 때가 아니다. 더더욱 근심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 고려는 숫자적으로 글란군보다 모자라지만 글란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여 서서히 계획하고 다시 뒤에서 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려왕인 현종과 함께 남으로 내려갔다. 열심히 국력을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2년 후 다시 나라를 옮겼다.

국가에 중요한 신하들이 함께 모여 술로 제사지내고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였다. 한림학사와 승지(承旨 : 한림학자의 직책인 관리이다)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상감의 어마를 관리하는 관리) 진중추사(進中樞使 :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중요한 요직의 관리)등과 함께 사직단(社稷壇 : 조상에 제사 지내는 곳)을 깨끗이 수리할 것을 청했다. 예관(禮官 : 궁중에서 모든 예를 갖출 수 있는 관리 학문 예술 관혼상제 등)과 회의의 법도도 모두 고치기로 했다. 이부상서(吏部尙書 : 관을 총괄하는 책임자)의 직책에 있던 강한찬(姜邯贊)은 스스로 밭을 12결(12結 : 한결이 벼 100섬 정도임으로 총 1,200섬을 할 수 있는 전답을 말함)을 개령현(開寧縣)에 일구었다. 개령현은 남조 때 송나라가 설치한 곳이다. 남쪽에 있던 제나라가 관청을 두었는데 지금의 중국 남부인 광동성 옛 조경부의 경계이다 라고 지명사전은 적고 있다. 개령부에서 왕과 군인에게 양식을 9년 동안 공급했다. 이때서경유수와 내이시랑(內吏侍郞 : 임금의 곁에서 일하는 관리)과 비슷한 내사문하 그리고 평장사(平章事 : 왕궁에서 보편적인 사무를 담당한 관리)를 통해 왕에게 직접 서신으로 고해 왔다.

이때가 경술년이다. 경술년 때 전란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과 창 칼 등 군수품을 깊은 밤에 몰래 하강빈으로 쓰지 않았던 물건도 옮기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강이란 중국대륙 섬서성 영강현에서 북쪽에 있는 파총산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물이다. 그러니까 섬서성에서 물줄기를 타고 호북성으로 흘러가는 물이 한수이자 바로 한강이다. 강한찬(姜邯贊)은 고려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막힌 계책을 강구하

였다. 모든 고려국의 군사와 고려국 사람들은 글란과 똑같은 옷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글란의 장수 숙손영(肅遜寧)이 10만의 군사로 고려수도 서경을 침략해 오던 그 때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강한찬은 서북면에 있던 행영도통사(行營都統使 : 군대에 움직임을 행정상으로 총책임을 쥔 관리)였다. 왕은 강한찬(姜邯贊)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때 상원수대장군(上元帥大將軍 : 군대의 대장 중 최고 높은 장군 원수를 말함)인 감민첨과 부내사(副內史 : 부 사령관격)인 박종검과 병부랑중(兵部郎中 : 병사 업무를 직접 맡아 보는 직책)의 직책을 맡은 유참등과 판관수(判官帥 : 군 법무 관리와 같음) 그리고 병사 208,300명을 영주(寧州)에 이르게 했다. 영주라면 진나라가 두었던 감숙성 경양현부이다. 따라서 홍화진에서는 선발된 기병 201,000명을 산 중간 중간에 매복시켰다. 후미진 계곡에도 큰 소가족으로 연결해 완전히 요새화(要塞化 : 완전한 군사적 방어를 위해 단단하게 만들어진 곳)한 성처럼 진을 쳤다. 한편 동쪽에 있는 큰 하천은 도둑들이 들어오면 경사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단단히 매복해 있다가 글란(契丹)의 장수인 숙손영(肅遜寧)이기 군사를 이끌고 넘어오면 대파시키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될 경우 경성(京城 : 고려의 서울)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도록 추격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글란의 장수인 숙손영(肅遜寧)은 군병을 직접 이끌고 경성을 넘어 왔다. 고려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시에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했다. 글란(契丹)의 장수와 군사들은 자주(慈州)의 산 입구 크게 패했다. (자주는 산서성 길현)

고려군의 시랑인 조원(趙元)은 끝까지 추격하여 글란(契丹)의 장수 마탄의 목을 참수시켰다. 아울러 군사 10,000여명도 함께 참수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강한찬은 글란 병사들과 곳곳에서 전쟁하여 전과를 올리는 기록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목을 쳐 죽였다고 적고 있다. 전쟁의 기록은 너무나 참혹하다. 위에 있는 전쟁의 기록을 보면 위주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위주는 지명사전에서 감숙성 용서현 서남이라고 했다. 섬서성 서안의 서북쪽이다 이곳 용서현은 지금의 천수현 서북이라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영주와 위주의 지역은 둘 다 감숙성임을 알 수 있다. 강한찬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려의 도읍지 서경을 침략당하는 것이다. 그것도 글란(契丹)에 의하여 강역과 도읍지를 일시적이나마 탈취 당한 것은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것도 9년간의 피나는 어려움을 겪고 강한찬(姜邯贊)의 충성과 용맹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도읍지와 강역을 찾기란 어려

웠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사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려와 글란은 함께 서경과 사천성 그리고 감숙성에서 전쟁을 했다는 강한찬의 기록에서 얼마나 역사왜곡이 심했나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원수는 원수로 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고려 6대 성종 때 글란과의 전쟁에서는 지고 이겼지만 다음 고려 8대 현종 때는 고려의 엄청난 전쟁의 피해를 글란으로부터 다시 보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의 사욕에서부터 국가의 사욕은 결국 자멸의 교훈을 주는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때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전쟁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강한찬의 기록에서 고려는 엄연히 중국대륙에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 한국의 현재와 과거의 땅 이름 중 금주라는 게 없다. 따라서 시흥군이 즉 금이며 금주라는 말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찬의 5세조부터 신라 땅인 시흥군에서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다.

정인지 고려사열전 속에서 이와 같은 자료가 있었는데도 광복 이후 50년이 다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면 정부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정말 한심하고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이나 중국은 있지만 하물며 자기 나라의 바른 역사를 오히려 축소 조작하고 있으니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날조와 왜곡은 민족의 반역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한민족의 바른 역사를 찾아 전 세계 일등국가의 명예를 고대사회처럼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한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세계화의 평화를 주도할 주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차) 양규의 전과

양규(楊規)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규는 고려 7대 목종(穆宗 : AD 1015~1027 갑인년)때 형부(刑部 : 판 검사와 같은 관청)에 근무한 오래된 관리(官吏)이다. 고려 8대 현종(顯宗 : AD 1028~1048 갑인년) 원년 글란군의 장군이었던 강조(康兆)가 주부대를 이끌고 장군 스스로 고려로 찾아와 토벌하러 왔다. 이때 글란군은 흥화진을 포

위하였다. 흥화진은 지금의 만주에 있는 흑룡강 청강현 서북을 말한다.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6대 성종은 글란군의 총사령관인 숙손영 때문에 서경 즉 서안에서 중국 최남부 홍콩까지 밀려간 일이 있다. 말하자면 광동성 곡강현까지 후퇴한 일이 있다. 이 곳 곡강현은 금주이자 시흥군이라 했다. 고려가 중국 최남쪽까지 밀려간 셈이다. 고려 6대 성종은 9년간 피난살이를 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이도 강한찬과 같은 충신으로 인해 고려는 간신히 회복되었던 것이다. 글란은 강한찬 때문에 지리멸렬하여 멀리 감숙성 북쪽과 몽고와 만주의 흑룡강 변방으로 밀려간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8대 현종 첫 해에 글란군의 부대가 흑룡강 주위에 있는 흥화진을 완전 포위하였다. 그 때 글란의 장수는 강조이다. 고려국의 도순검사(都巡檢査 : 도읍지를 순찰하면서 점검하는 관리)와 더불어 호부(戶部 : 호수와 호적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인 정성과 부사(副使 : 부관직)의 자격인 장군과 기록을 담담한 이수화. 판관(判官 : 재판관) 그리고 늠회령(군량을 담당하는 관리 즉 살 창고의 권한을 가진 관리) 장호영과 함께 성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때 글란은 주로 통주성을 빼앗고자 했다. 이 때 통주성은 사천성 달현이다. 본문에서 보면 만주의 흑룡강 주위와 중국대륙 서남부에 위치한 사천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글란은 한 곳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주성에 있던 남자 여자 할 것이 없이 비단옷을 임금에게서 하사 받았다. 그리고 화살 통 하나씩을 300여명의 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포위된 흥화진을 도와주게 하였다. 흥화진은 본시 사천성에 있던 것을 멀리 흑룡강으로 옮긴 것이다. 통주성에서 보내진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은 마치 흥화진에서 항복을 받으러 온 것처럼 화살 통에 글을 써서 글란왕 앞에서 읽었다. 그리하여 글란왕에게서 항복을 받았다. 고려조정에서는 오래지 않아 강조 장군을 역신으로 몰아 살해한 다음 임금 가마에 싣고 사방으로 군인이 포위한 채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때 강조의 처자식도 모두 죽였다고 적고 있다. 중략.

그 후 글란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았다. 모든 백성들은 안심하고 분골쇄신하도록 하였다. 글란은 천년동안 성인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글란 백성들의 의지가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절대로 항복하지 않도록 글란 임금의 칙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안정을 찾았다. 글란의 백성들은 위안과 안정을 찾은 후 20만명의 병력을 다시 일으켰다. 그리하여 인주에 군대를 주

둔시켰다. 이 주는 당나라가 두었던 곳이다. 새로 이름을 지어 신태군(新泰郡)이라고 했으나 당시 당나라가 인주라 했다.

이 곳은 사천성 송번현 서북쪽이다. 인주 남쪽은 군사를 두지 않고 늙은이만 남겨 둔 채 20만명의 병사를 모조리 진군시키기로 했다. 그리하여 글란 군사는 통주에 이르게 되고 글란의 주동군대는 동산 아래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지금의 사천성 중 중강현 서남에 있는 동관산을 말한다. 일부 군사는 동산에서 통주로 빼돌렸다. 고려는 주 남쪽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도통부사(都統副使 : 도읍지의 부사령관) 이현운과 행영(行營 : 군대본부를 지키는 군 관리) 도통판관(都統判官 : 도읍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재판하는 관리) 노전 감찰어사(監察御使 : 감찰하는 어사)와 노의 양경 이성좌 등은 모두 잡혀 죽었다.

행영 도 병마부사(都兵馬副使 : 도읍지에서 군사와 말을 관리 담당하는 즉 장관급) 서숭(徐崧) 그리고 군사물자를 기록하던 노제(盧濟) 등도 죽었다.

이 당시 고려의 군사진영은 큰 난이 일어났다. 이 때 글란 군사는 승기를 놓칠세라 수 십리 밖까지 추격하여 30,000명을 참수시켰다. 그 후 글란은 흥화진을 다시 빼어 갔다는 기록이다. 양규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이란 당하면 치고 친자가 또 후일에 다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악의 전쟁이다. 고대사회부터 언제나 빼고 빼으며 먹고 먹히는 전쟁을 해 왔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전쟁을 하여 남의 땅과 남의 것을 몽땅 먹으려 하는지 정말로 인간은 어리석고 한심하다. 내가 치면 반드시 나를 치는 자가 또 생기는 것이 대자연의 진리이다. 양규의 본문에서 보면 고려 8대 현종 첫 해부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중국대륙의 중원 땅 사천성을 무대로 하여 글란과 엄청난 전쟁을 한 기록이다.

(새 고려사 p.354)

(카) 고려 6대 성종은 만리의 피난길을 가다.

앞의 장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글란은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이래 망하는 과정에서 진나라 군신과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작은 나라를 세운 것이다.

글란은 주로 활동무대가 사천성을 기점으로 하여 청해성 일부지방과 감숙성 그리

고 섬서성 북부지방을 주로 활동했다. 고려가 강력했을 때는 산서성과 호남성 내 몽고지방을 전전하면서 멀리 길림성과 흑룡강 그리고 북만주까지 다니면서 산발적으로 전쟁을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란과 신라는 진나가 망하면서 함께 생긴 나라이다. 그러므로 신라와 글란은 같은 혈통이며 같은 형제이다. 그런데 신라 30대 문무왕(AD 658~677 경인년) 7년 10월 2일에 글란 기병 80여명이 신라의 북쪽성인 한성을 침입해 온 것이다. 신라의 성인 한성은 지금의 중국대륙 섬서성 한성시이다. 진나라가 망한 후 처음의 신라의 계림은 지금의 섬서성 서안과 함안 사이에 있는 바로 위쪽인 기산이다. 그럼으로 한성(漢城)은 섬서성에 있다. 다시 말해 서안의 동북쪽인 산서성의 접경지대이다. 지금은 지도에서 한성시라고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와 글란(契丹)과의 피나는 싸움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특히 고려6대 성종 때는 글란군에 쫓겨 성종이 성안에서 만리나 되는 남행길을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하공진의 기록에 보면 고려사열전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엿볼 수 있다,

글란(契丹) 문 국왕이란 글란 왕이 묻기를 고려왕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안재 답왈 어디서 편안하게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금향강남부지소재(今向江南不知所在)란 지금은 강남의 어딘가 알지 못하지만 있을 것이다. 우문원근답왈이란 다시 묻기를 가까운 곳에 있겠느냐 먼 곳에 있겠느냐를 답하라고 하였다. 강남대원은 강남 멀고 먼 곳에 있을 것이다. 부지기만리 알지 못하지만 만리의 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고려 6대 성종이 피난간 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광동성 시흥군이다. 이곳은 금주라 했으며 곡강현이라 했으나 지금 지도에서 시흥과 곡가의 두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타) 전주의 위치는?

고려사열전에서 고려 6대 성종이 보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글란군이 고려 8대 현종 원년에 엄청난 인명의 살상이 있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인과응보(인과응보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행위 즉 좋고 나쁜 일이 반드시 인연으로 생긴다는 뜻)의 법칙이 아닌가 여겨진다. 고려사열전에서 보면 지채문전(智蔡文 傳)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박섬주왈 전주 즉 백제 성조역악 지청(박섬주曰 全州 卽 百濟

聖祖亦惡 之請) 이 말을 풀어 보기로 한다. 박섬이란 사람이 상감께 말씀을 아뢰었다. 전주는 옛날 백제의 고토이다. 백제의 26대 성왕(聖王 : AD 494~528 정사년)은 대단히 좋지 않은 청을 하였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주이다. 현재 전주로 생각할까봐 전주의 땅 이름은 여기 밝혀 놓는다. 전주는 현 중국대륙 남쪽인 광서성에 있다. 전주는 광서성과 호남성 경계에 있다. 이곳 광서성에는 요즘 중국지도에 백제란 지명이 뚜렷이 남아 있다. 한때 백제는 홍콩 옆 광주가 있는 바로 옆 남해까지 피난 간 사실이 있다. 남해는 백제 당시 남한산성이라고 동국사략 1권에 기록하고 있다. 전주는 본시 호남성 영릉현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서성으로 옮겨져 있다. 고려와 글란 간은 그 후에도 끈질긴 싸움을 계속해 왔지만 글란은 다음에 요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218년간 고려와 투쟁해 왔다. 그 후 서요(西遼 : 서쪽의 요나라)가 생겼지만 87년간의 짧은 역사 속에 금(AD 1115~1234년 갑오년)나라에게 망하고 만다. 글란이 기원 후 907년에 일어나 요나라와 서요까지 기원 후 1211년이므로 모두 합한 년대는 305년간이다.

고려태조가 제왕의 칭호를 받은 것은 사실상 기원 후 907년이다. 이때가 5대 10국 때라 했으므로 따지고 보면 글란과 고려태조 왕건과는 꼭 같은 연대에 꼭 같은 지역에서 꼭 같이 약 300년간이나 전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고려의 사실상 국가건국은 기원 후 935년으로 되어 있지만 왕건은 이미 더 오래 전에 907왕의 칭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고려왕으로서는 기원 후 935년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고려왕인 왕건이 기원 후 907년 글란과 같은 년대임으로 고려의 기원은 고려 34대 공양왕이 망할 때까지 520년간이다. 고려 34대 공양왕 4년의 년대가 기원 후 1427년이다. 고려가 935년에 건국된 것으로 본다면 고려의 년대는 492년이다. 그러나 현재 사서에 나와 있는 년대를 계산한다면 520년이다. 여하간 글란은 305년의 역사이다. 글란보다는 고려가 216년이나 긴 역사를 자랑해 왔던 것만은 사서가 잘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촉(前蜀)의 왕인 왕건이의 왕의 년대표도 함께 싣는다. 또 중국고금지명대사전 본문에 있는 전촉왕인 오대(五代) 10국의 나라와 시조 그리고 활동했던 무대와 멸망한 나라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복사해 여기 공개한다.

(파) 한민족은 경천애인지(敬天愛人地) 사상

구오대사(舊五代史) 참위전(僭僞傳) 136권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참위전은 어지럽고 거짓으로 된 혼란스러운 역사라는 뜻이다. 역사란 어차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인데 왜 하필이면 혼란스럽고 거짓으로 된 역사라는 뜻에서 참위전이라 했는지 모른다. 이것은 중국대륙에 왕건이가 있으므로 인해서 왕건이가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왕건이가 중국대륙에 있긴 있는 것으로 하고 고려국의 왕건이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왜 거짓으로 전해오는 것을 하필이면 구오대 사서에서 기록을 했는지 의문이다. 역사는 역사이므로 기록하지 않을 수 없고 왕건이를 기록하므로 인하여 고려사가 밝혀질 것이다. 고려사가 밝혀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뿐 만이 아니라 중국대륙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중국역사가 아닌 한국인의 역사이다. 한국인의 역사이기 이전에 조선의 역사이다. 조선의 역사이기 이전에 한민족의 역사이다. 전 세계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뿌리나라는 한국이 되고 한국은 종주국이 되고 종주국이 되면 민족사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의 주인의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땅이 하나도 없고 집도 재산도 없는 사람은 남의 고용이나 월급생활 밖에 안 된다. 그러나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자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고 따라서 많은 회사를 가질 수 있듯이 한나라의 역사도 그와 같이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땅이 넓어도 쓸모없는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땅이 없다고 나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땅이 넓고 기름지고 역사가 깊고 사상이 위대하다면 그 힘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삼한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가 있게 한 것은 강역을 좁게 만들었다. 반면 역사도 짧게 하였다. 역사가 짧으므로 인하여 사상이 없고 형편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일본사람의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선일체라 하여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그럴 듯하게, 하고는 한국인을 일본사람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음모를 꾸민 것이다. 그러나 천지신명과 선조 조상들이 일본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역사를 터무니없이 날조하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일본이 그러하다. 앞으로 일본은 2015년 후로 망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사람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면 결국 패가망신 하듯이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날조해 왔고 또 조상나라인

한국을 죽이고 노예화하려 했던 악랄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나 자연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치의 거짓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즉 1994년까지는 거짓 세상이고 탁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다소 거짓으로 살아 왔더라도 용서가 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1995년 고비로 거짓역사와 거짓사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천지신명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말고 밝아져 가는 사회가 오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일수록 남의 것을 바라고 남을 괴롭히는 자일수록 스스로 죄를 받는 사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양심을 속이고 자기만이 잘 살자고 하는 지나친 이기주의는 절대로 우리 조상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은 스스로 죄 값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21세기부터 자기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해 가는 비운을 맞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더욱 거짓으로 조작 날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식민사관을 고집하고 계속 가르치고 거짓역사를 반강제로 우기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는 환인천제로부터 모든 단군조상들이 매일같이 통곡하고 있다.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역사학자 있다면 머지않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늘에서는 조상들이 모든 기운을 셈하고 있다. 지금부터 역사를 날조하거나 잘못된 역사를 고집하거나 바른 역사를 매도하는 식민사학자는 빠르면 5년 늦어도 20년 내는 철퇴를 맞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선조 조상님들이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진리이다. 역사의 순리를 절대로 역행할 수 없다. 한민족은 인과 덕 자비와 사랑 그리고 희생의 정신에서 삶을 유지시켜 왔다. 그리고 한민족의 위대한 철학사상은 경천애인지이다. 경천앵인지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과 땅을 즉 자연을 사랑하는 한민족의 우주철학 사상이다. 하늘과 사람 그리고 땅을 하나로 보고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온 민족이다. 이러한 민족을 모르고 일본사람들은 조상나라의 어른들을 핍박하고 죽여 고통을 주며 살아왔다. 필자는 일본에 대해 일차 경고를 10년전에 내리고 다시 1993년에는 2차 경고를 내렸다. 그 결과 일본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 1993년에는 일본에 지진과 더불어 태풍의 피해가 12번이나 있어 극심한 혼란과 농작물에 타격을 입혔던 것이다. 그리고 1994년 일본 신호에 엄청난 지진의 피해가 있었다. 역사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거짓으로 하

려 해도 절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그러기에 역사의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듯이 역사의 숨결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선조 조상들은 기운을 주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 애를 쓰고 있다.

어리석은 인간이 역사의 수레에 타고 있으면서도 역사의 수레를 부정하려 든다면 역사의 수레에 깔려 비명에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름도 성도 없이 역사의 수레 속에서 치어 죽을 것이다. 역사는 인류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엄청난 힘의 논리로 인간을 역사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존재하게 돼 있는 엄청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여 역사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부정하지 말라. 또 역사를 외면하지 말라. 역사 앞에서 모두 진실해야 한다. 역사를 모독하고 저주하거나 날조 말살하려는 자는 무서운 하늘의 단죄가 머지않아 내려질 것이다. 이것은 인간 율곤 이중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중재는 우리 선조 조상들의 소리를 듣고 경고하는 것이지 결코 이중재가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1993년 4월경 일본 동경에 갔다. 그때 한국의 유학생들에게 특별 강의를 하러 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나리따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리무진버스를 타고 동경시내로 들어섰을 때는 동경의 하늘이 온통 죽은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죽은 기운이란 사기이다. 전철을 탔을 때도 공원을 가 봐도 마찬가지였다. 동경거리마다 곳곳에 죽은 기운이 하늘에서 짓누르고 있었다. 양력 4월 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김종민(國上古史學會 수석 부회장)씨는 날 구경시켜 주려고 벚꽃이 만발한 공원을 찾아갔다. 공원에는 엄청난 인파가 와 있었다. 꽃도 만발해 있었다. 그런데도 공원의 기운이 모두 죽어 있었다. 동경시내와 공원거리 할 것 없이 까마귀에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비명같은 소리에 가슴을 싸늘하게 하였다. 그날 밤 강의를 끝낸 후 밤 1시에 필자는 동경의 하루라는 시 한수를 썼다. 이 시 내용은 한마디로 일본이 천재지변으로 패망하리라는 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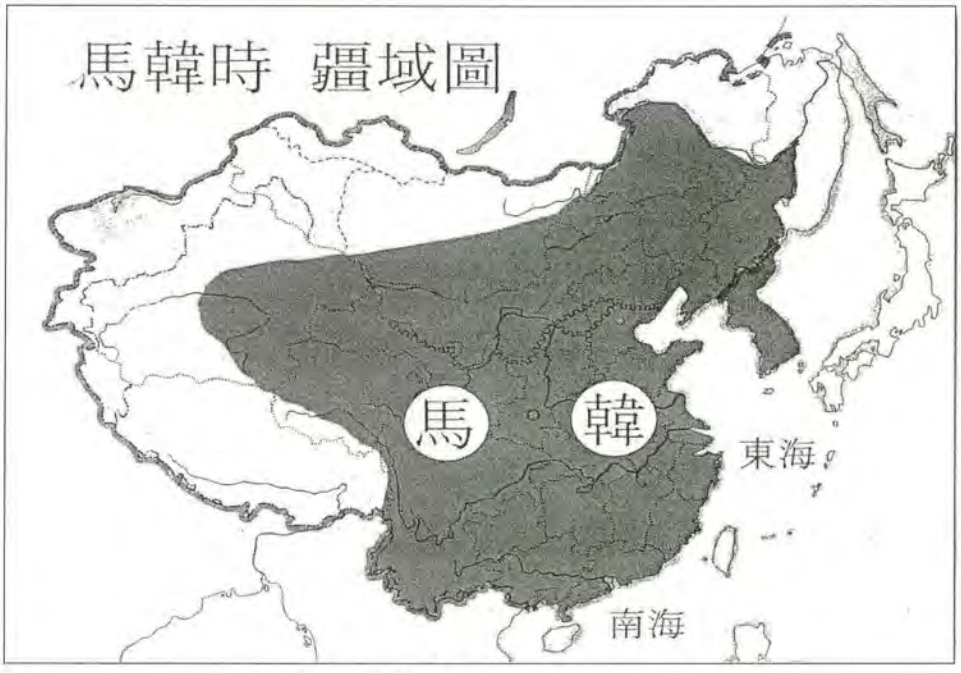
(하) 왕건은 진주(陳州) 항성(項城)사람

구오대사에서 참위열전 제3편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왕건은 진주 항성사람이다. 진주라면 춘추시대 때 진나라이다. 특히 북주 나라가 두었던 곳이 진주이다. 진주는 현재 중국대륙에 있는 하남성(河南省) 항성현(項城縣) 동북이다. 정확히 말해서 하남성 희양현이며 이곳이 희양군이자 진주부(陳州部)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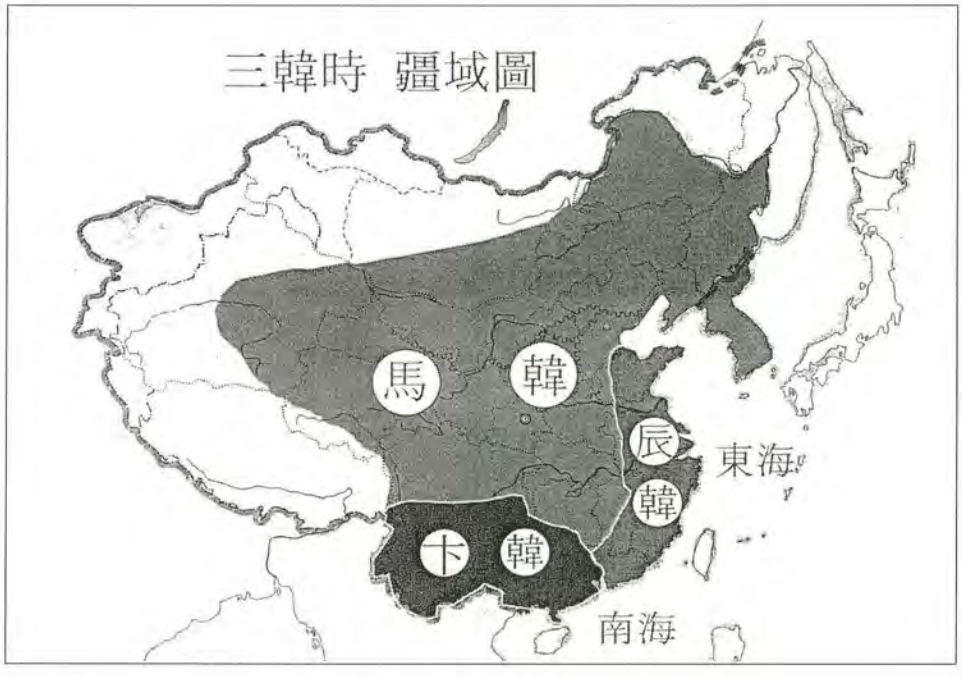
당나라 말기이다. 보통 이름은 우충(于忠)이다. 왕건의 자는 약천이라고 고려열전에 기록하고 있다. 왕건은 고려사열전에서 송악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태어난 곳이 아니고 자란 곳을 뜻한다. 왕건이 태어난 곳은 구오대사 참위전에서 보듯이 진주 항성사람이다. 이곳은 하남성 개봉현의 남쪽이다. 그리고 안휘성과 하남성 경계근처에 있는 희양현이다. 옛날 진날 때 무군(武軍 : 무사와 군인)의 권력을 가진 종갓집 자손이다. 왕건의 조상은 진나라 때 무군 즉 군인의 집안이다. 조상들은 채주에서 살았다고 적고 있다. 채주의 지명은 없애 버렸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장안에 있던 당나라 희종(僖宗 : 이름은 이현, 연호는 건부, AD 860~874 경진년)때 촉(蜀) 나라가 있을 때이다. 이때 왕건의 조상은 양(梁)나라였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무관을 지낸 조상이 진나라가 망하자, 진나라의 씨족으로 있었으나 실제 윗대 조상은 그 후 양나라에 속해 있던 장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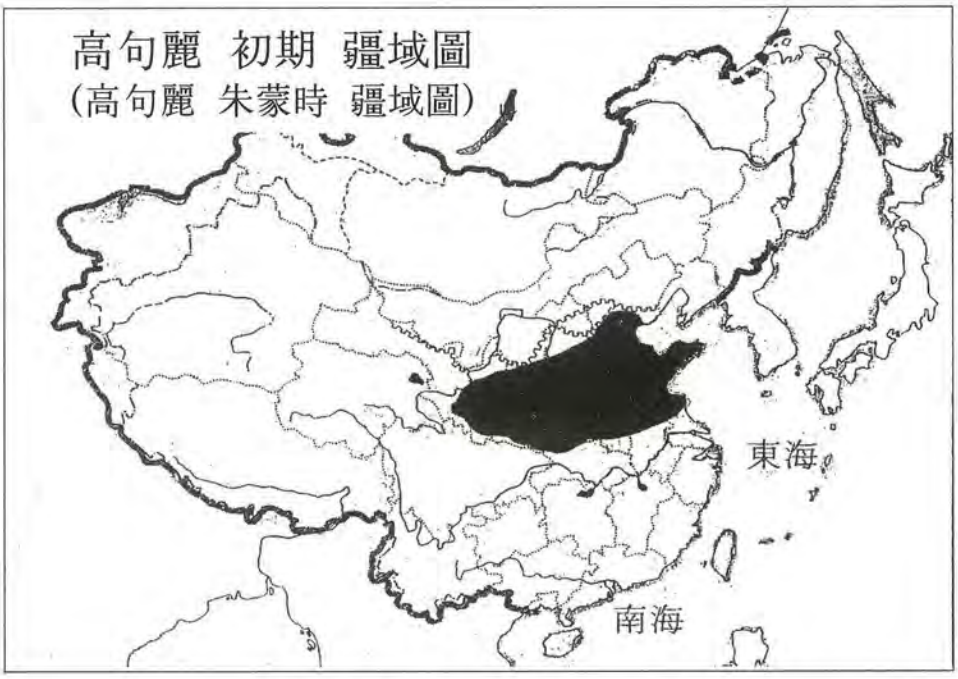
※ 이 자료는 이중재 씨 저서 『새 고려사』를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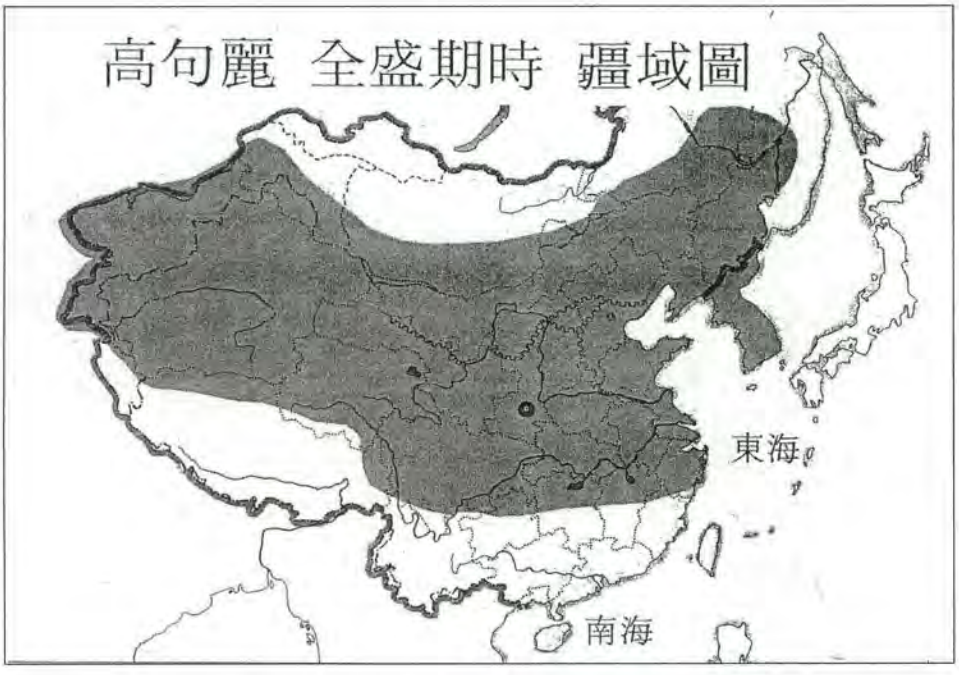
마한시 강역도(馬韓時 疆域圖)



삼한시 강역도(三韓時 疆域圖)



고구려 초기 강역도(高句麗 初期 疆域圖)



고구려 전성시대 강역도(高句麗 全盛時代 疆域圖)

특 집 V

기축년(己丑年)의 유래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이 명 수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간지(干支 : 天干, 支干, 十干, 十二支) 상으로 기축년 소(牛)띠 해다.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실생활에 사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없어서는 안 될 소였다. 일반적으로 음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주역파(周易派) 또는 역경파(易經派)는 동지부터, 명리학으로 볼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입춘일을 새해로 생각했다.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지로 나타내는 동물의 이름으로 이르는 것이라 했다. 소가 십이지간에 두 번째 동물인 이유와 내력을 보면, 옛날 하늘의 대왕(大王)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했다. 이에 그 선발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산의 문에 먼저 달려온 동물부터 그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12가지 동물들은 저마다 대왕 될 생각에 기뻐하며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그 동물 중에 소가 힘도 있고 우직하게 가장 열심히 수련할 때



이를 눈치 챈 쥐가 자신이 작고 미약하며 도저히 먼저 달려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소는 열심히 수련한 후 다른 동물들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믐날 밤 일찍이 길을 떠났다. 밤잠이 없는 쥐가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미리 눈치 챈 쥐가 소등에 올라탔다. 드디어

소는 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궁전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뿔을 움켜잡고 있던 쥐가 소머리 앞으로 뛰어내려 소를 제치고 1등이 되었다. 괘씸한 쥐를 대왕에게 상소하려 했지만 우직한 소는 용서와 배려를 해주었다.

잠자다 말고 눈치 챈 3등의 호랑이가 아침에 출발했지만 전날 밤에 떠난 소를 따라잡기에는 물 건너간 후였다. 토끼도 열심히 뛰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안보여 도중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4등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순으로, 12등인 돼지는 씰룩대고 달려오는 도중에 마을에서 부침개 부치는 고소한 냄새에 주위를 맴돌다가 얻어먹지도 못하고 꼴찌로 들어오고 말았다.

십이지에 대한 관념은 이집트, 그리스,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서양에 걸쳐 광범위하게 성행하였으나 그 기원의 문제와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십이지 명칭의 관념·예술적 표현·구성요소 등에서 보이는 유사성은 보편적 심리적 요구하는 다원 발생론적(Polygenesis)입장에서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십이지에 나타난 사상은 기록상으로 한족에게서 발생하였음이 일반화된 견해다. 처음엔 십이지가 별의 모양으로 모방하였으며 또 시각적인 관념에 의해 12개월의 부호(符號)로 쓰였으나 그 후 방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십이지를 지상의 바위에 배당했다. 십간과 십이지를 배합해 60 갑자가 합성된 것은 연대가 상당히 지난 2000년 전의 일이다. 십이지를 다시 자는 쥐로, 축은 소로 인은 호랑이 등 동물로 상징화 시킨 것은 2세기경인 후황 왕충의 논형에서 처음 비롯됐다.

그 후 오행가(五行家)들이 십간과 십이지에다. 금, 목, 수, 화, 토(金, 木, 水, 火, 土)의 오행을 붙이고 상생상극의 방법 등을 배열하여 인생의 운명은 물론 세상의 안위까지 점치는 법을 만들어 냈다.

또한 그 해에 태어난 아이의 운명과 성격을 띄운 띠 동물과 묶어 해석하는 풍속도 있어 왔다. 이러한 것으로 운명을 판단하기에는 근거 없는 일이지만 다만 세상이 시끄럽고 개인의 미래의 생활이 불안하여 해가 바뀔 때마다 어떤 점괘로 새로운 기대를 걸어보는 것도 인지상정인지 모를 일이다.

물론 이들 12지인의 띠 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 분명히 제시할 수 없지만 옛사람들은 인생의 지혜로 호안우보라 하여 호랑이처럼 예리한

눈으로 앞을 살피고 소의 발걸음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걸어야한다 라고 했다. 금년은 소의 해다.

우리는 소의 근면성실과 느리지만 불평없이 꾸준히 인내하는 생활의 교훈과 행동의 원리에서 가장 걱정스런 경제위기를 극복해보자.



상식교실

관청명(官廳名) / 관직명(官職名)

고려 · 조선시대에 관청 및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 · 사(司 : 소속된 관청) · 직(職 : 맡은 직분)의 순으로 쓰는데, 예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할 때,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階)를 말하는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는 소속된 관청을 뜻하며,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 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 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이라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6품(從六品)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正七品)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고려 · 조선시대에 관청 및 관직들만 추려서 가나다 순으로 찾기 쉽게 정리하였다.

〈편집실〉

관청명(官廳名)

가각고(架閣庫) : 고려·조선 때 궁중의 도서·전적(典籍)을 맡아보던 관청.

가례도감(嘉禮都監) : 조선 때 왕의 성혼·즉위, 또는 왕세자와 왕세손의 결혼·책봉 같은 일을 맡아본 임시 관청.

가옥(假獄) : 고려 광종 때 전옥서(典獄署) 이외에 임시로 설치한 옥.

각감청(閣監廳) : 조선 때 규장각의 각감의 사무로 역대 임금의 초상화 봉안소(奉安所)를 수위하는 임무를 맡아본 관청.

각문(閣門) : 고려 때 승선(承宣) 관계의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宿衛)를 맡아보았다. 충렬왕 때 밀직사(密直司)를 개칭한 광정원(光政院)을 달리 각문이라 하였다.

각전(各殿) : 왕실의 조상(祖上)으로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위패(位牌) 및 왕들의 영정(影幀)을 모신 곳.

감공사(監工司) : 조선 말기의 관청으로 통리군국기무아문(統理軍國機務衙門) 안에 두어 토목(土木)을 관리하였다.

감리서(監理署) : 조선 때 개항장(開港場)·개시장(開市場)의 사무를 관리한 관청.

감문위(監門衛) : 고려 6위의 하나로, 궁성(宮城) 안팎의 모든 문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아보았다.

감생청(減省廳) : 조선 때 임오군란 이후 국가의 경비를 덜기 위하여 관상감(觀象監) 안에 설치한 임시 관청.

감옥서(監獄署) : 조선 때 죄인을 가두어 형벌을 집행했던 관아로, 전옥서(典獄署)를 고친 이름.

감찰사(監察司) : 고려 때 정사(政事)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규찰(糾察)·탄핵(彈劾)의 일을 맡아보았다.

강서원(講書院) : 조선 시대 왕세손의 시강(侍講)을 맡아보던 관청.

개성부(開城府) : 조선 때 고려의 수도(首都)였던 개성(開城)을 관장하던 관아.

객성(客省) : 고려 성종(成宗) 14년에 예빈성(禮賓省)을 잠시 고친 이름.

건영청(建營廳) : 조선 때 서울의 각 관청을 재건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 조선 때 법률의 제정을 맡아본 관청.

결속색(結束色) : 조선 때 병조에 속하여 대궐 안이나 임금의 행차 때 떠드는 것을 금하는 일을 맡아본 관청.

결혼도감(結婚都監) : 고려 때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여자들을 선발코자 설치한 관청.

겸사복(兼司僕) : 조선 초기에 주로 국왕의 신변 보호를 위한 시립(侍立)·배종(陪從)·의장(儀仗) 및 왕궁호위병(王宮護衛兵)을 관장하던 곳.

경력사(經歷司) : 고려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안에 둔 관청으로 6방(六房)을 통할함.

경리원(經理院) : 조선 때 재산을 총 관리하였던 관청.

경무청(警務廳) : 조선 말의 경찰 관청으로 경성 5부의 모든 경찰 사무를 총괄하였다.

경비사(經費司)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예속된 3사의 하나로, 서울 안에 있는 각 관청의 경비와 왜인(倭人)의 양식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 : 고려때 7품 이하의 벼슬아치에게 경사를 가르치던 관청.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 : 조선때 성균관(成均館) 안에 설치되어 경서(經書) 출판을 맡아본 관청.

경시감(京市監) : 조선때 시전(市廛)·도량형(度量衡)·물가 조절 등을 맡아보던 관청.

경시서(京市署) : 고려 때 개경(開京)의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던 관청.
조선 때 물가의 조정, 상인들의 감독, 세과(稅課)의 감독, 저화(楮貨)의 유통을 맡아본 관청, 세조 12년 평시서(平市署)로 고침.

경연원(經筵院) : 조선 때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시강(侍講)과 제찬(制撰)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경연청(慶筵廳) : 조선 때 유교경전(儒敎經典)의 강론(講論)을 맡고 임금과 함께 사상(思想)을 토론하는 일을 맡은 관청.

경위원(警衛院) : 조선 때 궁전(宮殿) 내외를 경비하는 일을 맡아본 관청.

계제사(稽制司) : 조선 때 예조(禮曹)에 속해 의식·제도·조회(朝會)·경연·사관(史官)·천문·누각·상장(喪葬)·학교·과거 등의 일을 맡아본 관청.

고공사(考功司) : 고려 때 관리의 공과(功過)를 심사·판정하던 관청. 조선 때 이조에 속한 문관의 공과(功過)·근태(勤怠)·휴가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던 관청.

고마청(雇馬廳) : 조선 때 민간에서 징발한 말을 관리하던 관청.

고율사(考律司)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되어 법령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 관청.

공부(工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六部) 중 하나로, 공업과 농정(農政)을 맡아 관장하던 기관.

공상청(供上廳)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예속되어 궁중의 음식, 생선과 채소를 공급하던 관청.

공역서(供驛署) : 고려 때 병부(兵部)에 소속되어 각도의 우역(郵驛)을 관리하고 명령·전달하며, 역마(驛馬)의 동원 등 군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보던 관청.

공조(工曹) : 조선 때 6조(六曹)의 하나로, 공업 또는 공사(工事)·영선(營繕 : 건축물을 신축하고 수선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공조서(供造署) : 고려·조선 때 궁중의 장식기구(裝飾器具)를 맡아보던 관청.

공진소(供進所) : 조선 말 궁내부(宮內府)에 설치하여 식료품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관리서(管理署) : 조선 말 전국의 사찰(寺刹)과 산림(山林)·성보(城堡) 등을 관리하던 관청.

관보국(官報局) : 조선 때 의정부에 예속되어 관보(官報)의 인쇄와 발행을 맡아보던 관청.

관상감(觀象監) : 조선 때 천문(天文)·지리학·역수(曆數 : 책력)·측후(測候)·각루(刻漏) 등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지금의 기상대와 같다.

관세사(管稅司) : 조선 말기에 조세나 그 밖의 세입(稅入)을 맡아 징수하던 관청.

관습도감(慣習都監) : 고려와 조선 때 음악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아악(雅樂)·향악의 모든 악기·악곡·악보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관후서(觀候署) : 고려 때 천문(天文)·역수(曆數) 등을 맡아보던 관청.

광군사(光軍司) : 고려 때 광군(光軍)을 통할하던 관청.

광정원(光政院) : 고려 시대에 왕명(王命)의 출납(出納), 궁중의 숙위(宿衛) 등을 맡아보던 관아.

광제원(廣濟院) : 조선 말기의 질병 치료 시설. 내부(內部)에 예속된 병원.

광주부(廣州府) : 조선 때 남한산성과 광주를 관리하던 관청.

광평성(廣評省) : 고려 초기의 중앙관서로 982년(성종 1)에 명칭을 어사도성(御史都省)이라 했다가 그 뒤 995년(성종 14)에 상서도성(尙書都省)이라 고쳤다. 백관(百官)을 총령하였다.

광학국(礦學局) : 조선 말기에 광산에 관한 실지 교육의 사물을 맡아보던 궁내부(宮內

府)에 설치했던 한 부서.

광흥창(廣興倉) : 고려와 조선 때 관리들의 봉급을 관리하던 관청.

교방(敎坊) : 고려 초부터 있던 여악(女樂)을 맡아본 관청.

조선 때 궁내부에 교방사를 설치하여 속악(俗樂)을 맡아본 관청.

교서관(校書館) : 조선 때 경적(經籍) 등을 간행하고 반포하며 향축(香祝 : 제사 때 쓰는 향과 축문)·인각(印刻) 등을 맡은 관청.

교정도감(敎定都監) : 고려 때 최충헌(崔忠獻)이 세운 관청으로 비위(非違)의 규찰(糾察), 인사행정(人事行政), 세정(稅政)을 맡아보았다.

교정청(校正廳) : 조선 말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구황청(救荒廳) : 조선 때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던 관청.

국별장청(局別將廳) : 조선 때 국왕의 시위(侍衛)와 감찰 임무 등을 맡아본 무관청(武官廳).

국자감(國子監) : 고려 때의 국립대학으로 교육을 담당한 기관이며 지금의 서울대학교와 같다.

국학(國學) : 고려 때 교육을 맡아보던 관청. 1275년(충렬왕 1)에 국자감(國子監)을 국학이라 했다.

군기감(軍器監) : 또는 군기시(軍器寺). 고려 때와 조선 때 모든 군사에 필요한 병기를 제조하고 무기를 조달하던 관청.

군기시(軍器侍) : 고려 목종 때 설치된 군기감(軍器監)을 1362년(공민왕 11)에 군기시로 개칭한 것임. 조선 시대에 병기·기치(旗幟)·융장(戎仗)·집물(什物) 등을 맡아보던 관청.

군기창(軍器廠) : 조선 때 병기(兵器)·기치(旗幟) 기타 군수품(軍需品)을 만드는 일을 맡아본 관청.

군무사(軍務司) : 조선 때 군사면에 관한 직무와 이웃나라의 동정(動靜)을 살피는 일을 맡아본 관청.

군부(軍部) : 조선 말의 군사상(軍事上) 최고 관청으로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정, 군인 감독 등의 직무를 관장(管掌).

군부사(軍簿司) : 고려 1275년(충렬왕 1)에 상서병부(尙書兵部)를 고친 이름. 무선(武選)·우역(郵驛)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군자감(軍資監) : 조선 때 군수(軍需) 물자의 저장과 출납(出納)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군자시(軍資寺) : 고려 때 군수품을 저장하던 관청.

군직청(軍職廳) : 조선 때 5위에 예속된 군관(軍官) 중에서 상호군(上護軍) 이하 사용(司勇) 이상의 무관이 있던 관청.

군후소(軍候所) : 고려 말 병학(兵學)을 담당한 관청.

궁궐도감(宮闕都監) : 고려 때 궁궐의 건립이나 중수(重修) 등의 일을 맡아본 관청.

궁내부(宮內府) : 조선 말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았던 관청.

귀후서(歸厚署) : 조선 때 종6품아문(從六品衙門)으로 관곽(棺槨)을 제조, 백성에게 팔며 또한 장례(葬禮)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규장각(奎章閣) : 조선 때 임금의 어제(御製)에 대한 글과 서화(書畵)·선보(璿譜 : 왕실 족보) 등을 관리하며, 내각의 서적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

규정소(糾正所) : 조선 때 승려(僧侶)의 생활을 감독하던 관청.

균역청(均役廳) : 조선 때 균역법의 시행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 관청.

금살도감(禁殺都監) : 고려 때 소[牛]와 말[馬]의 도살을 금하던 관청.

금오대(金吾臺) : 고려 1014년(현종 5)에 무신(武臣)을 천시하는 정책에 반발하여 김훈(金訓)·최질(崔質) 등이 문신을 척결하고 왕에게 청하여 어사대(御史臺)를 없애고 대신 세운 관청으로, 관리들을 규찰(糾察)하고 탄핵(彈劾)하며, 풍속교정(風俗矯正) 등을 담당하였다.

금오위(金吾衛) : 고려 시대의 군제(軍制)인 6위(六衛)의 하나로, 왕도(王都) 안팎을 순찰·점검하는 경찰 임무를 맡아보던 곳.

금위영(禁衛營) : 조선 시대 5영(五營) 중의 하나로, 서울의 호위 임무를 맡았던 군영.

금화도감(禁火都監) : 조선 때 방화(防火)의 임무를 띤 관청.

급전도감(給田都監) : 고려 때 전시과(田柴科)의 시행과 동시에 전지 분급을 맡아보던 관청.

나례도감(儺禮都監) : 조선 때 종묘에 제사 지낼 때나 외국 사신의 영접, 기타의 경우에 나례를 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두었던 관청.

내경청(內經廳) : 조선 세조(世祖) 때 불경(佛經)을 필사(筆寫)·편찬(編纂)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군(內軍) : 고려 때 의장(儀仗)의 기물(器物)을 맡아보던 위위시(衛尉寺)의 前 이름.

내금위(內禁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를 맡아보던 군대로, 1407년(태종 7)에 설치하였다.

내무아문(內務衙門) : 조선 말 내무행정을 맡아본 중앙 관청.

내방고(內房庫) : 1325년(충숙왕 12)에 의성창(義成倉)을 고친 이름.

내병조(內兵曹) : 조선 때 병조에 속하여 궁궐 안의 시위(侍衛)와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본 관청

내부(內部) : 조선 말에 이조(吏曹)에서 하던 일을 계승한 중앙 관청.

내부감(內府監) : 1298년(충렬왕 24)에 소부감(小府監)을 고친 것으로, 궁중의 공예품과 보물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내부시(內府寺) : 고려 때 재화(財貨)의 보관을 맡아보던 관청.

내빙고(內氷庫) : 조선 때 왕실 전용(專用)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 고려 때 최고 중앙의정기관(議政機關)으로 내사성(內史省)과 문하성(門下省)을 합한 명칭이며, 왕명(王命)의 하달과 중신(重臣)의 건의를 담당하였다.

내사복시(內司僕寺) : 조선 때 궁전의 마굿간과 임금이 타는 말을 관리하던 관청.

내섬시(內贍寺) : 조선 때 각 전(殿)과 궁(宮)에 제공할 음식물과 제물 등을 맡아보고, 2품 이상의 관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수사(內需司) : 조선 때 대궐에서 쓰는 물자를 공급하던 관청.

내승(內乘) : 고려 말 궁중(宮中)의 승여(乘輿)를 맡아보던 관청.

내시부(內侍府) : 조선 때 대전(大殿)의 수라(임금의 식사)상을 감독하고 상감의 분부를 전달하며 청소 등을 맡은 관청.

내알사(內謁司) : 고려 때 왕명의 전달, 왕의 붓과 벼루의 보관 등을 맡아보았다.

내원서(內園署) : 고려 때 궁중의 원예(園藝)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의성(內議省) : 고려 초기 삼성(三省)의 하나인 중앙 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조(詔)·칙(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내의원(內醫院) : 조선 때 대궐의 약과 화제(和劑 : 약의 처방전)를 다루던 기관.

내자시(內資寺) : 조선 때 궁내의 술·간장·기름·채소 등 물자를 공급하며, 연회 등을 주관하던 관청.

내장사(內藏司) : 1895년(고종 32)에 내장원(內藏院)을 고친 이름으로, 임금의 세전물

(世傳物)·장원(莊園), 그밖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

농상아문(農商衙門) : 조선 말 농업과 상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

대관서(大官署) : 고려 때 제사(祭祀)나 연회(宴會)의 요리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대농시(大農寺) : 고려 때 미곡(米穀)을 관리하던 기관.

대묘서(大廟署) : 고려 때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하나.

대부시(大府寺) : 고려 때 어의(御衣)의 원료인 여러 가지 면직물을 저장하고 이를 조달하던 관청.

대악서(大樂署) : 고려 때 음률(音律)의 교열(校閱)을 맡아보던 관청.

대창서(大倉署) : 고려 때 곡물(穀物)의 저장을 맡아보던 관청.

대청관(大淸觀) : 고려 때 둑(纛 : 대가(大駕)나 대장이 행진시 앞에 세우는 기의 한 종류)을 간직, 맡아보던 관청.

도교서(都校署) : 고려 때 세공(細工)을 맡아보던 관청.

도안색(都案色) : 조선 때 병조(兵曹)에 속하여 별기병(別騎兵)의 보포(保布)를 관리하던 관청.

도염서(都染署) : 고려와 조선 때 염색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도정서(都正署) : 고려시대의 관청. 1014년(현종 5) 김훈(金訓)·최질(崔質) 등 무신이 정권을 잡자 삼사(三司)를 없애고 그에 대신하여 도정서를 두었으나, 이듬해 없어졌다.

도찰원(都察院)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에 속하여 백관(百官)의 행동을 규찰(糾察)하던 관청.

도호부(都護府) :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기관.

도화서(圖畵署) : 조선 때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돈령부(敦寧府) : 조선 때 왕실의 가까운 종친(宗親)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 1414년(태종 14)에 설치됨.

동문사(同文司) : 조선 말 사대사(事大司)와 교린사(交隣司)를 합친 관청.

동문원(同文院) : 고려 때 학문과 문서 기록을 맡아보던 관청.

동빙고(東氷庫) : 조선 때 얼음의 보존과 그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

동서재장(東西材場) : 고려 때 목재의 보관 및 조달을 맡아보던 관청.

동서활인원(東西活人院) :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을 개칭한 것으로, 조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와 의식(衣食)을 맡은 관청.

무위영(武衛營) : 조선 때 궁전(宮殿)을 수비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청.

문선사(文選司) : 조선 때 문선(文選)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문하부(門下府) : 고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

문한서(文翰署)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글로 기초하던 관청.

물장성(物藏省) : 고려 때 궁중의 공예품과 보물의 보관 업무를 맡아보던 곳.

물품사(物品司) : 1895년(고종 32)에 설치한 것으로 궁중의 기물(器物) 조달과 건물을 보수(補修)하는 일을 맡았다.

민조(民曹) : 고려 충렬왕 때 호구(戶口)·공부(貢賦)를 맡아보던 관청.

밀직사(密直司) : 고려 때 정령(政令)의 출납(出納), 궁중의 숙위(宿衛 : 궁중을 지키고 왕을 호위함), 군사 기밀을 담당하던 관청.

박문원(博文院) : 1903년(광무 7)에 설치한 내·외국 고금의 서적·신문·잡지 등을 보관하던 관청.

법무아문(法務衙門) : 조선 말에 사법형정(司法刑政)·은사(恩赦)·복권(復權) 및 재판소의 관리를 주관하던 관청.

법부(法部) : 1895년(고종 32) 법무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으로, 사법형정(司法刑政)·사면(赦免)·복권(復權) 및 재판소의 감독에 관한 일을 담당.

병부(兵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六部) 중 하나로, 국방 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武官)의 인사(人事) 등을 맡아 관장하는 지금의 국방부와 같은 관청.

병조(兵曹) : 조선 때 6조(六曹)의 하나로, 무관(武官)에 대한 인사 문제, 군사·우편·역(驛)·병기(兵器)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보문각(寶文閣) : 고려 때 경연(經筵)과 장서(藏書) 등을 관리하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던 관청으로 뒤에 경연청(經筵廳)으로 고침.

보민사(保民司) : 1764년(영조 40) 장례원(掌隷院)을 폐지하고, 그 대신 형조(刑曹)와 한성부의 속전(贖錢)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보원해전고(寶源解典庫) : 고려 때 전당(典當)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으로 공민왕 18년에 두었다.

봉상시(奉常寺) : 조선 때 제향과 시호(諡號)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봉의서(奉醫署) : 고려 때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조제하는 일을 맡았던 관청.

비변사(備邊司) : 1555년(명종 10)에 창설된 것으로 나라의 군사 기밀과 그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군무(軍務)를 총괄하던 관청.

비서성(秘書省) : 고려 때 왕의 측근에서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다루고, 임금의 명령을 행하던 기관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관청.

빙고(氷庫) : 조선 때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던 관청.

사간원(司諫院) : 조선 시대 때 임금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간(諫)하고 간쟁(諫爭)·논박(論駁 : 잘못된 것을 말함)을 맡았던 관청.

사농시(司農寺) : 고려 때 제사에 사용되는 곡식과 적전(籍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도시(司導寺) : 조선 때 대궐 안의 쌀·간장·겨자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림원(詞林院) : 고려 1275년(충렬왕 1)에 한림원(翰林院)을 고친 문한서(文翰署)를 다시 고쳐서 부르던 이름으로, 왕명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복시(司僕寺) : 고려와 조선 때 궁중의 가마와 마필(馬匹)·목장(牧場)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308년 태복시(太僕寺)를 사복시로 바꿈.

사선서(司膳署) : 고려 때 임금의 식사를 맡아보던 관청.

사설서(司設署) : 고려 때 의식(儀式) 등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설비를 맡아보던 관청.

사섬시(司贍寺) : 조선 태종 원년에 설치하여 숙종 때 폐지하였는데, 저화(楮貨 :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를 만들고, 지방에 있는 노비의 공포(貢布 : 세금으로 내는 베) 등을 관리하던 관청.

사수감(司水監) : 조선 때 전함(戰艦)의 수리와 운수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수시(司水寺) : 고려 때 병선(兵船)과 수병(水兵)을 맡아보던 관청.

사역원(司譯院) : 고려와 조선 때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을 맡아보던 관청.

사온서(司醞署) : 조선 때 술을 만들어 궁중에 공급하던 기관.

사옹원(司饔院) : 조선 때 임금의 식사와 대궐 안의 음식 등을 만들던 기관.

사위시(司衛寺) : 고려 광종(光宗) 뒤에 장위부(掌衛部)를 고친 이름으로, 의장(儀仗)과 그에 따르는 기물을 맡아보던 관청.

사의서(司儀署) : 고려 때 의례의 진행 절목(節目)을 맡아보던 관청.

사재감(司宰監) : 조선 때 궁중의 생선·고기·소금·땔나무 등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사재시(司宰寺) : 고려 때 어산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을 맡아보던 관청.

사적(司積) : 고려 때 관원의 공과(功過 : 공로와 과실)를 심사·판정하던 관청.

사직서(社稷署) : 조선 때 나라의 근본을 지키는 신을 모신 기관.

사창서(司倉署) : 조선 때 평안도와 함경도의 두 도에 있던 토관직의 관청으로 곡식을 관리했다.

사천감(司天監) : 고려 때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사축서(司畜署) : 조선 때 가축 이외의 짐승을 기르는 일을 담당했던 관청.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 : 고려 때 포도(捕盜)와 금란(禁亂)을 맡아보던 관청.

사포서(司圃署) : 조선 때 궁중의 채소를 맡아 가꾸며 관리하던 기관.

사학(四學) : 고려 말기부터 설치하였던 학교로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의 4곳에 두었다.

사헌부(司憲府) : 고려와 조선 때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살펴보던 관청.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 1391년(공양왕 3)에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군사를 통솔하던 기관.

삼사(三司) : 고려 때 국가의 전곡(錢穀 : 화폐와 곡식)의 출납(出納)과 회계(會計)를 맡아보던 기관. 조선 때 재정(財政)을 맡아보던 관청.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을 합쳐 부르던 말로,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자로 임명하였다.

상만고(常滿庫) : 고려 충선왕(忠宣王) 때 대부시하고(大府寺下庫)를 고친 이름으로 어의(御衣)의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면직물을 저장하고 이를 조달하던 관청.

상사국(尙舍局) : 고려 때에 포설(鋪設 : 좌석 등의 설비를 맡아봄)을 맡아보던 관청.

상서공부(尙書工部) : 995년(고려 성종 14)에 설치하여 산택(山澤)·공장(工匠)·영선(營繕) 등을 맡아보던 관청.

상서금부(尙書金部) : 상서호부(尙書戶部)에 속한 관청으로 995년(성종 14)에 금조(金曹)를 상서금부(尙書金部)로 개칭하였다. 공물(貢物)과 부세(賦稅)를 관리했다.

상서도관(尙書都官) : 상서형부(尙書刑部)에 속한 관청으로 995년(성종 14)에 형부(刑

部)를 도관(都官)으로 개칭하였으며 노비(奴婢)의 부적(簿籍)과 소송(訴訟)을 맡아보았다.

상서도성(尙書都省) : 고려 때 정무(政務)를 맡은 상서 6부(尙書六部)를 통할하던 관청. 어사도성(御使都省)이었던 것을 995년(성종 14)에 상서도성이라 개칭하였다.

상서병부(尙書兵部) : 995년(고려 성종 14)에 정한 육부의 하나. 그 전의 병관(兵官)을 고친 이름으로 무선(武選)·군무(軍務)·의위(儀衛)·우역(郵驛)의 일을 관리하였다.

상서사(尙瑞司) : 1225년(고종 12) 최우(崔瑀)의 무단정권(武斷政權)이 문무백관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정방(政房)을 창왕 때 개칭, 상서사라 불렀다. 주로 전주(銓注 : 인물을 골라 적소에 배치함)를 맡아보았다.

상서사부(尙書祠部) : 995년(성종 14) 사조(祠曹)를 고친 이름으로 상서예부에 예속한 관청. 주로 예의(禮儀)와 제향(祭享)을 맡아보았다.

상서성(尙書省) : 중서성(中書省)·문하성(門下省)과 함께 고려 중앙정치기구의 중추를 이루던 삼성(三省)의 하나. 백관을 총령(總領)하고, 육부(六部)를 감독했다.

상서수부(尙書水部) : 고려 때 상서공부(尙書工部)에 속한 관청. 995년(성종 14)에 수조(水曹)를 고친 이름으로 물을 다스렸다.

상서예부(尙書禮部) : 995년(성종 14)에 정한 6부(六部)의 하나로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학교(學校)·교빙(交聘)을 맡아보았다.

상서원(尙書院) : 조선 때 임금의 옥새(玉璽 : 도장)와 부패(符牌 : 마패·순패) 등을 관장하던 기관.

상서이부(尙書吏部) : 995년(성종 14)에 정한 6부(六部)의 하나로 문선(文選)·훈봉(勳封)의 일을 맡아보았다.

상서형부(尙書刑部) : 995년(성종 14)에 정한 6부(六部)의 하나로, 그 전 형관(刑官)의 이름을 상서형부로 개칭하였다. 법률·소송·형옥(刑獄)에 관한 일을 함.

상서호부(尙書戶部) : 995년(성종 14)에 정한 6부(六部)의 하나로 그 전 민관(民官)으로 불렀던 것을 관제 개편에 의하여 상서호부로 고쳤음.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糧)을 맡아보았다.

상식국(尙食局) : 고려 때 궁중의 부식 재료를 조달하던 관청.

상약국(尙藥局) : 고려 때 왕의 어약 조제를 관장하던 관청.

상의국(尙衣局) : 고려 때 왕의 어의(御衣)를 관장하던 관청.

상의사(尙衣司) : 조선 때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옷을 관리하던 관청.

상평청(常平廳) : 1457년(세조 3)에 설치된 상평창(常平倉)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민간 구제 목적으로 곡물 조절 업무를 맡았다.

상호도감(上號都監) : 조선 시대에 임시로 두었던 기관으로 왕이나 왕비 등의 시호(諡號)를 짓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생약포(生藥舖) : 조선 때 당약(唐藥) 무역을 맡아보던 관청.

서운관(書雲觀) : 고려 때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서적점(書籍店) : 고려 때 주자(鑄字)와 서적 인쇄를 맡아보던 관청.

선공감(繕工監) : 조선 때 토목(土木)과 영선(營繕 : 건축물을 짓거나 고치는 일)에 관한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

선공시(繕工寺) : 1298년(충렬왕 24) 선공사(繕工司)를 개칭하여 선공시로 불렀으며, 토목과 영선을 맡아보았다.

선관(選官) : 고려 개국 당시의 관청으로 문관의 선임·승진·공훈·봉작을 맡아보았다.

선관서(膳官署) : 고려 때 제사와 연회에 쓰는 음식을 맡아보던 관청.

선부(選部) : 1308년(충렬왕 34) 종전의 전조(銓曹)에 의조(儀曹)·병조(兵曹)를 합하여 선부라 하였다.

선전관청(宣傳官廳) : 조선 때 왕의 측근에서 왕을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던 기관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전관(宣傳官)이라 하였다.

선혜청(宣惠廳) : 1608년(선조 41)에 창설되어 대동미(大同米)와 대동목(大同木) 등을 출납(出納)한 곳. 이른바 세금으로 받은 쌀과 피륙 등을 관리했다.

성균관(成均館) : 고려 말과 조선 때 최고 교육 기관으로 유생(儒生)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들에게 훈련을 시킨 교육 기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 조선 때 왕세손(王世孫 : 임금의 손자)에게 교육을 시키며 강의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 : 조선 때 왕세손(王世孫 : 임금의 손자)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던 관청.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조선 때 왕세자를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을 강의하며 도의(道義)를 가르치는 임무를 담당한 관청.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조선 때 세자를 호위하던 관청.

소격서(昭格署) : 조선 때 도교(道敎)의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나타내며 하늘·땅·별 등에 제사하던 기관.

소부감(小府監) : 고려 때 나라의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를 관리하던 관청으로 소부시(小府寺)라고도 했다.

수궁서(守宮署) : 고려 때 지방의 공포(貢布 : 세금으로 바친 베)로 장막을 지어 궁중이나 각 관청에 쓰이게 하는 일을 맡았다.

수륜원(水輪院) : 1902년(광무 6)에 설치한 궁내부(宮內府)의 관청으로 물방아나 관개(灌漑)에 관한 일을 맡았다.

수문장청(守門將廳) : 조선 때 궁궐문의 수위(守衛)를 맡아보던 관청.

수복청(守僕廳) : 묘(廟)·능(陵)·서원(書院) 등의 제사를 맡아보던 관청.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1426년(세종 8)에 금화도감(禁火都監)과 성문도감(城門都監)을 합하여 부르던 이름으로, 궁궐·관아·민가의 소화를 맡았다. 지금의 소방 본부와 같다.

수어청(守禦廳) : 조선 때 군영(軍營)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수축하고 그 부근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진(鎭)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순군(巡軍) : 고려 때 국내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직분을 맡았으며, 지금의 치안 본부와 같다.

숭문관(崇文館) : 고려 때 문신 중에서 학문이 뛰어난 자를 뽑아 학사(學士)로 임명하여 임금의 측근에서 모시도록 마련한 관청.

승문원(承文院) : 조선 때 다른 나라와의 외교문서를 관리하던 관청.

승정원(承政院) : 조선 때 왕명을 받들어 거행하는 관청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다.

승지방(承旨房) :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청.

시강원(侍講院) :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세자시강원을 고친 이름으로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곳이다.

시종원(侍從院) : 1866년(고종 3) 궁내부에 설치한 부서로 왕의 비서·어복(御服)·어물(御物)·진후(診候)·의약(醫藥)·위생(衛生) 등에 관한 일을 맡았다.

실록청(實錄廳) : 조선 때 실록을 편찬하던 임시 관청.

액정국(掖庭局) : 고려 때 왕명(王命)의 전달, 왕이 사용하는 지필묵(紙筆墨)의 조달, 궁궐의 열쇠의 보관, 궁궐 정원의 설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

액정서(掖庭署) : 조선 때 왕명의 전달, 임금이 지필묵(紙筆墨)의 조달, 궁궐 열쇠의 보관, 궁궐 정원의 설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

양온서(良醞署) : 고려 때 궁중에서 쓰는 술을 조달하던 관서.

양지아문(量地衙門) : 1898년(광무 2)에 설치되어 토지 측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양현고(養賢庫) : 조선 때 성균관 유생(儒生)들의 식량을 공급하던 기관.

어공원(御供院) : 1904년(광무 8)에 설치되었던 부서로 궁내부의 분장(分掌)·개간(開墾)·종식(種植)·천택(川澤)·강해(江海)·제언(堤堰)·어렵(漁獵)·어공진배(御供進排)를 맡아보았다.

어사대(御史臺) : 고려 때의 관청으로 왕의 잘못을 간(諫)하고 백관의 과오와 비행을 규탄하던 기관.

어사도성(御事都省) : 995년(성종 14)에 광평성(廣評省)을 어사도성으로 개칭하였다. 백관(百官)을 총령(總領)하던 관청.

어영청(御營廳) : 조선 시대 왕실을 호위하고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 : 고려 때 궁궐 안에서 전명(傳命) 및 잡역(雜役)을 맡아보던 관청.

영선사(營繕司) : 조선 말에 왕실 관계의 건축·토목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영조국(營造局) : 고려 충렬왕 때 철공(鐵工)과 야금(冶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예문관(藝文館) : 고려와 조선 때 임금의 칙령(勅令 : 명령)과 교명(敎命)을 기록하고 왕명을 받들어 글을 짓고 문학을 관장하던 관청.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 1308년(충렬왕 34) 문한서(文翰書)와 사관(史館)을 합병 개편한 것으로 제찬(制撰)과 사명(詞命) 및 시정기(時政記)를 맡아보던 곳이다.

예부(禮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六部) 중 하나로, 외교 관계와 백성의 교육·풍교(風敎) 등을 관장했다.

예빈시(禮賓寺) : 고려와 조선 때에 나라의 손님을 접대하고 연회를 베풀며 종실(宗室) 및 재상(宰相)을 접대하던 관청.

예의사(禮儀司) : 1362년(공민왕 11)에 예부(禮部)를 개칭한 이름으로 제향(祭享)·조회

(朝會)·교빙(校聘)·학교·과거(科擧) 등의 일을 관장하던 관청.

예조(禮曹) : 조선 때 6조(六曹)의 하나로 예악(禮樂)·제사(祭祀)·향연(饗宴)·조례(朝禮)·학교(學校)·과거(科擧)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오위(五衛) : 조선 전기의 중앙 군제로 문종 때 5사(司)로 개편되었다가 1457년(세조 3) 5위 제도로 개편되었다. 중위(中衛)로 의흥(義興), 좌위(左衛)로 용양(龍驤), 우위(右衛)로 호분(虎賁), 전위(前衛)로 충좌(忠佐), 후위(後衛)로 충무(忠武)를 두고, 1위(一偉)를 5부(五部), 1부를 4통(四統)으로 나누어 전군(全軍)이 여기에 딸리게 하였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 조선 때 5위(五衛 : 군대 조직)의 군무(軍務)를 총괄하던 관청으로 병조에서 독립된 기관. 오위는 의흥위(義興衛 : 중위)·용양위(龍驤衛 : 좌위)·호분위(虎賁衛 : 우위)·충좌위(忠佐衛 : 전위)·충무위(忠武衛 : 후위).

와서(瓦署) : 1392년(태조 1)에 공조(工曹)의 예속하에 설치되어 관립 기와공장을 관장하던 관청.

외부(外部) :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에 따라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외부시(外府寺) : 1298년(충렬왕 24)에 대부시(大府寺)를 고친 이름으로 궁중의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일을 맡았다.

요물고(料物庫) : 1311년(충선왕 3)에 비용사(備用司)를 개칭한 이름으로 궁중의 미곡과 개장(芥醬)의 공급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용호영(龍虎營) : 조선 때 궁중의 숙직과 왕을 호종(扈從 : 임금을 모시고 따라다님)하는 것을 임무로 하던 군영(軍營).

우림위(羽林衛) : 1492년(성종 23)에 금군(禁軍)의 하나로 설치. 지위는 내금위(內禁衛)나 겸사복(兼司僕)보다는 못하였으나 갑사(甲士)보다는 우위에 있었던 듯하다. 우림위는 1755년(영조 31) 내금청(內禁廳)이 용호영으로 개칭됨에 따라 용호영(龍虎營)에 속하게 되었다.

우정국(郵政局) : 조선 말에 연해(沿海) 각 항구의 왕래 서신과 국내의 우편 사무를 취급하던 관청.

원봉성(元鳳省) : 고려 초기에 두었던 관아로 제찬(制撰)·사명(詞命) 등 왕의 칙서(勅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구.

원수부(元帥府) : 1899년(광무 3)에 러시아의 영향 아래 있던 군통수권을 장악하기 위해 황궁 안에 설치한 대한제국 최고 군통수(軍統帥) 기구.

위위시(衛尉寺) : 고려 때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율학청(律學廳)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되어 법전(法典) 운영의 전문적인 실무 교육을 담당하던 관청.

융기도감(戎器都監) : 고려 때 군기(軍器)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응방(鷹坊) : 고려와 조선 때 매[鷹]의 사육과 사냥을 맡았던 관청.

응양군(鷹揚軍) : 고려 때 2군(二軍)의 하나.

의금부(義禁府) : 조선 시대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 : 죄인을 심문함)하는 일을 맡았으며 형옥(刑獄)을 다스리고 재판하던 기관.

의빈부(儀賓府) : 조선 때 공주(公主)나 옹주(翁主) 등과 결혼한 부마(駙馬 : 왕의 사위)들을 위하여 세운 관청.

의영고(義盈庫)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속하는 아문(衙門)으로, 기름·꿀·후추·과일 등의 물품을 관리하던 관청.

의정부(議政府) : 조선 시대의 최고 관청으로, 고관들이 모여 국사(國事)를 상의하고 회의하며 모든 정치와 관리들을 총괄하였다.

의조(儀曹) : 고려 충렬왕 1년에 이부와 예부를 합쳐 전리사(典理司)라 부르던 것을 1324년(충숙왕 11)에 다시 예부(禮部)를 독립시켜 의조라 불렀다.

의흥위(義興衛) : 조선 때 오위(五衛)의 하나.

이군육위(二軍六衛) : 고려 때 중앙군(中央軍)의 조직으로, 이군(二軍)은 응양군(鷹揚軍)·용호군(龍虎軍), 육위(六衛)는 좌우위(左右衛)·신호위(神虎衛)·흥위위(興威衛)·금오위(金吾衛)·천우위(千牛衛)·감문위(監門衛)를 말한다.

이부(吏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六部) 중 하나로, 관리의 인사 관계와 지방의 관청을 감독했다.

이재국(理財局) : 조선 말에 재정(財政)에 관한 사무와 물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

이정청(釐整廳) : 조선 때 군제(軍制)의 문란을 정리하고 군정(軍政)을 쇄신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기관.

이조(吏曹) : 조선 때 6조(六曹)의 하나로, 모든 문관(文官)의 인사(人事)를 담당하고

훈봉(勳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던 관청.

인물추고도감(人物推考都監) : 고려 때 노비(奴婢)의 방량(放良)·면천(免賤)·쟁소(爭訴) 등을 맡아보던 관청.

인신사(印信司) : 고려 때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청.

자문감(紫門監) : 조선 때 선공감(繕工監)에 속한 기관으로 시어소(時御所)의 각전(各殿)·각당(各堂)·내각사(內各司)의 청사 보수 및 차비문(差備門) 안의 각종 기물을 만들며, 내빙고(內氷庫)의 공상(供上)을 맡아봄.

자섬사(資贍司) : 1310년(충선왕 2)에 제용사(濟用司 : 저화를 맡은 관아)를 자섬사로 개칭하였다.

자정원(資政院) : 1298년(충렬왕 24)에 두었던 관청으로 곧 폐하였다.

잡작국(雜作局) : 1308년(충렬왕 34)에 도교서(都校署)를 고친 이름으로, 궁중에서 쓰는 도구(道具)의 제작과 조각(彫刻) 등 세공(細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잡직서(雜織署) : 고려 때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금사(掌禁司) : 조선 때 감옥과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장생서(掌牲署) : 고려 때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을 맡아보던 관청.

장악원(掌樂院) : 조선 때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야서(掌冶署) : 고려 때 철공(鐵工)과 야금(冶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예원(掌隷院) : 조선 때 노예에 관한 문서와 재판 관계를 다루던 관청.

장원서(掌苑署) : 조선 때 궁중의 원유(苑囿)와 화과(花果)의 관리를 맡은 기관.

장위부(掌衛部) : 960년(광종 11)에 내군을 고친 이름으로 의장(儀仗)의 기물(器物)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후에 위위시로 바뀌었다.

장의서(掌醫署) : 1310년(충선왕 2)에 상약국(尙藥局)을 고친 이름으로, 왕의 약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장작감(將作監) : 고려 때 토목(土木)·영선(營繕)을 맡아보았다.

장흥고(長興庫) : 조선 때 유지(油紙)·종이 등을 관리하던 관청.

저적창(儲積倉) : 고려 충선왕 때 전농사(典農司)를 고친 이름으로 제사(祭祀)에 쓰는 미곡(米穀)과 적전(籍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객사(典客司) : 조선 때 예조(禮曹)에 소속된 관청으로 외국 사신에 대한 임금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전객시(典客寺) : 고려 때 빈객(賓客) 연향(宴享)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298년(충렬왕 24)에 예빈성(禮賓省)을 고친 이름.

전교시(典校寺) : 고려 때 경적(經籍)과 축소(祝疏)를 관장하던 관청.

전구서(典廐署) : 고려 때 가축의 사육을 맡아보던 관청.

조선 초에 목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농사(典農司) : 고려 때 궁중의 대제(大祭)에 쓸 곡식을 맡아보던 관청.

전례서(典禮署) : 조선 때 각 부(府)에 두었던 토관(土官)의 관청.

전리사(典理司) : 1275년(충렬왕 1)에 상서이부·상서예부를 합쳐 전리사라 하였다. 문관의 선임·공훈·봉작과 의례·외교·교육 등을 맡아보았다.

전법사(典法司) : 1275년(충렬왕 1)에 원(元)의 간섭으로 관제를 개정할 때 법률·소송·형옥을 맡아보았다.

전생서(典牲署) : 조선 때 궁중의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선사(典膳司) : 조선 말에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관청으로 궁중의 음식·잔치 등을 맡아보았다.

전설사(典設司) : 조선 때 식전에 사용하는 장막의 공급을 담당하던 관청.

전악서(典樂署) : 1308년(충렬왕 34)에 목종 때 설치한 대악서를 개칭하여 전악서라 하고, 자운방(紫雲坊)에 예속시켜 성률(聲律)의 교열(校閱) 등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았다.

전연사(典涓司) : 조선 때 궁궐을 청소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전옥서(典獄署) : 고려와 조선 때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지금의 교도소와 같다.

전운사(轉運司) : 조선 말에 각 도의 세미(稅米)를 서울로 실어오는 일을 맡던 관청.

전의감(典醫監) : 조선 때 의술과 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의시(典儀寺) : 고려 때 제사(祭祀)와 증시(贈諡)를 맡아보던 관청.

전의시(典醫寺) : 고려 때 의약과 치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전조(銓曹) : 이부·예부를 합하여 전리사라 하였다가 1298년(충렬왕 24)에 이부(吏部)를 독립시켜 전조라 하였다. 문·무관의 전형과 인사·공훈·봉작을 맡아보았다.

전중성(殿中省) : 고려 때 대궐 안의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 : 고려 때 전함의 군량미를 보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전함사(典艦司) : 조선 때 배를 만들고 수리하며 관리하던 관청.

전향사(典享司) : 조선 때 연회(宴會)·제사(祭祀)·의약(醫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정포도감(征袍都監) : 고려 때 군복(軍服)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기도감(祭器都監) : 고려 때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릉서(諸陵署) : 고려 때 산릉(山陵)의 수호(守護)를 목적으로 설치한 관청.

제실재산정리국(帝室財産整理局) : 1907년(융희 1)에 설치한 황실 재산의 정리·유지·경영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제실제도정리국(帝室制度整理局) : 1905년(광무 9)에 설치한 황실 제도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제실회계감사원(帝室會計監査院) : 1907년(융희 1)에 제실회계검사국을 고친 이름으로 황실 재산의 검사·회계 심사를 맡아 보던 관청.

제언사(堤堰司) : 조선 때 각 도(道)의 수리 시설·제방을 조사·수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기관.

제왕자부(諸王子府) : 고려 때 왕자(王子)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용감(濟用監) : 조선 때 마포·모시·나사(羅紗) 등 옷감을 맡아보고 또한 직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제용고(濟用庫) : 고려 때 각지에서 진헌(進獻)해온 저마포(苧麻布)·피물(皮物)·인삼(人蔘)·사여(賜與)하는 의복 등을 맡아보던 관청.

제용사(濟用司) : 고려 때 저화(楮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조선 말에 국내의 선수(膳羞)와 특산물을 취급하던 관청.

제위보(濟危寶) : 고려 때 빈민(貧民)·행려(行旅)의 구호와 질병의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

제폐사목소(除弊事目所) : 고려 때 나라 안의 큰 폐단을 바로잡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청.

조지서(造紙署) : 조선 때 종이를 만들고 관리하던 기관.

존호도감(尊號都監) : 조선 때 임금이나 왕비에게 존호를 올리게 될 때에 두었던 임시 관청.

종묘서(宗廟署) : 조선 때 침묘(寢廟)를 수호하고 정자각(丁字閣)을 지키던 관청.

종백부(宗伯府) : 조선 말기 때 궁중(宮中)의 의식(儀式)·제향(祭享)·능침(陵寢)·종실

(宗室)·귀족(貴族)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종부시(宗簿寺) : 조선 때 녹찬(錄撰)과 종실(宗室)에 대한 사무, 왕실의 족보 등을 조사 연구하던 기관.

종정시(宗正寺) : 1298년(충렬왕 24)에 전중시(殿中寺)를 고친 이름으로 그 명칭 변천 차례를 나열하면, 고려 초부터 전중성·전중시·종정시·전중감·종부시·종정시·종부시·종정시·종부시 순으로 조선으로 이어졌으며, 업무는 왕가의 보첩을 맡아보았다.

종친부(宗親府) : 조선 때 역대 국왕의 계보(系譜)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며 모든 군(君)과 왕족들의 감독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종학사(宗學司) : 조선 때 왕족의 교육을 맡아 주관하던 관청.

주전도감(鑄錢都監) : 고려 때 주전을 맡아보던 관청.

주전사(主殿司) : 조선 말에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관청으로 궁전(宮殿)·이궁(離宮)·쇄약(鎖鑰)·포진(鋪陳)·쇄소(灑掃) 등의 일을 맡아보았음.

준천사(濬川司) : 조선 때 서울 장안에 있는 개천과 사산(四山 : 서울을 둘러싼 산)을 관리하던 관청.

중방(重房) : 고려 때 이군(二軍)·육위(六衛)의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곳.

중상서(中尙書) : 고려 때 궁중에 쓰이는 기물·완구를 제작하는 곳으로 공조서(供造署)와 같은 일을 맡아보았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 고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으로, 왕의 조서(詔書)를 받들어 심사(審査)하고 시행했다. 후에 도첨의사(都僉議司)로 고침.

중추부(中樞府) : 1466년(세조 12) 중추원을 고친 이름으로 왕명의 출납, 숙위·군기를 맡아보았다.

중추원(中樞院) : 고려 때의 기관으로 왕의 자문(諮問)에 응하고 왕명의 출납 및 궁중의 모든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조선 초 왕명 출납과 병기(兵器)·군정(軍政)·경비(警備) 등을 맡아본 관청.

지계아문(地契衙門) : 1901년(광무 5)에 설치하여 토지 문권(文券)의 정리를 맡아보던 관청으로 탁지부(度支部)의 전신이다.

직수아문(直囚衙門) : 조선 때 직접 죄인을 감금하던 기관.

진강위(鎭江衛) : 조선 때 토착민으로 구성되었던 변경군영(邊境軍營 : 국경 군인 부대)으로 평안도 의주에 두었으며,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왕에게 상주해서 임명하였다.

진무영(鎭撫營) : 1700년(숙종 26)에 강화부(江華府)에 본연(本營)을 설치하고, 해상 경비의 임무를 맡았다.

진현관(進賢館) : 1298년(충렬왕 24) 집현전을 고친 이름으로 학식이 풍부한 문신(文臣)들을 뽑아 학문을 연구하고 왕을 시종케 하던 관청.

집현전(集賢殿) : 고려와 조선 때 왕실 연구 기관의 하나로 경적(經籍)의 간행과 서적의 수집 등을 맡아보던 기관.

찬집청(撰集廳) : 조선 때 시부(詩賦)를 초찬(抄撰)하여 제작하던 관청.

첨의부(僉議府)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성(尙書省)을 합하여 첨의부로 개편하였다.

총리영(摠理營) : 1802년(순조 2)에 장용영(壯勇營)을 개편한 것으로 수도 외곽에 설치하였던 군영.

총융청(摠戎廳) : 1624년(인조 2)에 서울 외곽인 수원 일대의 경비를 맡기 위해 설치하였던 5군영의 하나로 서울 사직동 북쪽에 두었다.

추밀원(樞密院) : 1095년(헌종 1)에 중추원을 추밀원으로 개칭하고, 왕명의 출납, 숙위(宿衛)·군기(軍機)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춘추관(春秋館) : 조선 때 정치와 역사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던 관청.

충무위(忠武衛) : 조선 때의 군대 편제인 오위(五衛)에 예속되어 후위로 편성되었다.

충의위(忠義衛) : 1418년(태종 18)에 설치하였던 오위(五衛)의 전위(前衛)인 충좌위(忠佐衛)에 충찬위(忠贊衛)·파적위(破敵衛)와 더불어 속해 있던 부대.

충익부(忠翊府) : 조선때의 원종공신(原從功臣)의 일을 맡아보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청.

충훈부(忠勳府) : 조선 때 국가에 공이 많은 신하나 그 자손들을 대우하기 위해 세운 관청.

충훈사(忠勳司) : 조선 때 국가에 공(功)이 많은 친공신(親功臣)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관청으로 1414년 공신도감을 고쳐 부르다가, 세조 때 충훈부로 개칭하였다.

치종청(治腫廳) : 조선 때 외과치술소(外科治術所)로 설치한 의료 기구.

친군영(親軍營) : 1882년(고종 19)의 임오군란(壬午軍亂)을 계기로 편제된 중앙 군제.

친군위(親軍衛) : 조선 때 군대 편제인 오위의 예하, 호분위(虎賁衛)에 속한 소부대.

친기위(親騎衛) : 1684년(숙종 10)에 국경 함경도 변방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기마 부대(騎馬部隊).

침원서(寢園署) : 고려 때 종묘(宗廟)의 수위(守衛)를 담당하던 관청.

탁지부(度支部) : 조선 말에 국가 전반에 걸친 재무행정을 담당했던 관청.

탁지아문(度支衙門) : 조선 말에 재정·조세·국채·화폐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 뒤에 탁지부로 개칭.

태복감(太卜監) : 고려 때 천문(天文)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복사(太僕司) : 조선 말기에 왕의 거마(車馬)와 조마(調馬) 등의 일을 맡은 관청.

태복시(太僕寺) : 고려 때 나라에서 사용하는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관청.

태사국(太史局) : 고려 때 천문(天文)·역수(曆數)·측후(測候)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태상부(太常府) : 고려 때 제사와 증시(贈諡)를 맡아보던 관청.

태의감(太醫監) : 고려 때 의약(醫藥)과 치료에 관한 일을 맡았던 관청.

태의원(太醫院) : 1902년(광무 6)에 설치한 것으로 황실의 의무(醫務)를 주관하였다.

통례문(通禮門) : 고려 때 조회의 의례를 맡아보던 관청.

통례원(通禮院) : 조선 때 조하(朝賀)·제사(祭祀)나 임금을 회견하는 의식(儀式)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한 관청.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조선 말에 외교·통상 사무를 담당하던 관청.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 : 조선 말에 통리내무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편민이국(便民利國)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 조선 말에 군국 기밀과 일반 정치를 총괄하던 기관.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 : 1882년(고종 19년)에 통리기무아문을 폐하고 베푼 관아. 내무에 관한 일을 맡아 봄.

통리아문(統理衙門) : 1882년(고종 19년)에 통리기무아문을 폐하고 베푼 관아. 외교 사무를 맡아 봄.

통문관(通文館) : 1276년(충렬왕 2)에 설치한 역어(譯語 : 통역)를 맡아보던 관청.

통상사(通商司) : 조선 말에 통리기무아문의 소속 기관으로 외국과의 통상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통신사(通信司) : 조선 말 궁내부에 딸린 관청으로 전화·철도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팔관보(八關寶) : 고려 때 팔관회의 의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평리원(平理院) : 1895년(고종 32) 을미 개혁에 따라 의금부를 고등재판소로 개칭하였다가 1899년(광무 3) 다시 평리원으로 고쳐 사법에 관한 제반 사무를 맡았다.

평시서(平市署) : 조선 때 서울에 있는 시장(市場)과 물자에 대한 행정, 말(斗)·자(尺)·저울 등의 도량형기(度量衡器)를 맡아 관리하던 관청. 경시서(京市署)라 하다가 1466년(세조 11) 평시서로 개칭하였다.

평식원(平式院) : 조선 말에 도량형(度量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포도청(捕盜廳) : 조선 때 도적을 잡고 수사하던 곳으로 현재의 경찰과 같은 기관.

풍저창(豊儲倉) : 조선 때 쌀·콩 등과, 거적자리·종이 등을 맡아 관리하던 관청.

표훈원(表勳院) : 조선 말에 훈위(勳位)·훈등(勳等)·연금(年金)·훈장(勳章)·기장(記章)·포장(褒章)·외국 훈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청.

학무아문(學務衙門) : 조선 말에 교육을 관장하던 관청.

학부(學部) : 조선 말에 학무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

학사원(學士院) : 고려 때 사명(詞命)의 제찬(制撰)을 맡아보던 관청.

한림원(翰林院) : 고려 때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한성부(漢城府) : 1394년(태조 3)에 창설되어 서울 장안의 모든 행정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청과 같다.

합문(閤門) : 고려 때 국가의 의식(儀式)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조선 때에 통례원(通禮院)으로 고쳤다.

해전고(解典庫) : 고려 때 직물(織物)·피혁(皮革)을 맡아보던 관청.

행랑도감(行廊都監) : 고려 때 시가(市街)의 행랑을 관리하던 관청.

형부(刑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6부(六部) 중 하나로, 사법(司法)을 담당하였으며 지금의 법원 관계와 법무부를 합쳐서 관장하던 관청.

형조(刑曹) : 조선 때 6조(六曹)의 하나로 법률과 소송, 노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지금의 법무부와 같은 관청.

형조도관(刑曹都官) : 고려·조선 때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혜민국(惠民局) : 고려 때 백성의 질병을 고쳐 주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 기관.

혜민서(惠民署) : 조선 때 의약(醫藥)과 일반 서민에 대한 치료를 맡아보던 관청.

혜제고(惠濟庫) : 고려 때 빈민 구호 기관.

호부(戶部)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6부(六部)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과 호구(戶口)를 맡아 관장하였다.

호위청(扈衛廳) : 조선 때 임금을 호위하던 관청.

호조(戶曹) : 조선때 호구(戶口)와 납세(納稅), 식량과 화폐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기관.

홍문관(弘文館) : 고려 때와 조선 때 경적(經籍)과 문서(文書)를 다루고 왕의 고문에 응하던 관청.

화통도감(火桶都監) : 고려 때 화약·화기의 제조를 맡아보던 관청.

훈련도감(訓鍊都監) : 조선 때 5군영(五軍營)의 하나로 서울 수비의 책임을 맡았으며 군인들을 교육·훈련시키는 관청으로 훈국(訓局)이라고도 했다.

훈련원(訓鍊院) : 조선 때 군사의 시재(試才), 무예의 연습,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의 강습을 맡아보던 관청.

관직명(官職名)

가감역관(假監役官) : 조선 때 토목(土木)·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 관직.

가덕대부(嘉德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정1품 벼슬의 등급.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 때 종2품 관계(官階)로 문무관·종친이 받았다.

가의대부(嘉義大夫) : 조선 때 문·무관에게 주던 종2품 관계(官階)였으나,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의빈(儀賓)에게도 주었다.

가인의(假引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서 임시 채용자에게 주던 종9품 임시 관직.

가정대부(嘉靖大夫) : 조선 때 문·무관에게 주던 종2품 벼슬의 등급.

간(干) : 신라 때 17관등(官等) 중 12관등 대사(大舍)에 해당하는 위계(位階)로서 촌도전(村徒典)·마전(麻典)·육전(肉典)·재전(滓典)·석전(席典)·궤개전(机槪典)·양전(楊典)·와기전(瓦器典) 등에 속한 으뜸 관직.

간옹(看翁) : 신라 때 고역전(尻驛典)·평진음전(平珍音典)·연사전(煙舍典)·벽전(壁典)에 속한 관직.

감(監) : 신라 때 17관등 중 11관등의 내마(奈麻), 10관등의 대내마(大奈麻)가 등용되었으며 대개가 해당 기관의 최고직이었다. 고려 때 동반의 비서성·전중성·사천대에 둔 종3품과 소부감·장작감·군기감·태의감에 둔 정4품 벼슬. 조선 때 종친부의 정6품과 숭의전의 종6품 벼슬.

감관(監官) : 조선 때 각 관아(官衙)·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리.

감군(監軍) : 조선의 군직(軍職)으로 군인들의 순찰을 감독하던 임시 관직.

감당(監幢) : 신라 때 육부 소감전(六部少監典)에 속했던 사지(舍知) 이하의 하급 관리로 4두품이 등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감독(監督) : 조선 말기에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감랑(監郎) : 신라 때 육부 소감전(六部少監典)에 속하였던 최고 관직(官職)으로 육부(六部) 중에서 급량부(及梁部)·사량부(沙梁部)·본피부(本彼部)에만 두었다.

감목관(監牧官) : 조선 때 지방의 목장(牧場)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외관직.

감무(監務) : 고려 중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소현(小縣)에 두었던 감독관.

감부(勘簿) : 조선 때 전례서에 딸린 동반(東班) 종6품의 토관직으로 돈이나 곡식 등

의 출납 문서를 마감하고 정리하던 관원.

감사(監司) : 조선 때 각 도(道)의 지방장관으로 종2품 벼슬. 관찰사(觀察使)의 별칭(別稱)이다.

감사(監史) : 고려 때 소부시와 군기시에 두었던 서리(胥吏 : 아전)의 직명.

감사(監事) : 조선의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1품의 관직.

감서(監書) : 조선 말기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잡직으로 시문의 사교(寫校)와 관리를 맡았다.

감수국사(監修國史) : 고려 춘추관(春秋館)의 최고 관직으로 시중(侍中 : 종1품)이 겸직.

감신(監臣) : 신라의 6부 소감전(六部少監典) 중에서 모량부(牟梁部)·한지부(漢祇部)·습비부(習比部)에 두었던 으뜸 관직.

감역관(監役官) : 조선 명종(明宗) 때 선공감(繕工監)에 속하던 종2품 벼슬로 토목·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관원.

감진어사(監賑御使〈史〉) : 조선 때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던 암행어사로 대개는 정3품 당하관인 시종 중에서 선발 임명하였다. 이때 파견되는 어사가 당상관(堂上官)일 때는 끝자에 사(使)자를, 당하관일 때는 사(史)자를 붙였다.

감찰(監察)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에 두었던 정6품 관직으로 나라의 여러 일을 관찰하여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는 일을 맡았다.

감찰내사(監察內史) :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감찰대부(監察大夫) : 고려 때 감찰사(監察司)의 정3품 벼슬.

감찰사헌(監察司憲) : 1015년(현종 6)에 금오대(金吾臺)를 사헌대(司憲臺)로 고치면서 두었던 종6품 벼슬.

감창사(監倉使) : 고려 때 동북면과 서북면에 둔 창고 업무를 맡았던 외직 관리.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 고려때는 종1품, 조선때는 정1품으로 춘추관에 두었던 관직.

감후(監候) :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에서 기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정9품직.

건공장군(建功將軍) : 조선의 종3품 무관에게 주던 품계(品階).

건신대위(建信隊尉) : 조선 때의 관계(官階)로 정6품 품계를 가진 서반(西班)의 토관직.

건충대위(建忠隊尉) : 조선 때의 정5품 토관직(土官職) 품계.

검관(檢官) : 조선 때 시체를 검사하던 임시 관직.

검교(檢校) : 고려 말·조선 초에 실직(實職)에 있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게 할 때 벼슬 앞에 붙이는 말.

검독(檢督) : 조선의 지방관직으로 지금의 면장 또는 읍장에 해당하는 관직.

검률(檢律)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9품의 벼슬.

감상(檢詳)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의 낭관(郎官)으로 정5품 벼슬.

검서관(檢書官) : 조선 때 서자 출신의 학자를 대우하기 위해 규장각(奎章閣)에 두었던 종7품 관직.

검약(檢藥) : 고려 때 전의시(典醫寺) 또는 사의시(司醫寺)에 두었던 정9품 관직.

검열(檢閱) :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의 정9품 벼슬.
조선 때 예문관의 정9품 벼슬로 사초(史草)를 꾸미는 일을 맡았다.

검토관(檢討官) : 조선때 경연청(經筵廳)에서 강독·논사에 관한 일을 보던 정6품 관직.

겸교리(兼校理) :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된 종5품 관직.

겸교수(兼敎授) : 조선 때 산학청(算學廳)·율학청(律學廳) 및 도화서(圖畵署)에 둔 종6품의 관직.

겸도사(兼都事) : 조선 때 충훈부(忠勳府)에 속한 종5품 관직.

겸별장(兼別將) : 조선 때 사복시에 두었던 관직으로 궁중의 가마와 말에 관한 일을 보았다.

겸보덕(兼輔德)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3품 관직.

겸사복장(兼司僕將) : 조선 때 무관의 관직으로 종2품이었으나 뒤에 정3품이 되었다.

겸사서(兼司書) :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6품 관직.

겸인의(兼引儀) : 조선 시대에 의식을 행할 때 식순(式順)을 읽던 종9품 관직.

겸필선(兼弼善) : 조선 초기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를 교육한 정4품 관직.

경력(經歷) : 고려 때 경력사(經歷司)의 으뜸 벼슬. 조선 때 충훈부·의빈부·의금부·한성부·중추부의 종4품 벼슬.

경사교수(經史敎授) : 고려 때 교육기관인 국자감(國子監)에 속했던 관직.

경학박사(經學博士) : 고려 때 지방관민의 자제를 교육시키기 위해 둔 교수직.

계공랑(啓功郎) : 조선 때 종7품에 속하는 문관 품계.

계사(計士) : 조선 때 호조에 속한 종8품의 관직. 처음에는 산원(算員)이라고 했다.

계사랑(啓仕郎) : 조선 때 동반(東班 : 문관)의 품계로 정9품.

계의관(計議官) : 고려 때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 소속의 정7품 관직.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 : 고려 때 고공사(考功司)의 관직으로 정6품의 벼슬.

공사관(公事官) : 조선 때 비변사의 낭청(郞廳)에 속했다가 뒤에 의정부에 두었던 정6품의 관직.

공수정(公須正) : 고려 때 지방 관청의 재무를 관할하던 관직.

공작(工作) : 조선 때 종9품의 잡직(雜職).

공제(工製) : 조선 때 종7품의 벼슬로 상의원(尙衣院)에 4명, 군기시(軍器寺)에 5명이 있었다.

공조(工造) : 조선 때 공조·교서관·군기시·상의원·선공감에 두었던 종8품 잡직.

과의교위(果毅校尉) : 조선 때 정9품의 무관계(武官階).

관구(管句)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보문각(寶文閣)에 두었던 정3품 관직.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 고려 때 무산계(武散階)의 정3품 품계.

관리사(管理使) : 조선 때 개성유수(開城留守)가 겸임하던 종2품 관직.

관사(管事) : 조선조 동반(東班 : 문관)의 정8품 토관직.

관성장(管城將) : 조선 때 북한산성을 관리·수호(守護)하던 정3품 관직.

관찰사(觀察使) : 조선 때 지방장관으로 종2품. 13도(道)에 각각 1명씩 두었다.

광덕대부(光德大夫)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종1품 품계(品階).

광록대부(光祿大夫) : 문관에게 주었던 품계로 고려 문종 때 종3품이었고, 1356년(공민왕 5) 종2품, 그후 정2품으로 하였다.

광성대부(光成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4품 품계.

광정대부(匡靖大夫) : 1275년(충렬왕 1) 금자광록대부를 개칭하여 종2품 문관에게 주었던 품계.

교감(校勘)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둔 종9품 관직. 조선 때 승문원의 종4품 관직.

교검(校檢)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의 정6품 관직.

교리(校理) : 조선 때 홍문관의 정5품 관직. 교서관·승문원의 종5품 관직.

교부(校簿)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6품 사관(士官)직.

교서관창준(校書館唱準) :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종9품 체아직(遞兒職).

교서랑(校書郞) : 교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속한 정9품 관직.

교수(敎授) : 조선 때 부(府)와 목(牧)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던 종6품 관리.

구척(鉤尺) : 신라 때 고관가전(古官家典 : 신라 때 마을)에 두었던 한 벼슬.

국별장(局別將) : 조선 때 훈련도감에 소속된 정3품의 무관직.

국자박사(國子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속해 있던 정7품의 관직.

군사감(國師監) : 신라 때 군직의 하나로 위계는 내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군사당주(軍師幢主) : 신라 때 군직의 하나로 위계는 일길찬(一吉飡)에서 내마(奈麻)까지임.

군수(郡守) : 조선 때 각 군(郡)의 우두머리로 종4품의 지방 관직.

군통(郡統) : 신라 때 중요한 군(郡)에 두었던 승직(僧職).

궁문랑(宮門郎) : 고려 때 동궁(東宮)에 두었던 종6품의 관직.

궁옹(宮翁) : 신라 때 촌도전(村徒典)·구역전(尻驛典)·좌산전(坐山典) 등의 관직.

권독(勸讀) : 조선 때 세손(世孫)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직책으로 종5품 관직.

귀간(貴干) : 신라 때 외위(外位)의 넷째 등급으로 경위(京位)의 대내마(大奈麻)에 속함.

극편수관(克編修官) : 고려 때 춘추관(春秋館)에 있던 3품관 이하의 관직.

근력부위(勤力副尉) : 조선 때 서반의 종9품 잡직의 품계.

근임랑(謹任郎) : 조선 때 직접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종6품 품계.

근절랑(謹節郎) : 조선 때 동반 종친(東班宗親)의 품계로 종5품계.

금군별장(禁軍別將) : 조선 때 용호영(龍虎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반의 품계.

금군장(禁軍將) : 조선 때 용호영(龍虎營)에 속했던 무관직으로 정3품 당상관.

금위대장(禁衛大將) : 조선 때 금위영(禁衛營)의 주장(主將)으로 종2품 무관직.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2품의 품계.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1품의 품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 고려 문산계(文散階)의 하나로 종1품의 품계.

금하신(衿荷臣) : 신라 때 각 성전의 장관급으로 대각간(大角干)으로부터 이찬(伊飡)까지, 또는 각간(角干)으로부터 대아찬(大阿飡)까지의 사람을 임명하였다.

급사(給事)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두었던 정9품 관직.

급사(給使)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에 속했던 이속(吏屬 : 지방 관아에 딸린 낮은 벼슬아치).

급사중(給事中)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된 종4품 관직.

기거랑(起居郞) : 고려 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된 종5품이었는데 1356년(공민왕 5)부터 정5품으로 올렸다. 왕의 일상생활의 행적을 기록했다.

기거사인(起居舍人) : 고려 문종 때 중서문하성에 두었던 종5품직으로 기거랑과 같다.

기거주(起居注)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관직으로 종5품, 후에 정5품이 되었다.

기사관(記事官) :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종5품에서 정9품까지 관원으로 시정기(時政記 : 그때 그때의 정무 중에서 역사에 남길 만한 자료를 적음)를 맡았다.

기사장(騎士將) : 조선 때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에 두었던 정3품 무관직.

기주관(記注官) : 조선 때 춘추관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길사(吉士) : 302년(유리왕 9)에 병부·집사성에 배치한 신라 17등 관계(官階) 중 14위에 해당하는 관계로 길사(吉師)·길차(吉次)·계지(稽知)라고도 함.

남영사(南營使) : 조선 때 친군영(親軍營)에 속했던 남영의 으뜸 벼슬로 경상도 관찰사(觀察使)가 겸직하였다.

낭관(郞官) : 조선 때 6조(六曹)의 5, 6품관인 정랑·좌랑을 이르던 말로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문·무관의 인사권을 좌우하였다.

낭사(郞舍) : 고려 문하성(門下省) 소속 간관(諫官)들의 총칭으로 어사대와 함께 대간(臺諫)이라고도 하였다.

낭장(郞將) : 고려 때 이군(二軍)·육위(六衛)에 속한 정6품 무관직.
조선 때 의흥친군(義興親軍)의 십위(十衛)에 속한 무관 6품 벼슬.

낭중(郞中) : 신라 때 집사성·병부·창부에 속한 관직으로 위계는 내마(奈麻)에서 사지(舍知)까지임. 고려 때 육부(六部)에 소속된 정5품 벼슬.

내금위장(內禁衛將) : 조선 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던 금군청(禁軍廳)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내급사(內給事) :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

내마(奈麻) : 32년(유리왕 9)에 둔 신라 17관등 중 11번째 관계(官階)로 내말(奈末)이라고도 하며 내마에는 7계급이 있다.

내사사인(內史舍人) :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 소속의 종4품 벼슬.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2품 벼슬.

내시(內侍) : 고려 때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던 관원으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世族子弟)들을 임명하였다. 조선 때 환관의 별칭.

내시백(內侍伯)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에 두었던 정7품직.

내알자(內謁者)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에 두었던 종8품직.

내알자감(內謁者監)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에 두었던 정6품직.

내전숭반(內殿崇班)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에 속한 종7품직.

내지제고(內知制誥) : 고려 때 한림원과 보문각의 관원이 겸직한 지제고.

내직랑(內直郞)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의 거처)에 소속된 종6품 벼슬.

노당(弩幢) : 신라 때 병부(兵部)의 벼슬로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조위(造位)까지.

노사지(弩舍知) : 신라 때 병부의 무관직으로 위계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녹사(錄事) : 고려 때 정8품의 무관 벼슬. 조선 때 각 관아에 속한 하급 이속(吏屬).

단련판관(團練判官) : 조선 때 지방의 진(鎭)에서 병사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던 무관직.

대각간(大角干) : 신라 때 17관등 중 최고 관위(官位).

대간(臺諫) : 조선 때 간언(諫言)을 관장하던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던 말.

대감(大監) :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무관으로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내마(奈麻)까지임. 조선 때 정2품 이상 관원을 높여 부르던 말.

대관(臺官)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의 벼슬.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 조선 때 관계(官階)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宗親)·의빈(儀賓)·문무관(文武官)에게 주던 벼슬.

대군(大君) : 고려 때 종친부에 속한 최고 관계(官階)로 종친(宗親)에게 주던 정1품 봉작(封爵). 조선 때 왕의 적자(嫡子) 중 그 적장자(嫡長子)는 대체로 왕(王)이 되고 그 밖의 아들은 대군이 되었다.

대군사부(大君師傅) : 조선 때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 관직.

대내마(大奈麻) : 신라 때 17관등 중 10등 위계인데 다시 9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대대감(隊大監) : 신라 때 각 군영(軍營)의 마병(馬兵) 혹은 보병을 지휘하던 무관(武官)으로 위계는 아찬(阿湌 : 6관등)에서 내마(奈麻 : 11관등)까지임.

대도사(大都司)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으뜸 벼슬로 위계는 내마(奈麻)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조선 때 대도호부를 다스리던 정3품관.

대보(大輔) : 신라 때 재상(宰相)과 같은 최고 관직으로 국사(國事)를 맡아 처리하였음.

대부(大夫) :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산관(文散官) 관품(官品)의 명칭.

대사(大舍) : 신라 때 17관등 중 12번째 등급을 말한다.

대사간(大司諫) :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충간(忠諫)하는 일을 맡은 정3품 벼슬.

대사공(大司空) : 조선 때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대사구(大司寇) : 조선 때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대사도(大司徒) : 조선 때 호조판서(戶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대사마(大司馬) : 조선 때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대사성(大司成) : 고려·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벼슬.

대상(大相) : 고려 초기 문무 관계의 하나.

대사헌(大司憲) :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으로 종2품 벼슬.

대아찬(大阿湌) : 신라 때 17관등 중 5관등 위계(位階).

대오(大烏) : 신라 때 17관등 중 15관등 위계(位階).

대장(大將) : 조선 때 종2품 무관직이며, 호위청(扈衛廳)에만 정1품 관을 두었다.

대장(臺長) : 시헌부(司憲府)의 장령(掌令 : 정4품)과 지평(持平 : 정5품)을 가리키던 말.

대장군(大將軍) : 신라 무관직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종3품의 무관직.

대장대감(大匠大監) : 신라 때 무관직으로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 : 10관등)에서부터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대정(隊正) : 고려 때 무관의 벼슬, 최하위 군관으로 종9품.

대제학(大提學)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둔 정2품 관직.

대학박사(大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을 설치하면서 두었던 종7품 벼슬.

대호군(大護軍) : 고려·조선의 무관직으로 종3품 벼슬.

도무(都務) : 조선 때 지방에 두었던 정5품 토관직.

도사(都事)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문하성(門下省)·삼사(三司)에 두었던 종7품의 관직. 조선 때 관리의 감찰·규찰을 맡은 종5품관.

도사대사(都事大舍)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의 벼슬로 위계는 내마(奈麻 : 11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 까지임.

도선(導善) : 조선 때 종학(宗學)에 소속된 정4품 벼슬.

도순문사(都巡問使) : 고려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주(州)·부(府)의 장관을 겸하였다.

도순찰사(都巡察使) : 조선의 군관직으로 정2품 또는 종2품의 관찰사가 겸임한 임시직.

도승(渡丞) : 조선 때 나루터를 관리하던 종9품직.

도승지(都承旨)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관직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도신(道臣) : 조선 때 외관직 문관(文官)의 종2품 벼슬.

도원수(都元帥) : 고려와 조선 때 전쟁시 군무(軍務)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도절제사(都節制使) :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 : 군영의 총칭)에 딸린 군직.

도정(都正) : 조선 때 종친부·돈령부에서 종친의 사무를 담당한 정3품 벼슬.

도제조(都提調) : 조선 때 각 관청의 정1품 벼슬.

도첨의령(都僉義令)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으뜸 벼슬.

도청(都廳) : 조선 때 준천사(濬川司)에 속한 정3품 당상관(堂上官).

도체찰사(都體察使) : 조선 때 의정(議政)이 전시에 겸임한 최고 군직.

도총관(都摠管)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도호부사(都護府使) : 고려·조선 때 지방행정기관인 도호부의 종3품 으뜸 벼슬.

돈신대부(敦信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의 종3품 품계.

돈용교위(敦勇校尉) : 조선 때 무관의 정6품 품계.

돈의도위(敦義徒尉) : 조선 때 무관의 토관계(土官階)로 종7품 품계.

동관정(冬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직.

동부승지(同副承旨)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관직.

동수국사(同修國史) : 고려 때 2품 이상이 겸직(兼職)한 사관(史館)에 두었던 벼슬.

동제거(同提擧)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보문각(寶文閣)에 두었던 벼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 조선 때 돈령부(敦寧府)에 속한 종2품의 벼슬.

동지사(同知事) : 조선 때 종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동지(同知)를 쓰고 관청명 밑에 사(事)를 사용하였다.

동지삼군부사(同知三軍府事) : 조선 때 삼군부에 속한 종2품 벼슬로 대장(大將)이 겸임.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지원사(同知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벼슬.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 조선 때 의금부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 조선 때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 조선 때 절도사(節度使)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두상대감(頭上大監) : 신라 때 지방관으로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급찬(級湌)까지.

두상제감(頭上弟監) : 신라 때 지방관으로 위계는 아찬(阿湌)에서 사지(舍知)까지.

등용부위(騰勇副尉) : 조선 때 정7품 잡직계 무관의 관계.

만호(萬戶) : 고려와 조선 때의 외관직(外官職)으로 정4품 무관직.

맹건부위(猛健副尉) : 조선 때 서반(西班)의 잡직 정8품 품계.

면공랑(勉功郞)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8품 품계(品階).

명과학겸교수(命課學兼敎授)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에 소속된 종6품 벼슬.

명과학훈도(命課學訓導) : 조선 때 관상감에 소속된 관리로 점복(占卜)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정9품직.

명덕대부(明德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 관계(官階).

명률(明律)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명선대부(明善大夫) : 조선 초기 종친들에게 주던 관계로 정3품 당상관.

명신대부(明信大夫) : 조선 초기 의빈(儀賓)에게 주던 종3품 관계.

명위장군(明威將軍)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무관 품계.

목사(牧使) : 조선 때 각 목(牧)의 으뜸 벼슬로 정3품 외관직.

무공랑(務功郞) : 조선 때 정7품의 문반 관계로 종친 및 의빈(儀賓)에게 주었다.

문림랑(文林郞) : 조선 때 종9품 상(上)의 문관 품계.

문사(文師) : 고려 때 유수관(留守官)이나 대도호부(大都護府)에 속한 9품직.

문사알(門司謁)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속해 있던 정6품 잡직.

문하녹사(門下錄事)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에 소속된 정7품 관직.

문하사인(門下舍人)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 소속의 종4품 관직.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2품 관직.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때 문하성의 최고 관리로 종1품, 조선 때는 정1품 관직.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 : 고려 때 첨의우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 문하부의 으뜸 벼슬.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 고려 때 첨의좌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 문하부의 으뜸

벼슬.

문하주서(門下注書) : 고려 때 문하성의 종7품, 조선 때 문하부의 정7품 관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의 정2품 벼슬.

문하평리(門下評理)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종2품 관직.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 고려 문종(文宗)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정2품직.

문학(文學) : 고려때 동궁(東宮)에 소속되었던 정6품직. 조선때 세자시강원의 정5품직.

밀직부사(密直副使) :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정3품 관직.

밀직원사(密直院事) : 밀직지원사(密直知院事). 밀직사의 종2품 관직.

밀직제학(密直提學) : 고려 말기 밀직사(密直司)에 두었던 정3품직.

밀직판원사(密直判院使) :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 관직.

박사(博士) : 삼국 시대에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관직. 고려 때 국자감을 두어 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의 제과에 박사를 두었다.

방어사(防禦使) : 조선 때 각 도(道)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兵權)을 가진 종2품 벼슬로 병마절도사 다음의 직위.

배융교위(陪戎校尉) : 고려 때 종9품 무관의 품계.

백총(百摠) : 조선 때 관리영(管理營)의 정3품직.

백호(百戶) : 고려와 조선 때 무관직으로 5·6품의 청백하고 무예에 능한 무관을 기용했다.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정1품 품계.

별감(別監) : 조선 때 액정서에 소속된 관직.

별검(別檢) :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에 소속된 정8품 및 종8품 관직.

별장(別將) : 고려 때 정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 영에 소속된 종2품 무관직.

별제(別提) :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六曹)에 속해 있었다.

별좌(別坐) : 조선 때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별효장(別驍將) : 조선 때 수원(水原) 총리영(總理營) 소속의 정3품 군인.

별후부천총(別後部千摠)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에 소속된 정3품의 군인.

병마단련부사(兵馬團練副使) : 조선 초 각 도(道)에 둔 종4품 무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병마동첨절제사로 고침.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 : 조선 초 정3품의 외직 무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병마절

제사로 고침.

병마단련판관(兵馬團練判官) : 조선 초 종6품의 외직 무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병마절제도위로 고침.

병마도사(兵馬都事) : 조선 초기 무관의 정6품 외직.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 조선 초기 무관 종2품 외직.

병마도절제사도진무(兵馬都節制使都鎭撫) : 조선 초기 무관 종3품 외직.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조선 때 무관 종4품 외직.

병마만호(兵馬萬戶) : 조선 때 무관 종4품 외직.

병마사(兵馬使) : 고려 때 동·북 양계(兩界)의 군권을 지휘하던 정3품 벼슬.

병마방어사(兵馬防禦使) :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

병마수군절제사(兵馬水軍節制使) : 조선 때 무관 정3품 외직으로 제주도에 두었다.

병마우후(兵馬虞侯) : 조선 때 무관 종3품 외직으로 병마도절제사도진무를 세조 12년에 고쳐 부른 이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 때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군인.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 조선 때 무관 종6품 외직.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조선 때 각 읍(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던 정3품 무관직.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 조선 때 각도 병영(兵營)의 종3품 무관직.

병마평사(兵馬評事) : 조선 때 무관 정6품 외직.

병부상서(兵部尙書) : 고려 때 병부(兵部)의 장관으로 정3품 벼슬. 지금의 국방부장관.

병사(兵使) : 조선 때 각 지방에 두어 병마를 통솔·지휘하던 무관 종2품직.

병수사(兵水使) : 조선 때 무관 종2품 벼슬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를 이르던 말.

병절교위(秉節校尉) : 조선 때의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관계(官階).

병조판서(兵曹判書) : 조선 때 병조(兵曹)의 장관으로 정2품. 지금의 국방부 장관.

병직랑(秉直郞)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정5품 동반 관계(東班官階).

보공장군(保功將軍) :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3품.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 고려 때 정2품 무관 품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

보덕(輔德) : 조선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종3품 벼슬.

보신대부(保信大夫) :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官階).

보장정(保章正)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두었던 종8품직.

복박사(卜博士)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 : 천문대)에 두었던 종9품직.

복정(卜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두었던 종9품직.

봉교(奉敎) : 조선 때 예문관(藝文館)에 두었던 정7품직.

봉렬대부(奉烈大夫) : 조선 때 종친과 문관에게 주던 정4품 관계.

봉무랑(奉務郞) : 조선 때 동반(東班)에 두었던 정7품 잡직의 품계.

봉사(奉事) : 조선 때 관상감·군기시·내의원·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8품직.

봉상대부(奉常大夫) : 고려 때 정4품 문관의 품계.

봉상시정(奉常寺正) :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봉선대부(奉善大夫) : 고려 때 종4품 문관의 품계.

봉성대부(奉成大夫) : 조선 때의 종4품 관계(官階)로 종친에게만 주었다.

봉순대부(奉順大夫) : 1308년(충렬왕 34)에 제정한 고려 문산계 정3품 하(下)의 관계.

봉어(奉御) :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6품 관직.

봉의랑(奉議郞) : 조선 때 종5품 문관의 관계.

봉익대부(奉翊大夫) : 고려 때 종2품 문관의 품계.

봉임교위(奉任校尉) : 조선 때 서반(西班)의 정6품 잡직.

봉정대부(奉正大夫) : 조선 때 종4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

봉직랑(奉直郞)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文官)과 종친에게 준 관계.

봉헌대부(奉憲大夫) : 조선 때 정2품의 의빈(儀賓)에게 준 품계(品階).

봉훈랑(奉訓郞) : 조선 때 문관·종친(宗親)의 종5품의 품계.

부(傅) : 고려 때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의 으뜸 벼슬.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1품직.

부공랑(赴功郞)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종8품 잡직 품계.

부봉사(副奉事) : 조선 때 내의원·군기시·관상감·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9품 벼슬.

부사(府使) : 고려 및 조선 때의 지방 관직으로 각 부(府)의 수령을 가리킨다.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정3품)·도호부사(都護府使 : 종3품)를 말함.

부사(副使) : 신라 때 각 성전(成典)의 상당(上堂)의 딴 이름. 고려 때 중추원의 정3품, 삼사의 정4품, 그 밖의 여러 관아의 5·6품 벼슬. 조선 때 외국에 사절을 보낼 때 사(使)나 정사(正使) 다음 가던 벼슬.

부사과(副司果) :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6품의 벼슬.

부사맹(副司猛) : 조선의 5위(五衛)에 속한 무관직(武官職)으로 종8품의 벼슬.

부사소(副司掃) :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9품의 잡직(雜職).

부사안(副司案) : 조선의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7품의 잡직.

부사약(副司鑰)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속한 종6품의 잡직.

부사용(副司勇) :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武官職).

부사정(副司正) :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

부사직(副司直) :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

부사포(副司鋪) : 조서 때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된 정8품의 잡직.

부수(副守) : 조선의 종친부(宗親府)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4품의 관직.

부수찬(副修撰) : 조선의 홍문관(弘文館)에서 내외(內外)의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부승지(副承旨)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정3품 벼슬로 충렬왕 24년에 광정원(光政院)으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올렸다. 조선 때는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부신금(副愼禽)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8품 잡직.

부신수(副愼獸) : 조선 때 궁중의 정원을 관리하던 종9품의 집직.

부위(副尉)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한말의 무관.

부윤(府尹) : 조선 때 종2품 지방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부응교(副應敎) : 조선 때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던 종4품 관직.

부장(部將) : 조선 때 무관직으로 5위(五衛)에 속한 종6품의 벼슬.

부장(副將) : 조선 말의 무관 계급으로 정2품이었으며 상장(上將) 밑의 관직.

부전수(副典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종6품의 관직.

부전악(副典樂)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6품 잡직.

부전율(副典律)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7품 잡직.

부전음(副典音)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서 음악에 관한 일을 본 종8품 잡직.

부정(副正) : 고려 때 사(司)·시(寺) 등이 붙은 관아에 두었던 종4품직. 조선 때 각 관서의 부책임자로 두었던 정3품 관직.

부정자(副正字) : 고려와 조선 때 교서관(校書館)과 승문원(承文院)의 종9품 관직.

부제조(副提調) : 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 관직.

부제학(副提學)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벼슬.

부직장(副直長) : 고려 때 사선서·사설서·사온서·전악서 등의 8·9품 벼슬.
조선 때 상서원(尙書院)의 정8품 벼슬.

부창정(副倉正) : 고려 때 각 군현(郡縣)에 소속된 지방 관직.

부첨사(副詹事) : 조선 말의 관직으로 왕태자궁(王太子宮)의 주임관(奏任官) 벼슬.

부총관(副摠管) : 조선 때 5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2품의 무관직.

부총제사(副摠制使) :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에 속한 관직.

부호군(副護軍) : 조선의 5위(五衛)에 속했던 종4품 벼슬.

부호장(副戶長) : 고려 때 호장(戶長) 아래 관직이며 대등(大等)을 개칭한 이름.

북평사(北評事) : 조선 때 함경도와 평안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의 보좌관.

분순부위(奮順副尉) : 조선 때 무관의 관계(官階)로 종7품.

분용도위(奮勇都尉) : 조선 때 서반(西班)의 토관직으로 정8품.

비금당주(緋衿幢主) : 신라 때 무관직으로 9주에 분속되어 있던 40명의 관원.

비벌수(比伐首) : 신라 때 대일임전(大日任典 : 신라의 관청)의 최하 관직.

비변랑(備邊郎) : 조선 때 군무(軍務)의 기밀을 맡아보던 비변사에 두었던 관원으로 7품에서 6품관 무관.

비서감(秘書監)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 소속의 종3품 관직.

비서랑(秘書郎)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종6품 관직.

비서승(秘書丞)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에 소속된 종5품 관직.

빈객(賓客) : 고려와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되어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치던 정2품의 관직.

사(師)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사간(司諫) :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諫)하고 논박(論駁)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

사경(司經)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한 정7품 벼슬.

사공(司空) : 고려 때 삼공(三空)의 하나로 정1품 벼슬.

사과(司果)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

사도(司徒) : 고려 때 삼공(三公 : 태위·사도·사공)의 하나로 정1품 벼슬.

사례(司禮) : 신라 때 예부(禮部)의 한 벼슬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 : 12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사록(司祿)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의 정8품직.

사맹(司猛) : 조선 때 오위(五衛)에 속한 정8품 무관직.

사문학박사(四門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 딸려 있던 교수직(敎授職).

사병(司兵) : 신라 때 병부(兵部)의 한 벼슬로 위계는 대사에서 사지까지.

사사(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종2품 벼슬.

사서(司書)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6품 관직.

사성(司成)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관리.

사소(司掃)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두었던 정9품 잡직.

사신(司辰)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두었던 정9품직.

사신(史臣) :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것으로 사초(史草)를 맡아 쓰던 벼슬. 검열(檢閱)과 같음.

사안(司案)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예속된 정7품관.

사알(司謁)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 잡직.

사약(司鑰) : 조선 때 액정서에 예속된 정6품관.

사업(司業) : 조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 강의를 맡아보던 정4품의 벼슬.

사예(司藝) : 고려와 조선 때 국학(國學) 또는 성균관(成均館)에 두었던 정4품직.

사용(司勇)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9품 무관직.

사의(司議) : 조선 때 장례원(掌隷院)에서 노예에 관한 일을 보던 정5품의 벼슬.

사의(司儀) : 고려 때 대상시(大常寺 : 제사·증시를 맡아보던 관아)에 두었던 박사 다음 관직.

사의대부(司議大夫)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4품 관직.

사의랑(司議郞) : 고려 때 동궁(東宮)에 있던 정6품관.

사인(舍人) : 신라 때 사지(舍知 : 13등급)와 대사(大舍 : 12등급)를 총칭하여 이르던 말.

사자(使者) : 부여와 고구려의 관직으로 정3품에서 정5품까지 다양했다.

사자관(寫字官) : 조선 때 승문원·규장각에 두었던 말단직으로 문서(文書)를 정사(精

寫)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사재(四宰) : 조선의 관직으로 삼재(三宰)의 다음이라는 뜻이며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 정2품)을 말한다.

사정(司正) : 조선의 오위(五衛)에 속한 정7품 무관직.

사주(司舟) : 신라 때 선부(船府)에 두었던 관직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에서 사지(舍知)까지.

사지(司紙) : 조선 때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제조에 관한 일을 맡은 종6품.

사직(司直) : 조선 때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

사평(司評) : 조선 때 장례원(掌隷院)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사포(司圃) : 조선 때 사포서(司圃署)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원예를 관리.

사포(司鋪) : 조선 때 액정서(掖庭署) 소속의 정8품 관직.

사회(司誨) : 조선 때 종학(宗學 : 왕족의 교육을 맡은 학교)의 정6품직.

산사(算士) : 조선 때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의 정7품 관직이며, 지금의 계리사.

산원(散員) : 고려와 조선 초기 군관의 계급으로 정8품 관직.

산학교수(算學敎授) : 조선 때 호조(戶曹)에 소속되어 회계(會計)를 담당한 종6품.

산학박사(算學博士) : 신라 때 산술(算術)을 가르치던 교수. 고려 때 종9품으로 국자감(國子監)에서 산술을 가르치던 교수.

산학조교(算學助敎) : 신라 때 산학을 가르치던 교수.

산학훈도(算學訓導) : 조선 때 호조(戶曹)의 정9품직.

삼공(三公) : 고려 때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司空)의 총칭으로 정1품.
조선 때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삼공육경(三公六卿) : 조선 때 삼정승(三政丞)과 육조 판서(六曹判書)를 일컫던 말.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 : 조선 때 충청·전라·경상 3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삼도육군통어사(三道陸軍統禦使) : 조선 말 충청·전라·경상 3도의 육군 통수관.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 조선 때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水軍)을 관령(管領 : 관리하고 명령함)하던 장수.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 : 조선 임진왜란 때 주사(舟師)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경상·충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삼무당주(三武幢主) : 신라 때 삼무당(三武幢 : 신라 3군영 백금·적금·황금)을 통솔하던 무관(武官)으로 위계(位階)는 급찬(級飡 : 9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삼반차사(三班差使) : 1116년(예종 11)에 액정국에 두었던 관직.

삼사(三師) : 고려 때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1품이었다.

삼사부사(三司副使)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종3품직.

삼사사(三司使)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3품 벼슬.

삼사사령(三使司令) : 조선 때 삼법사(三法司 : 형조·한성부·사헌부)의 사령.

삼사소윤(三司少尹) : 고려 때 삼사(三司)의 벼슬로 후에 부사(副使)로 고침.

삼사우사(三司右使) : 고려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3품직이었으나 1362년(공민왕 11)에 정2품으로 올렸다.

삼사우윤(三司右尹)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3품직.

상간(上干) : 신라 때 지방 관직으로 대사(大舍 : 12관등)에 해당함.

상경(上卿) : 정1품과 종1품의 판서(判書)를 가리키는 통칭.

상경(尙更)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임금의 시중을 들던 정9품 벼슬.

상다(尙茶)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3품으로 임금의 시중을 들었다.

상당(上堂) : 신라 때 봉성사 성전·봉은사 성전·봉덕사 성전·위화부 등의 차관 벼슬로 위계는 내마에서 아찬까지. 영창궁 성전의 으뜸벼슬로 위계는 아찬에서 급벌찬까지임.

상대등(上大等) : 신라 때의 최고 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상례(相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된 종3품 관리.

상만호(上萬戶) : 고려 때 군직(軍職)으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다음의 벼슬.

상문(尙門)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8품의 벼슬.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 조선 1865년(고종 2)에 종친(宗親)·의빈(儀賓)·문무관(文武官)에게 베푼 정1품 관계(官階).

상서(尙書) :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전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상서령(尙書令)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의 우두머리로 종1품 벼슬.

상서좌우승(尙書左右丞) : 고려 때 종3품 관직으로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속하였다.

상선(尙膳)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종2품 벼슬로 궁중 식사의 일을 맡았다.

상세(尙洗) : 조선의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로 주방일을 담당하였다.

상시(常侍) : 고려 때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를 통틀어 산기상시(散騎常侍)라 하고 약칭 상시라 했다.

상약(尙藥)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3품 벼슬.

상온(尙醞)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3품 벼슬.

상원(尙苑)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9품 관직.

상원수(上元帥) : 고려 때 무관직으로 출정하는 군대를 통솔하던 대장.

상위사자(上位使者) : 고구려의 관직으로 처음에는 12관위 중 7등관이었으나 후에 14관위 중 9등관으로 바뀜.

상장군(上將軍) : 신라 때 대장군(大將軍) 밑의 무관직. 고려 때 이군(二軍)과 육위(六衛)의 정3품 으뜸장수. 조선 초 의흥친군의 십위(十衛)에 딸린 으뜸장수.

상좌평(上佐平) : 백제의 16관등급 중 좌평의 우두머리.

상주국(上柱國) : 고려 때 정2품의 훈계(勳階).

상책(尙冊)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4품직.

상촉(尙燭)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6품직.

상탕(尙帑)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종5품직.

상호(尙弧)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정5품 관직.

상호군(上護軍) : 고려의 무관직.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정3품의 무관직.

상훤(尙烜) : 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에 예속된 정7품관.

서윤(庶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평양부(平壤府) 소속의 정4품 벼슬.

서장관(書狀官) : 조선 때 외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 보내던 임시 벼슬.

서학박사(書學博士)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에서 글씨를 가르치던 종9품의 관직.

선간(選干) : 신라 때 지방관직으로 중앙의 내마(奈麻 : 11관등)에 해당.

선교랑(宣敎郞)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종친(宗親)·의빈(儀賓)에게 주던 종6품 상(上)의 관계(官階).

선덕랑(宣德郞) : 고려 때 문산계(文散階)의 정7품 하(下)의 관계(官階).

선략장군(宣略將軍) : 조선때 종4품의 무관계로 경력·첨정(僉正)·부호군 등이 되었다.

선무사(宣撫使) : 조선 때 재해나 병란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 파견된 관리.

선부(膳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선용부위(宣勇副尉) : 조선 때 무관의 종7품 잡직계(雜職階).

선위사(宣慰使) : 난리나 큰 재해가 있은 뒤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의 질고(疾苦)를 위문하던 임시 벼슬.

선위장군(宣威將軍) : 고려 때 종4품 무관의 관계(官階).

선유사(宣諭使) : 병란(兵亂)이 났을 때 왕의 명령을 받들고 백성을 훈유(訓諭)하던 임시 벼슬.

선의랑(善議郎) : 고려 때 종7품 문관의 관계.

선전관(宣傳官) : 조선 때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소속된 정3품에서 종9품의 관리.

선절교위(宣折校尉) : 고려 때 정8품의 무산계(武散階).

선절부위(宣折副尉) : 고려 때 정8품의 무산계.

선직랑(宣職郎)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6품 토관직(土官職) 품계.

선화(善畵) : 조선 때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7품 잡직인데 선발 고시를 통하여 1년 기한으로 녹봉을 주었고 기간을 채우면 5위(五衛)의 정6품 급 체아군직(遞兒軍職)을 주었다.

선회(善繪) : 조선의 도화서(圖畵署)에 소속되어 그림을 담당하던 종7품 관직.

선휘대부(宣徽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정4품 관계.

설경(說經)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속한 정8품 벼슬.

설서(說書) :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7품 벼슬.

섭호장(攝戶長) : 조선 때 각 군아(郡衙 : 군청)에 소속된 향리(鄕吏)로 호장(戶長)을 겸한 사람.

성록대부(成祿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던 정1품의 관계.

성중관(成衆官) : 고려 때 숙위(宿衛) 또는 왕을 가까이 모시던 관직.

세마(洗馬) : 고려 문종 때 동궁(東宮)의 종5품, 공양왕 때 춘방원(春坊院)의 정7품 관직이며, 조선 때 세자익위사의 정9품 벼슬.

세자부(世子傅)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1품 관직.

세자사(世子師) : 고려 때 세자의 스승,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 속한 정1품 관직.

소감(少監) : 신라 때 무관직, 고려 때 4~5품 관직, 조선 때 종4품 벼슬.

소경(少卿) :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종4품 벼슬.

소덕대부(昭德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준 종1품 관계.

소사읍(小舍邑) : 신라 때 전읍서(典邑署)의 관직으로 위계(位階)는 대사(大舍 : 12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소사자(小使者) : 고려 말기 8품 벼슬.

소오(小烏) : 신라 때 17관등 중 16관등의 위계(位階).

소위장군(昭威將軍) : 조선 때 무관 정4품 품계.

소유(所由) : 사헌부(司憲府)에 예속된 이속(吏屬).

소윤(少尹) : 신라의 지방관직, 고려 때 종4품 벼슬, 조선 때 상서사(尙瑞司)·종부시(宗簿寺)·한성부(漢城府)·개성부(開城府) 소속의 정4품 관직.

소의(昭儀) : 조선 때 정2품 내명부(內命婦 : 궁중 여자들의 품위)의 품계(品階).

소의대부(昭義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던 종2품 품계.

소전의(小典儀) : 신라때 대일임전(大日任典)에 소속된 11관위에서 13관위까지의 관계.

소첨사(小詹事) :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종3품 관직으로 태자첨사(太子詹事) 다음 가는 벼슬.

수(守) : 조선때 종친부(宗親府)·전설사(典設司)·풍저창(風儲倉)에 두었던 정4품 벼슬.

수국사(修國史) : 고려 때 감수국사(監修國史) 다음으로, 2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겸임.

수군만호(水軍萬戶) : 조선 때 각 도(道)에 두었던 수영(水營)에 예속된 종4품 무관 외직(武官外職).

수군방어사(水軍防禦使) : 조선 때 수군(水軍)을 통솔한 종2품의 무관직(武官職).

수군우후(水軍虞侯) : 조선 때 충청·경상·전라도 각 수영(水營)에 딸린 정4품 무관 외직(武官外職).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조선 때 각 도에 두었던 수영의 수군을 통솔·지휘하던 으뜸 벼슬로 정3품 당상관(堂上官).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 조선 때 진(鎭)의 수군을 지휘한 종3품의 무관직.

수령관(首領官) : 고려 때 문하부의 3~4품관과 5~6품 관원을 일컫던 말. 조선 때는 감찰사가 주재하는 감영과 유수부의 관직으로 유수부의 종4품 경력(經歷)과 감영의 종5품 도사(都事)를 이르던 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종1품 재신(宰臣).

수봉관(守奉官) : 조선 때 왕의 사친(私親)들의 산소인 원소(園所)를 수호하던 종9품직.

수사(水使) : 조선 때 각 도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무관직. 수군절도사의 약칭.

수어사(守禦使) : 조선의 수어청(守禦廳) 장관. 광주유수(廣州留守)가 겸임한 정2품벼슬.

수의도위(守義徒尉) : 조선 때 5위(五衛)의 부사정(副司正), 토관직(土官職)의 부여정(副勵正)에게 주었던 종7품의 위계.

수의부위(修義副尉) : 조선 때 종8품의 무관에게 주던 관계(官階).

수임교위(修任校尉) : 조선 때 무관의 정6품 잡직 품계.

수직랑(修職郎) : 고려 때 7품의 문산계(文散階).

수찬(修撰) : 고려 때 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사관(史官)으로서 정7품의 관직이었는데 후에 정8품이 되었다.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정6품 관직.

수찬관(修撰官)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3품 이하가 겸직한 사관(史官) 벼슬.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 관직으로 승정원의 승지(承旨),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이 겸임.

순무사(巡撫使) : 고려 때 안무사(按撫使)를 개칭한 것으로 백성을 위무하고 지방관을 감찰하던 관직.

순위관(巡衛官) :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에 소속된 참상관 밑의 벼슬.

순유박사(諄諭博士) : 고려·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의 종7품 벼슬.

순의대부(順義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2품 관계(官階).

숭덕대부(崇德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의 관계.

숭록대부(崇祿大夫) : 고려와 조선 때 종1품의 문산계. 공민왕 때는 정2품.

숭의전감(崇義殿監) : 고려 때 숭의전(崇義殿)을 수호하던 종6품의 벼슬.

숭정대부(崇政大夫) : 조선 때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

숭헌대부(崇憲大夫)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2품 관계, 후에 문관에게도 주었다.

승(丞) : 고려 때와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정5품~정9품의 관원.

승무랑(承務郎) : 조선 때 종7품의 잡직 관계(雜職官階).

승봉랑(承奉郎) : 고려 때 종8품의 문관 품계.

승사랑(承仕郎) : 조선 때 종8품의 문관 품계.

승선(承宣) : 고려 때 왕명의 출납을 맡아본 정3품 관직, 뒤에 승지·대언으로 개칭.

승의교위(承義校尉) : 조선 때 종6품 무관 품계.

승의랑(承議郎) : 조선 때 정6품의 문관계(文官階).

승의부위(承義副尉) : 조선 때 정8품 무관(武官)의 관계.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 조선의 선전관청에 소속돼 왕의 명령을 전달하던 무관.

승지(承旨)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왕명을 출납하는 관리로 정3품.

승후관(承候官) : 왕의 기거와 안부를 묻던 관직.

승훈랑(承訓郎) : 조선 때 정6품 품계로 종친과 의빈(儀賓)에게 주었다.

시강관(侍講官) : 조선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4품 벼슬.

시독관(侍讀官) : 조선때 경연청(經筵廳)에 속해 임금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5품 벼슬.

시독사(侍讀事)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궁)에 소속된 관직.

시랑(侍郎) : 신라 때 각 부의 차관(次官)이며, 내마(奈麻 : 11등급)에서 아찬(阿湌 : 6등급)까지 해당하는 벼슬. 고려 때 각 부의 정4품 관리.

시사상(試仕郎) : 조선 때 종9품으로 동반(東班 : 문관)의 토관직(土官職).

시어사(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와 감찰사(監察司)의 종5품 관직.

시중(侍中) : 신라 때 집사성(執事省)의 최고 벼슬로 위계는 이찬(伊湌)에서 대아찬(大阿湌)까지. 고려 때 중서문하성·문하부의 종1품 으뜸 벼슬.

조선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1품 으뜸 벼슬.

신과(愼果)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 벼슬의 잡직.

신금(愼禽)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의 정8품 잡직.

신수(愼獸)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의 정9품 잡직.

신절랑(愼節郎)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5품 관계(官階).

신화(愼花)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의 종6품 잡직.

심류(沁留) : 조선 때 강화 유수(江華留守)의 별칭.

심률(審律) : 조선 때 형조(刑曹)의 율학청에 속한 종8품 관직.

심약(審藥) : 조선 때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조사하기 위해 각 도에 파견되었던 종9품직. 이들은 전의감·혜민서의 의원(醫員) 중에서 임명했다.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신라 때 승직(僧職).

아찬(阿湌) : 신라 때 17관등 중 6관등임. 6두품 신분의 최고위(最高位).

악사(樂師)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예속된 정6품직.

악자(樂子) : 신라 때 감전(監典 : 관청)의 한 벼슬.

안기(安驥) : 조선 때 사복시(司僕寺)의 정6품 잡직.

안렴사(按廉使) : 고려의 지방장관으로 절도사·안찰사로도 불린다. 지금의 도지사.

안무사(按撫使) : 고려·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던 임시 외관직.

암행어사(喑行御史) : 조선 때 왕명을 받고 비밀리에 지방을 순행하면서 관원들의 비리를 규명하고 민정을 살피던 임시 관직.

약장랑(藥藏郎)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가 사는 곳)에 속한 정6품의 관직.

어모교위(禦侮校尉) : 고려 때 종8품의 상(上)인 무관 품계(武官品階).

어모장군(禦侮將軍) : 조선 때 정3품 하(下)의 무관 품계.

어백랑(御伯郎) : 신라 때 어룡성(御龍省)에 두었던 벼슬.

어사(御事) : 고려 때 각 조(曹)의 장관. 또한 수서원(修書院)의 장(長).

어사대부(御史大夫) : 고려때 정3품으로 어사대(御史臺)의 장관. 조선때 대사헌에 해당.

어사잡단(御史雜端)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종5품 벼슬.

어사중승(御史中丞)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에 속한 종4품 벼슬.

어영대장(御營大將)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의 으뜸가는 벼슬로 종2품 무관직.

어영장관(御營將官) : 조선 때 어영청(御營廳)의 장관(將官)으로 종4품 무관직.

여력도위(勵力徒衛) : 조선 때 무관 정9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여신대위(勵信隊尉) : 조선 때 무관 종6품 토관직(土官職)의 품계.

여절교위(勵節校尉) : 조선 때 무관 종6품 품계로 승의교위를 고친 이름.

여정(勵正) : 조선 때 서반(西班) 토관(土官) 정7품 벼슬.

여직(勵直) : 조선 때 무관 정9품 토관직.

여직랑(勵直郎) : 조선 때 무관 정6품 잡직 품계.

여충대위(勵忠隊尉) : 조선 때 무관 종5품 토관직의 품계.

역승(驛丞) : 고려와 조선 때 역무(驛務)를 맡아보던 관직으로 종9품 무록관(無祿官).

역학(譯學) : 외국과 교통이 많은 요지(要地)에 주재하여 통역 일을 맡은 종9품직.

연옹(筵翁) : 신라 때 평진음전(平珍音典 : 관청)의 벼슬.

염문사(廉問使) : 고려 때 지방관리의 재판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2품 관직.

영(令) : 신라 각 부의 장관. 고려 때 3품~9품 관직. 조선 때 종5품 관직.

영관상감사(領觀象監事)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의 으뜸 벼슬.

영대랑(靈臺郎)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두었던 정8품 벼슬.

영도첨의(領都僉議)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으뜸 벼슬.

영돈령부사(領敦寧府使) : 조선 때 영돈령·돈령부(敦寧府)의 장으로 정1품 관직.

영돈령원사(領敦寧院事) : 조선 말기 돈령원(敦寧院)의 칙임(勅任) 벼슬.

영록대부(榮祿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下)의 문관 품계.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 : 조선 국초 때 문하부의 정1품 으뜸 벼슬.

영사(領事) : 영사복시사(領司僕寺事)의 별칭.

영사복시사(領司僕寺事) : 고려 때 종2품으로 사복시(司僕寺)의 종2품 으뜸 벼슬.

영선공사사(領繕工司事) : 고려 때 선공사(繕工司)의 장(長)으로 종2품 관직.

영원장군(寧遠將軍) : 고려 때 무산계(武散階)로 정5품 하(下).

영의정(領議政) : 조선 때 최고의 중앙 관청인 의정부(議政府)의 최고 관직으로 정1품이며,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감독하였다.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다.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 고려와 조선 때 춘추관의 으뜸 벼슬로 영의정이 겸하였다.

영홍문관사(領弘文館事) : 조선 때 홍문관의 으뜸 벼슬로 정1품 관직.

예의판서(禮儀判書) : 고려 때 예의사(禮儀司)의 으뜸 벼슬로 정3품의 벼슬.

오위장(五衛將) : 조선 때 오위(五衛)의 으뜸가는 종2품 벼슬. 후에 정3품.

옥당남상(玉堂南牀) : 조선 때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의 별칭. 정9품직.

옥당장(玉堂長) : 홍문관의 우두머리, 곧 부제학의 별칭. 정3품 당상관.

왜학훈도(倭學訓導) : 조선 때 일본말의 통역을 맡아보았던 사역원의 정9품 관직.

외명부(外命婦) : 조선 때 종친(宗親)의 딸·처(妻) 및 문무관의 처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을 받은 사람.

외사정(外司正) : 신라 때 지방 관리들의 비행을 규탄하는 일을 맡아보았던 관원.

요무교위(耀武校尉) : 고려 때 정6품 상(上)의 무관 품계.

요무부위(耀武副尉) : 고려 때 정6품 하(下)의 무관 품계.

요무장군(耀武將軍) : 고려 때 정6품 상(上)의 무관 품계.

우(虞) : 신라 때 본피궁(本彼宮 : 석씨의 발상지에 세운 궁)의 으뜸 벼슬.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 고려 문하성에 두었던 정4품 관계. 후에 정3품으로 올렸음.

우대언(右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소속의 정3품 관직.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우보간(右補諫)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의 낭사(郎舍) 벼슬. 정6품직.

우보궐(右補闕)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6품 벼슬.

우복야(右僕射)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되어 상서령(尙書令) 다음가던 정2품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우부대언(右副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우부빈객(右副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종2품 벼슬.

우부수(右副率)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속한 정7품 무관직.

우부승선(右副承宣)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추밀원(樞密院) 등의 정3품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았으며, 후에 종6품으로 되었다. 조선 말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

우부승지(右副承旨) : 조선 초기 중추원의 정3품, 후에 승정원의 정3품 벼슬.

우부승직(右副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6품의 관직.

우빈객(右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2품의 관직.

우사(右使) : 고려·조선 때 삼사(三司)에 속한 정2품 벼슬. 우복야를 고친 이름.

우사간(右司諫)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되어 간쟁을 맡아본 정6품 벼슬이었으나, 뒤에 우헌납(右獻納)으로 고치면서 정5품으로 하였다가 다시 종5품으로 바꿨다.

우사낭중(右司郎中)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우사어(右司禦)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종5품 무관(武官) 벼슬.

우사원외랑(右司員外郎)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속한 정6품 벼슬.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 고려 때 간쟁(諫爭)을 맡아보던 낭사(郎舍) 벼슬.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 고려 때 중서문하성에 속해 있던 정3품 관직. 조선 때 문하부의 정3품 벼슬.

우상시(右常侍) : 우산기상시의 별칭.

우습유(右拾遺) : 고려 때 문하성에 두었던 종6품. 조선 때 문하부의 정6품 낭사 벼슬.

우승(右丞) : 고려 때 상서도성의 종3품, 조선 초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우승직(右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5품의 벼슬.

우시금(右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소속의 정8품 벼슬.

우시직(右侍直)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 관직.

우위수(右衛率)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의 정5품, 조선 때 세자익위사의 종6품 벼슬.

우유선(右諭善)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당하 정3품에서 종2품까지의 문

관직.

우윤(右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 : 서울시청)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우의정(右議政) : 조선 때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1품 벼슬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괄하며 여러 관직을 겸임.

우익위(右翊衛)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 무관 벼슬.

우익찬(右翊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 무관 벼슬.

우찬선대부(右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일을 맡아보던 정5품 관직.

우찬성(右贊成) : 조선 때 의정부에 속한 삼의정(三議政) 다음가는 벼슬로 종1품 관직.

우참찬(右參贊)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2품 벼슬.

우첨사(右詹事)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3품 벼슬.

우통례(右通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의 으뜸 벼슬.

우포도대장(右捕盜大將) : 조선 때 우포도청에 두었던 종2품 무관직.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 고려 때 종3품의 무산계(武散階).

원보(元輔) : 영의정(領議政)의 별칭.

원사(院使)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벼슬.

원상(院相) : 조선 때 어린 임금을 보좌하며 정사를 다스리던 관직.

원외랑(員外郞) : 신라 때 집사성의 한 벼슬. 고려 때 상서성의 정6품 관직.

위(尉) : 고려·조선 때 정9품의 무관(武官) 벼슬.

위수(衛率)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정5품 무관.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좌·우위수로 종6품 벼슬.

위유사(慰諭使) : 지방에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있을 때 어명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던 임시직.

유격장군(遊擊將軍) : 고려 때 종5품의 무산계(武散階).

유기장군(遊騎將軍) : 고려 때 종5품의 무산계.

유덕대부(綏德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었던 종1품 품계(品階).

율학교수(律學敎授) : 조선 때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연구한 종6품 관직.

율학박사(律學博士) : 고려 때 상서형부(尙書刑部)와 국자감(國子監)에 소속된 종8품직.

율학훈도(律學訓導) : 조선 때 형조(刑曹)의 율학청(律學廳)에 소속된 정9품 관직.

응교(應敎) : 고려 때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 속한 정5품 관직.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 속한 정4품 벼슬.

의덕대부(宜德大夫) : 조선 때 문관과 종친에게 주던 종1품의 관계(官階).

의동삼사(儀同三司) : 고려 때 정1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의승대장(義僧大將) : 조선 때 승군(僧軍)을 지휘하던 승장(僧將).

의인(宜人) : 조선 때 외명부(外命婦 : 왕족·종친·문무관 부녀자에게 주는 봉작)의 봉작으로 정·종6품 부인직.

이기(理騎) : 조선 때 사복시의 종8품 잡직.

이마(理馬) : 조선 때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직. 품계는 6품이 1명, 8품이 2명, 9품이 1명이었으며 모두 체아직(遞兒職)이다.

이방(吏房)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있었던 육방(六房)의 하나.

이사(貳師)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종1품 관직.

익례(翊禮)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에 소속되어 의식(儀式) 일을 맡아본 종3품직.

익선(翊善) : 고려 때 정5품 관직.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4품직.

익찬(翊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되어 세자를 호위한 정6품 무관직.

익휘부위(翊麾副尉) : 고려 때 종7품의 무산계(武散階).

인의(引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종6품 벼슬.

인진부사(引進副使) : 고려 때 합문(閤門)에 소속된 종5품의 관직.

인진사(引進使) : 고려 때 합문에 소속된 정5품 관직.

일길찬(一吉飡) : 신라 때 17관등 중 7관등의 위계(位階).

일길찬(一吉粲) : 고려 태조(太祖) 때 신라의 제도를 본떠서 만든 문·무 9관등 중 여덟째 위계에 해당함.

임부(飪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의 정9품 잡직.

자덕대부(資德大夫) : 고려 때 종2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자신대부(資信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3품의 관계.

자의(諮議) :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7품 문관 벼슬.

자의대부(資義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과 문관(文官)에게 주던 종2품 관계.

자헌대부(資憲大夫) : 조선 초기에는 문·무관, 말기에는 종친·의빈에게 주던 정2품계.

잡단(雜端) : 고려 때 어사대와 사헌부의 종5품직. 조선 때는 사헌부의 정5품직.

잡직(雜職) : 조선 때 사무를 담당하지 않고, 기술직에만 종사하던 관직.

잡찬(迊湌) : 신라 때 17관등 중 3관등의 위계(位階).

장건부위(壯健副尉) : 조선 때 종8품 무관 잡직의 품계.

장교(將校) : 조선 때 각 군영(軍營)에 속했던 군관(軍官).

장군(將軍) : 신라 때 시위부(侍衛府)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정4품의 무관직이며, 조선 때는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장령(掌令)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감찰사(監察司)의 종4품 관직.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4품 관직.

장무장군(將武將軍) : 고려 때 정4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장봉(掌縫) : 조선 때 세자궁(世子宮)에서 재봉(裁縫)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사(長史) : 고려 때 종6품의 무관(武官) 벼슬.

장사랑(將仕郎) : 고려와 조선 때 종9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장서(掌書) : 조선 때 세자궁(世子宮)에서 서책(書册)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8품의 궁인직(宮人職).

장식(掌食)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

장원(掌苑) : 조선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정6품의 벼슬.

장원랑(壯元郎) : 과거(科擧)에 장원 급제한 사람.

장의(掌儀) : 구한말 때 장례원(掌禮院)·예식원(禮式院)의 판임(判任) 벼슬.

장의(掌議) : 조선 때 성균관·향교의 재임(齋任 : 유생)의 으뜸 자리.

장의(掌醫)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9품의 궁인직.

장장(掌藏) : 조선 때 세자궁에서 장물(臟物)을 취급하던 종9품의 궁인직.

장정(掌正) : 조선 때 세자궁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

장찬(掌饌) : 조선 때 세자궁에 소속된 종7품의 궁인직.

재부(宰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정6품의 잡직(雜職).

저작(著作) : 조선 때 교서관·승문원·홍문관의 정8품 관직.

적공교위(迪功校尉) : 조선 때 무관(武官)의 잡직(雜職)으로 종6품 품계.

적순부위(迪順副尉) : 조선 때 무관(武官)의 정7품 관계(官階).

적위(赤位) : 신라 때 성전(成典)에 두었던 한 벼슬.

전경(典經) : 조선 때 경연청(經筵廳)의 정9품직.

전곡(典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정8품 품계.

전근랑(殿勤郞) : 조선 때 종9품 잡직(雜職)의 문관 품계.

전대등(典大等) : 신라 때 집사부(執事部)의 버금 벼슬. 위계는 아찬(阿飡 : 6관등)에서 내마(奈麻 : 11관등)까지.

전독(典讀) : 조선 말기 친왕부(親王府)의 판임(判任) 벼슬.

전력부위(展力副尉) : 조선 때 종9품 무관(武官)의 품계.

전부(典簿) : 조선 때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5품의 관직.

전빈(典賓) : 조선 때 궁중에서 접대·영빈 등의 일을 맡아보던 정7품의 궁인직.

전선(典膳) : 조선 때 내명부(內命婦)에 소속된 정7품의 궁인직.

전성(典聲)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소속된 정9품 잡직의 하나.

전수(典需)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정5품의 관직.

전악(典樂)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6품의 잡직(雜職).

전율(典律) : 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저7품의 잡직.

전음(典音) : 조선 때 장악원의 정8품 잡직.

전적(典籍) :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 속한 정6품의 관직.

전제(典製) : 조선 때 궁중의 종7품 궁인직.

전중내시사(殿中內侍史)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6품 벼슬.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6품이나 종5품, 또는 감찰사의 정6품 벼슬.

전첨(典籤) : 조선 때 종친부(宗親府)에 속한 정4품 관직.

전한(典翰)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에 속한 종3품 관직.

전화(典貨)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9품 관직.

전회(典會) : 조선 때 내수사(內需司)에 속한 종7품 관직.

전훈(典訓) : 조선 때 종학(宗學 :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던 학교)의 정5품 벼슬.

절도사(節度使) : 고려 때 주(州)의 장관인 외관직으로 후에 안무사로 고쳤다. 조선 때 지방에 두었던 무관으로 병마·수군절도사로 구분된다.

절제도위(節制都尉) : 조선 때 절도사에 속한 종6품의 무관직.

절제사(節制使) : 고려 때 원수(元帥)를 개칭한 이름으로 각 주(州)·부(府)의 장관직.

조선 때 각 지방에 두었던 정3품의 무관직.

절충장군(折衝將軍) : 조선 때 정3품의 당상관(堂上官)으로 무반 벼슬.

정광(正匡) : 고려 때 문반(文班)의 정2품 하(下) 관계(官階). 후에 향직 2품.

정당문학(政堂文學) : 고려 때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의 종2품 문관 벼슬.
조선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으로 정2품관이었다.

정덕대부(靖德大夫) : 조선 때 의빈(儀賓)에게 주었던 종1품 벼슬.

정랑(正郞) : 고려와 조선 때 6조(六曹) 소속의 정5품 벼슬.

정략장군(定略將軍) : 조선 때 종4품의 무반 벼슬.

정렬부인(貞烈夫人) : 정조(貞操)가 굳고 행실이 곧은 정렬(貞烈) 여자에게 내리는 가자(加資).

정령관(正領官) : 갑오경장 이전 신군제(新軍制)의 무관 계급의 하나.

정리부사(整理副使) : 1903년(광무 7)에 평양 풍경궁(豐慶宮)의 정리부를 보좌한 벼슬.

정리사(整理使) : 왕이 거둥할 때 행궁의 수리, 기타 일을 맡아보던 벼슬로 호조판서가 임시 겸함. 구한국 때 평양 풍경궁의 으뜸 벼슬로, 평양부윤이 겸임.

정보(正甫) : 고려 때 향직(鄕職 : 토관직)의 5품 관직.

정봉대부(正奉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文散階).

정부인(貞夫人) : 조선 때 정·종2품 문무관·종친의 부인에게 내렸던 봉작.

정순대부(正順大夫) : 고려 때 정3품 문관계. 조선 때 정3품 의빈의 당하관의 품계.

정승(政丞) : 문무 백관의 으뜸직으로 왕을 보좌했다.

정언(正言)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속한 종6품의 관직. 뒤에 정6품이 되었다.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정원장군(定遠將軍) : 고려 때 정5품 상(上)의 무관 품계(品階).

정윤(正尹) : 고려 때 종친에게 종2품, 훈신(勳臣)에게 정3품으로 내리던 봉작(封爵).

정의대부(正義大夫) : 조선 때 종2품 종친(宗親)의 품계.

정의대부(正議大夫) : 고려 때 정4품 상(上)의 문관(文官)의 품계.

정자(正字)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예속된 정9품직.

정조(正朝) : 고려 때 향직(鄕職)의 7품 벼슬.

정찰(貞察) : 신라 때 내사정전(內司正典)에 두었던 한 벼슬.

정헌대부(正憲大夫) : 조선 때 정2품의 문무관 품계로 후에 종친·의빈의 품계와 병용.

제감(弟監) : 신라 때 병부(兵部)의 한 벼슬로 위계는 대마(大麻 : 11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제거(提擧) : 고려 때 보문각·국자감·연경궁 제거사의 한 벼슬.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의 정·종3품 벼슬.

제검(提檢) : 조선 때 사옹원·예빈시(禮賓寺) 등에 소속된 정·종4품 벼슬.

제조(提調) : 조선 때 중요 기관에 겸직으로 임명되었던 고위 관직으로, 도제조는 정1품, 부제조는 정3품.

제학(提學) : 고려 때 정3품 벼슬로 대제학 다음. 조선 때 예문관·홍문관의 종2품, 또는 규장각의 으뜸 벼슬로 종1품 내지 종2품 벼슬.

조교(助敎) : 신라 때 국학박사(國學博士) 다음가는 벼슬. 고려 때 태의감·국학에 속한 벼슬.

조기(調驥) : 조선 때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된 종7품의 잡직(雜職).

조봉대부(朝奉大夫) : 조선 때 종4품의 문반 품계.

조봉랑(朝奉郞) : 고려 때 종5품의 문반 품계.

조부(調夫) : 조선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된 종8품의 잡직.

조사지(助舍知) : 신라 때 회궁전(會宮典)·예궁전(穢宮典)의 한 벼슬.

조사지(租舍知) : 신라 때 창부(倉部 : 전곡을 맡은 관청)의 한 벼슬로 위계는 대사(大舍 : 12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조산대부(朝散大夫) : 고려때 종4품 또는 종5품의 문관 품계. 조선때 종4품 문관 품계.

조산랑(朝散郞) : 고려 때 종7품 하(下)의 문관 품계(文官品階).

조열대부(朝列大夫)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문관 품계.

조위(造位) : 신라 때 17관등(官等) 중 열 일곱째 위계. 선저지(先沮知).

조의대부(朝議大夫) : 고려 때 정5품 하(下)의 문관 품계.

조의랑(朝議郞) : 고려 때 정6품 상(上)의 문관 품계.

조전원수(助戰元帥) : 고려 말기의 무관직으로 도원수·상원수를 돕는 구실을 담당.

조청대부(朝請大夫) : 고려 때 종5품의 문반 품계(文班品階).

조청랑(朝請郞) : 고려 때 정7품의 문반 품계.

조현대부(朝顯大夫) : 고려 때 문반 품계.

조호(調護) : 고려 때 동궁(東宮)의 한 벼슬.

종백(宗伯) : 조선 때 예조판서(禮曹判書)의 다른 이름.

종사(從事) : 조선 때 무반 잡직의 종8품 벼슬.

종사(從史) :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해 있던 종7품관.

종사관(從事官) : 조선 때 통신사를 수행한 임시 벼슬, 또는 각 군영(軍營)·포도청(捕盜廳)에 소속된 종6품직.

종사랑(從仕郎) : 고려 때 7품의 문반 품계.

종사지(從舍知)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세택(洗宅)·숭문대(崇文臺)에 두었던 벼슬.

종순랑(從順郎) : 조선 때 정6품의 문반 품계이며, 종친의 위계(位階).

종정경(宗正卿) : 조선 말의 종친부(宗親府) 소속으로 2품 이상의 벼슬.

좌(佐) : 신라 때 사정부(司正部), 좌·우이방부(左右理方府)의 한 벼슬. 위계(位階)는 대내마(大奈麻 : 10관등)에서 내마(奈麻)까지.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 고려 때 정4품의 관직 위계(官職位階). 조선 때 정3품.

좌대언(左代言) : 고려때 밀직사(密直司), 조선때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좌랑(佐郎) : 고려와 조선 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좌반전직(左班殿直)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의 남반(南班)에 예속된 종8품관.

좌보궐(左補闕) : 고려 때 간쟁을 맡아보던 정6품관. 조선 초에 문하부(門下府)에서 간쟁을 맡았던 종5품관.

좌복야(左僕射)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 소속의 정2품 벼슬로 상서령(尙書令) 다음의 관직. 조선 초기 삼사(三司)에 속했던 정2품 벼슬.

좌부대언(左副代言)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 벼슬.

좌부빈객(左副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했던 종2품 벼슬.

좌부수(左副率) : 조선 때 세자익위사에 소속되어 왕세자를 호위하던 정7품 무관직.

좌부승선(左副承宣) : 고려 때 중추원의 정3품 벼슬. 조선 말 승선원 소속의 관직.

좌부승지(左副承旨) : 고려 때 밀직사, 조선 때 중추원·승정원의 정3품 벼슬.

좌부승직(左副承直)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정6품 벼슬.

좌빈객(左賓客)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왕세자를 가르쳤던 정2품관.

좌사간(左司諫) : 고려 때 중서문하성의 정6품 벼슬.

좌사랑부(左司郎部)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예속된 정2품직.

좌사랑중(左司郎中)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좌사어(左司禦)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종5품 무관 벼슬.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郎) : 고려 때 상서도성(尙書都省)의 정6품직.

좌사윤(左司尹) : 고려 때 왕비부(王妃府)의 정3품직.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의 정3품직.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 고려와 조선 초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간관(諫官). 정3품.

좌상(左相) : 좌의정(左議政)의 별칭.

좌상시(左常侍)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3품 벼슬.

좌서자(左庶子)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4품 벼슬.

좌수(座首) : 조선 때 지방의 주·부·군·현에 두었던 향청의 우두머리.

좌습유(左拾遺) : 고려 때 문하중서성의 종6품, 조선 때 문하부의 정6품 낭사 벼슬.

좌승(左丞) : 고려 때 상서도성의 종3품, 조선 초기에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좌승선(左承宣) : 고려 때 중추원의 정3품 벼슬, 조선 말 승선원(承宣院) 소속의 관직.

좌승지(左承旨) : 고려 때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조선 때 중추원(中樞院)·승정원(承政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좌승직(左承直) : 고려 때 정5품으로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된 관직.

좌시금(左侍禁) : 고려 때 액정국(掖庭局) 소속의 정8품 벼슬.

좌시직(左侍直)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8품 무관 벼슬.

좌위수(左衛率) : 고려 때 춘방원(春坊院) 소속의 정5품 무관직. 조선 때 세자익위사의 종6품 벼슬.

좌유선(左諭善)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왕세손을 가르치던 종2·3품 벼슬.

좌윤(左尹)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3품 벼슬. 조선 한성부(漢城府)의 종2품 벼슬.

좌윤(佐尹) : 고려 때 향직(鄕職)으로 6품 벼슬.

좌의정(左議政)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 소속의 정1품 벼슬로 우의정의 위, 영의정의 아래이고 좌규(左揆)·좌상(左相)·좌정승·좌합(左閤)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좌익선(左翊善)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의 종4품직.

좌익위(左翊衛)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5품 벼슬.

좌익찬(左翊贊) : 조선 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소속의 정6품 무관 벼슬.

좌자의(左諮議) : 조선 초에 삼사(三司)의 정4품 벼슬.

좌장례(左掌禮) : 구한국 때 장례원(掌禮院)의 주임(奏任) 벼슬.

좌장사(左長史) :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의 종6품 무관직.

좌정승(左政丞) : 좌의정(左議政)의 별칭.

좌정언(左正言)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의 종6품직. 조선 때 사간원의 정6품직.

좌종사(左從史) : 조선 때 세손위종사(世孫衛從司)에 속하여 세손을 호위하던 종6품직.

좌찬독(左贊讀)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의 무관 벼슬.

좌찬선대부(左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가 사는 곳)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좌찬성(左贊成)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종1품 벼슬로 백관을 통솔하고 일반 정사의 처리, 국토계획·외교를 맡아보았다.

좌참찬(左參贊) : 조선 때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좌첨사(左詹事) : 고려 때 동궁(東宮)의 정3품 벼슬.

좌통례(左通例)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의 으뜸 벼슬로 정3품 벼슬.

좌합(左閤) : 조선 때 좌의정(左議政)의 별칭.

좌헌납(左獻納)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낭사(郎舍) 벼슬.

좨주(祭酒) : 고려·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에서 제향(祭享)을 담당한 종3품 벼슬.

주공랑(注功郞) : 조선 때 동반 종7품 토관(土官) 품계.

주금박사(呪噤博士) : 고려 때 태의감(太醫監)의 종9품 벼슬.

주금사(呪噤師) : 고려 때 태의감(太醫監)의 이속(吏屬 : 아전).

주문(主文) : 조선 때 대제학(大提學)의 별칭.

주보(注寶) : 고려 때 문하성(門下省)의 이속(吏屬 : 아전).

주부(主簿) : 신라 때 내마(奈麻 : 11등급)에서 사지(舍知 : 13등급)까지의 관직.
고려 때 종2품 상당의 벼슬. 조선 때 각 기관에 두었던 종6품 벼슬.

주부(注簿) : 고려 때 각 기관에 두었던 6품에서 8품까지의 관직.

주사(主事) : 신라 때 대도서·공장부·좌사록관·동시전·서시전 등의 버금 벼슬로 위계는 내마에서 사지까지. 고려 때 중서문하성·상서도성·삼사·중추원·상서육부 등에 딸린 이속(吏屬). 조선 초 육조(六曹)의 정7품 벼슬.

주사대장(舟師大將) : 왕이 거둥할 때 한강에 부교 놓는 일을 맡은 임시 관직.

주상(奏商) : 조선 때 궁중의 정9품 궁인직(宮人職).

주서(注書) : 고려 때 정7품의 관직. 조선 때 문하부와 승정원 소속의 정7품 관직.

주차(奏差) : 고려 때 문하성의 이속(吏屬).

주통(州統) : 신라 때의 승직(僧職).

준직(準職) : 정3품 당하관으로서 가장 높은 당하관 벼슬.

중금(中禁) : 고려 때 액정서(掖庭署)의 별감 아래에 있던 심부름꾼.

중대내마(重大奈麻) : 신라 때 대내마(大奈麻) 중에서 가장 아래 지위.

중대부(中大夫) : 고려 때 종4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중랑장(中郎將) : 고려와 조선 초 각 영(領)에 소속된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중무장군(中武將軍) : 고려 때 정4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중봉대부(中奉大夫) : 고려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고친 정3품 문산계.

중부(重副) : 고려 때 대재상(大宰相)의 다음 가던 벼슬.

중사인(中舍人) : 고려 때 동궁의 정5품 관직.

중산대부(中散大夫) : 고려 때 정5품 상(上)의 문산계(文散階).

중서령(中書令)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종1품 관직.

중서사인(中書舍人) : 고려 때 중서문하성 소속의 종4품 벼슬.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 : 고려 때 중서성(中書省)의 정2품 관직.

중서주서(中書注書) : 고려 때 문하성의 종7품 벼슬.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 : 고려 때 문하성의 정2품 벼슬.

중승(中丞) : 고려 때 어사대의 종4품, 사헌부의 종3품 벼슬. 조선 때 사헌부의 종3품 벼슬.

중시(中侍) : 신라 때 집사부(執事部)의 으뜸 벼슬. 위계(位階)는 이찬(伊湌 : 2등급)에서 대아찬(大阿湌 : 5등급)까지.

중의대부(中義大夫) : 고려 때 정4품 하(下)의 문관 품계(品階), 조선 때 종2품 종친 품계로 가의대부(嘉義大夫)를 병용(竝用)했음.

중정대부(中正大夫) : 고려 때 종3품의 문산계(文散階).

중직대부(中直大夫) : 조선 때 종3품으로 문반(文班)의 관계(官階).

중추부사(中樞副使) : 고려 때 중추원사(中樞院使)의 다음으로 정3품 벼슬. 조선 때 종2품 벼슬로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약칭한 말.

중추원사(中樞院使) : 고려 때 중추원의 종2품직. 조선 때 중추원의 정2품 벼슬.

중현대부(中顯大夫) : 고려 때 종3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중호(中護) : 고려 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예속된 정2품 관직.

중훈대부(中訓大夫) : 조선 때 종3품의 문산계.

지구관(知毆官) : 조선 때 훈련도감에 소속된 무관직.

지국사(知局事)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에 두었던 종3품 벼슬. 지태사국사의 준말.

지도(志道) : 조선 때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직.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종2품, 조선 때는 정2품 벼슬.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지부사(知部事) : 고려 때 6부(六部)에 소속된 종3품 관직.

지사(知事) : 고려 때 각 도(道)의 도통사에 딸린 5품에서 6품의 벼슬이며, 또한 각 관청의 2품에서 5품의 벼슬. 조선 때 정2품에서 종3품.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 조선 때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 고친 이름으로 위계(位階)는 종3품.

지사사(知司事)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지삼사사·지밀직사사를 칭함.

지사헌부사(知司憲府事)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 벼슬.

지삼사사(知三司事) : 고려 때 삼사(三司)의 종4품 벼슬.

지상서공부사(知尙書工部事) : 고려 때 상서공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 : 고려 때 상서도성의 종2품 벼슬.

지상서병부사(知尙書兵部事) : 고려 때 상서병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상서예부사(知尙書禮部事) : 고려 때 상서예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상서이부사(知尙書吏部事) : 고려 때 상서이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상서형부사(知尙書刑部事) : 고려 때 상서형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상서호부사(知尙書戶部事) : 고려 때 상서호부의 종3품 동반 관직. 타관이 겸직함.

지성사(知省事) : 고려 때 상서성(尙書省) 소속의 종2품 관직. 지상서도성사의 준말.

지신사(知申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 조선 때 승정원의 정3품 으뜸 벼슬.

지어사대사(知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종4품 벼슬.

지어서원사(知御書院事) : 고려 때 어서원(御書院)의 으뜸 벼슬.

지원사(知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벼슬.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 조선 때 의금부(義禁府)의 정2품 벼슬.

지제고(知制誥) : 고려 때 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을 지어 왕에게 알리던 관직.

지제교(知製敎) : 조선 때 왕에게 교서(敎書) 등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부제학(副提學 : 정3품) 이하 부수찬(副修撰 : 종6품)까지가 겸임.

지제용사사(知濟用司事) : 고려 때 제용사(濟用司)의 정5품 으뜸 벼슬.

지주사(知奏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정3품 벼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 조선 때 중추부(中樞府)의 정2품 무관직.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 고려·조선 때 중추원의 종2품 벼슬.

지첨사부사(知詹事府事) : 고려 때 첨사부(詹事府)의 정3품 으뜸 벼슬.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 벼슬.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의 종2품 벼슬.

지춘방원사(知春坊院事) : 고려 때 춘방원의 정4품 으뜸 벼슬.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 고려·조선 때 춘추관의 정2품 벼슬.

지평(持平) : 고려 때 사헌부와 감찰사, 조선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5품 관직.

지후(祗候) : 고려 때 합문(閤門)의 정7품 벼슬.

직각(直閣) : 고려 때 보문각의 종6품에서 정4품.

직강(直講) : 고려 때 성균관의 종5품, 세자부의 정6품, 왕자부의 종6품 벼슬.

직당상(直堂上) : 음관(蔭官 : 부친·조부의 공으로 얻은 벼슬)으로 있던 사람이 문과(文科)에 갑과로 급제하여 되는 당상관(堂上官).

직도첨의(直都僉議) : 고려 때 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3품 벼슬.

직랑(直郞) : 고려 때 낭중(郞中)을 고친 정5품 관계(官階).

직무랑(直務郞) : 조선 때 동반(東班) 계통의 종8품으로 토관직(土官職) 관계.

직문하(直門下) : 고려·조선 때 문하부(門下府)에 소속된 종3품 벼슬.

직문한(直文翰) : 고려 때 문한서(文翰署 : 한림원)에 두었던 한 벼슬.

직사관(直史館) : 고려 때 사관(史館)에 두었던 한 벼슬.

직사백(直詞伯) : 고려 때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소속의 정4품 벼슬.

직장(直長) : 고려 때 여러 관청에 딸린 6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조선 때 봉상시·종부시·사옹원을 비롯한 여러 관아에 소속된 종7품 관직.

직제학(直提學) : 고려 때 정4품 관직. 조선 때 집현전(集賢殿)의 종3품, 홍문관·예문관의 정3품, 규장각의 종2품에서 정3품 관직.

직학(直學) : 고려 때 국자감·성균관의 종9품, 조선 때 성균관의 정9품 관직.

직학사(直學士)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추밀원의 정3품 관직.

진강후(晋康侯) : 고려 때 무신(武臣) 최충헌(崔忠獻) 부자에게 내렸던 봉작(封爵).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고려 때 종2품의 무산계(武散階).

진덕박사(進德博士) : 고려·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종8품 관직.

진무(鎭撫) : 고려 때 도통사(都統使) 소속의 종2품과 정3품 관직.

진무부위(振武副尉) : 고려 때 종6품 하(下)의 무산계(武散階).

진무사(鎭撫使) : 조선 때 진무영(鎭撫營)의 으뜸 벼슬로 강화 유수가 겸임하였다.

진선(進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4품 관직.

진어사(鎭禦使) : 조선 말 춘천부(春川府)의 진어영(鎭禦營)에 소속된 으뜸 벼슬.

진영장(鎭營將) : 조선때 지방 군대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진영의 장관으로 정3품직.

진용교위(進勇校尉) : 조선 때 정6품의 무관 관계(官階).

진위교위(振威校尉) : 고려 때 종6품 상(上)의 무관 관계.

진위장군(振威將軍) : 조선 때 정4품의 무관 관계(官階).

진장(鎭將) : 고려때 각 진(鎭)에 배치된 으뜸 벼슬로 7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됨.

진지제조(進支提調) : 진연(進宴 :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푸는 잔치) 때 시키는 사옹원의 임시 벼슬.

질정관(質正官) : 조선 때 글의 음운(音韻), 기타 사물의 의심점을 중국에 질문하여 알아오는 일을 맡았던 임시 관직.

집례(執禮) : 제향(祭享) 때에 두는 임시 관직.

집사(執事) : 고려 때 지방 관청에 소속된 말단 관리. 성종 때 집사(執史)로 고침.

집순랑(執順郞) : 고려 때 정6품의 종친(宗親)에게 주던 관계(官階).

집의(執義) : 고려 때 사헌부(司憲府)의 정·종3품, 감찰사의 정4품 벼슬.

집주(執奏)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 소속의 관직.

징사랑(徵事郞) : 고려 때 정8품 하(下)의 문산계(文散階).

차비관(差備官) :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기 위하여 임시로 임명되는 관원.

찬독(贊讀) : 조선 때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 속한 종6품 관직.

찬선(贊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속한 정3품 관직.

찬선대부(贊善大夫)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궁)에 소속된 정5품 관직.

찬성(贊成) : 조선 때 최고 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종1품 관직.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조선 때 종1품 벼슬.

찬위(贊尉) : 조선 때 친왕부(親王府)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의 벼슬.

찬의(贊儀) : 조선 때 통례원(通禮院) 소속의 정5품 벼슬.

찬의(贊議) : 구한국 때 박문원(博文院)의 한 벼슬.

찬정(贊政) : 조선 말에 의정부에 소속된 칙임관(勅任官) 벼슬.

찰방(察訪) : 조선 때 종6품 관직으로 각 역(驛)에 소속된 벼슬.

참교(參校)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에 속한 종3품관. 구한말 무관직의 하나.

참군(參軍) : 고려 때 개성부의 정7품 벼슬.

참리(參理) : 고려 때 첨의부·도첨의사사의 종2품 벼슬. 참지정사를 고친 이름.

참리관(參理官) : 조선 말에 외국어의 통역·번역을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 예식원(禮式院)의 벼슬.

참봉(參奉) : 조선 때 각 관청에 소속된 종9품 벼슬.

참상관(參祥官) : 고려 때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의 한 벼슬.

참상관(參上官) : 조선 때 종6품에서 정3품 당하관(堂下官)까지를 말함.

참시관(參試官) : 과거 시관(試官)의 하나.

참의(參議) : 조선 때 6조(六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지(參知) : 조선 때 병조(兵曹)에 소속된 정3품 벼슬.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에 소속된 종2품 관직.

참지부사(參知府事) : 참지문하부사를 일컫는 말.

참지정사(參知政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벼슬.

참찬(參贊) : 조선 때 최고 기관인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된 정2품 관직.

참찬관(參贊官)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속한 정3품의 관직.

참판(參判) : 조선 때 6조(六曹)에 속했던 종2품 벼슬로 지금의 차관(次官).

창선대부(彰善大夫) : 조선 때 정3품의 당하관(堂下官)인 종친(宗親) 관계(官階).

창신교위(彰信校尉) : 조선 때 종5품의 무관 관계(官階).

척후장(斥堠將) : 조선 때 총리영(摠理營 : 군영)의 종9품 무관직.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종6품 벼슬.

천문학훈도(天文學訓導)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정9품 벼슬.

천총(千摠) : 조선 때 각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있던 정3품 장관직.

천호(千戶) : 고려 때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 후에 의금부)에 소속된 관리.

첨사(僉使) :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준말.

첨사(詹事) : 고려 때 동궁(東宮 : 세자궁)의 종3품 벼슬.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 : 고려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또는 정3품 관계(官階).

첨서원사(簽書院事) : 첨서중추원사·첨서추밀원사의 준말.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 고려 때 중추원(中樞院)의 정3품 관계.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관계.

첨위(僉尉) : 조선 때 의빈부(儀賓府)에 소속된 정·종3품 관직.

첨의사인(僉議舍人)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4품 벼슬.

첨의시랑찬성사(僉議侍郎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정2품 벼슬.

첨의우시중(僉議右侍中) : 고려 때 첨의좌시중과 함께 도첨의사사·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으뜸 벼슬.

첨의우정승(僉議右政丞) : 고려 때 첨의좌정승과 함께 도첨의사사·도첨의부(都僉議府)의 종1품 으뜸 벼슬.

첨의주서(僉議注書)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의 종7품 벼슬.

첨의중찬(僉議中贊) : 고려 때 첨의부(僉議府)·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1품 벼슬.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 고려 때 첨의부·도첨의사사의 정2품 벼슬.

첨절제사(僉節制使) : 조선 때 각 진영(鎭營)에 속한 종3품의 무관직.

첨정(僉正) : 조선 때 각 부서에 속한 종4품 관직.

첨지사(僉知事) : 조선 때 중추부(中樞府)에 소속된 정3품 당상관(堂上官).

청위(靑位) : 신라 때 각 성전(成典)에 두었던 벼슬, 위계(位階)로 내마(奈麻 : 11관등)에서 사지(舍知 : 13관등)까지.

청학상통사(淸學上通事) :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의 한 벼슬.

청학훈도(淸學訓導) :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체찰사(體察使) : 조선 때 지방에 파견되어 일반 군무를 총괄하던 군인직.

초관(哨官) : 조선 때 종9품의 무관직.

총관(摠管) : 신라 때 각 주의 군대를 통솔하던 벼슬.

총랑(摠郎) : 고려 때 육사(六司)의 정4품 차관(次官), 시랑(侍郎)을 고친 이름.

총리대신(總理大臣) : 조선 때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총재(摠宰)하던 대신. 조선 말기 통리기무아문·의정부(議政府)의 장관.

총리사(摠理使) : 조선 때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겸임하던 총리영의 주장. 정2품직.

총무관(總務官) : 조선 때 전운서(轉運署)의 으뜸 벼슬.

총서(總書) : 조선 말 내각의 한 칙임(勅任) 벼슬.

총순(總巡) : 구한국 때 경무청에 두었던 판임(判任) 벼슬.

총융사(摠戎使) : 조산 때 총융청(摠戎廳)의 주장(主將). 종2픔 무관직.

총장(總長) : 원수부(元帥府) 각 국(局)의 으뜸 벼슬.

총제사(摠制使) : 고려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의 관직. 종1품 재신(宰臣) 이상이 맡음.

총판(總辦) : 조선 말에 통신원(通信院)의 장관인 칙임관(勅任官) 벼슬.

총호사(總護使) : 국휼(國恤 : 나라에 상을 당함)의 상례에 관한 모든 의식을 총리하던 임시직.

최촉사령(催促使令) : 조세(租稅)를 독촉하러 다니던 호조(戶曹) 선혜청 또는 각 군영(軍營)의 사령.

추관정(秋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 고려 때 추밀원(樞密院)의 정3품 벼슬.

추밀원사(樞密院使) : 고려 때 추밀원의 종2품 벼슬.

추사(趨事) : 조선 때 서반(西班 : 무관) 종9품 잡직.

추은(推恩) : 조선 때 시종관(侍從官)이나 평안·함경도의 병마절도사의 아버지가 나이 70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가자(加資)를 내리던 일.

추증(追贈) : 종2품 이상 벼슬아치의 죽은 아버지·조부·증조부에게 벼슬을 내림. 또 국가에 공로가 많은 자가 죽은 뒤 그의 벼슬을 높여주던 일을 말함. 이증(貤贈)도 같은 말.

춘관정(春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종5품 벼슬.

충의교위(忠毅校尉) : 조선 때 정5품의 무관 관계(武官官階).

충익위장(忠翊衛將) : 조선 때 충익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충장위장(忠壯衛將) : 조선 때 충장위의 정3품 으뜸 장수.

측후관(測候官) : 조선 때 관상감(觀象監)의 임시 벼슬.

치과교위(致果校尉) : 고려 때 정7품 상(上)의 무산계(武散階).

치과부위(致果副尉) : 고려 대 정7품 하(下)의 무산계.

치력부위(致力副尉) : 조선 때 정9품의 무관 잡직 관계(官階).

치성(稚省) : 신라 때 예궁전(穢宮典)과 어룡성(御龍省)의 한 벼슬.

탄력도위(彈力徒尉) : 조선 때 종9품 토관직 무관 품계.

태보(太保) :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1품 관직.

태부(太傅) :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1품 관직.

태사(太師) : 고려 때 삼사(三師)에 속한 정1품 관직.

태수(太守) : 신라 때 각 군(郡)의 으뜸 벼슬로 중아찬(重阿湌)에서 사지(舍知)까지.

태정(台鼎) : 삼정승(三政丞 :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별칭.

태학사(太學士) : 조선 때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 별칭, 정2품 으뜸 벼슬.

통덕랑(通德郎) : 조선 때 정5품 동반(東班 : 문반)의 관계.

통사(通事) : 고려 때 내시부(內侍府)에 속한 종9품 벼슬, 문하부(門下府)에 속한 이속(吏屬).

통사(通詞) :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에 속하여 통역에 종사하였다.

통사랑(通仕郎) : 고려 때 9품, 조선 때 정8품 문관 관계(官階).

통사사인(通事舍人) : 고려 때 합문(閤門)의 정7품 벼슬.

통선랑(通善郎) : 조선 때 정5품의 동반 관계(東班官階).

통어사(統禦使) :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와 삼도육군통어사의 약칭.

통역관(通譯官) : 조선 말에 대한의원(大韓醫院)과 궁내부(宮內府)의 주임(奏任) 벼슬.

통의대부(通議大夫) :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3품에서 정4품까지의 문산계(文散階).

통의랑(通議郎) : 조선 때 동반(東班)의 정5품 토관직(土官職) 관계(官階).

통장(統將) : 무예별감(武藝別監)의 으뜸 장수.

통정대부(通政大夫) : 조선 때 문관(文官)·종친(宗親)·의빈(儀賓)의 정3품 관계.

통제사(統制使) : 조선 때 3도(경상·전라·충청)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던 관직.

통직랑(通直郎) : 고려 때 시대에 따라 정5품에서 6품 하(下)까지의 문관 관계.

통헌대부(通憲大夫) : 고려 때 종2품의 문산계. 조선 때 정2품의 의빈 관계.

통훈대부(通訓大夫) : 조선 때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관계(官階).

특진관(特進官) : 조선 때 경연(經筵)에 참진(參進)하는 직무를 맡았던 관직.

특진보국삼중대광(特進輔國三重大匡) : 고려때 문관(文官)의 정1품 상(上)의 품계(品階).

특진삼중대광(特進三重大匡) : 고려 때 문관(文官)의 정1품 하(下)의 품계.

파진찬(波珍飡) : 신라 때 17관등 중 네번째 벼슬로 진골(眞骨) 이상의 계층이 임명됨.

파총(把摠) : 조선 때 각 군영(軍營)의 종4품 무관직.

판공부사(判工部事) :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의 약칭.

판관(判官) : 신라 때 각 성전에서 사찰의 일을 맡아본 벼슬. 고려 때 각 관아의 5품에서 9품까지의 벼슬. 조선 때 관아와 큰 고을에 둔 종5품 벼슬.

판교(判校) : 조선 때 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에 속한 정3품 벼슬.

판국자감사(判國子監事)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의 으뜸 벼슬. 타관(他官)이 겸직함.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 고려 때 국기감(軍器監)의 종3품 으뜸 벼슬. 조선 때 정3품.

판금오(判金吾)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별칭.

판내부시사(判內府寺事) : 고려·조선 때 내부시(內府寺)의 정3품 벼슬.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 고려·조선 때 내시부(內侍府)의 정·종2품 으뜸 벼슬.

판대복시사(判大僕寺事) : 고려 때 대복시(大僕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대부시사(判大府寺事) : 고려 때 대부시(大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도첨의사사사(判都僉議使司事) : 고려때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종1품 으뜸 벼슬.

판도평의사사사(判都評議使司事) : 고려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으뜸 벼슬로 타관(他官)이 겸직함.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 : 조선 때 돈령부(敦寧府)의 종1품 벼슬.

판문하(判門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종1품 으뜸 벼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 : 고려 때 밀직사(密直司)의 종2품 으뜸 벼슬.

판병마사(判兵馬事) : 고려 때 도병마사(都兵馬使)의 으뜸 벼슬로 타관(他官)이 겸직.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 고려 때 비서성(秘書省)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농시사(判司農寺事) : 고려·조선 때 사농시(司農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수시사(判司水寺事) : 고려 때 사수시(司水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 : 고려 때 사재시(司宰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천대사(判司天臺事)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 : 조선 때 사평부(司平府)의 정6품 벼슬.

판삼사사(判三司事) : 고려·조선 때 삼사(三司)의 종1품 으뜸 벼슬.

판상서공부사(判尙書工部事) : 고려 때 상서공부(尙書工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宰臣)이 겸직함.

판상서병부사(判尙書兵部事) : 고려 때 상서병부(尙書兵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

판상서사사(判尙瑞司事) : 고려·조선 때 상서사(尙瑞司)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함.

판상서예부사(判尙書禮部事) : 고려 때 상서예부(尙書禮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

판상서이부사(判尙書吏部事) : 고려 때 상서이부(尙書吏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

판상서형부사(判尙書刑部事) : 고려 때 상서형부(尙書刑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

판상서호부사(判尙書戶部事) : 고려 때 상서호부(尙書戶部)의 으뜸 벼슬로 재신이 겸직.

판서(判書) : 고려 때 육조(六曹)의 정3품 으뜸 벼슬. 조선 때 육조의 정2품 벼슬.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 : 고려 때 선공시(繕工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소부감사(判小府監事) : 고려 때 소부감(小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소부시사(判小府寺事) : 고려 때 소부시(小府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 : 고려 때 어사대(御史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원사(判院事) : 판추밀원사·판한림원사·판중추원사의 약칭.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 : 조선 때 위위시(衛尉寺)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윤(判尹) : 조선 때 한성부(漢城府)의 정2품 으뜸 벼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조선 때 의금부(義禁府)의 종1품 으뜸 벼슬.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 : 고려 때 장작감(將作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 고려 때 전교시(典校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 : 고려 때 전의시(典儀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중성사(判殿中省事) : 고려 때 전중성(殿中省)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 고려와 조선 때 전중시(殿中寺)의 정3품 으뜸 벼슬.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 고려 때 종부시(宗簿寺)의 정3품 벼슬.

판종정경(判宗正卿) : 조선 때 종친부(宗親府)의 정1품 벼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조선 때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 벼슬.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 고려와 조선 때 중추원의 정·종2품 벼슬.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 : 고려 때 추밀원의 종2품 으뜸 벼슬.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 고려 때 태사국(太史局)의 정3품 으뜸 벼슬.

판태의감사(判太醫監事) : 고려 때 태의감(太醫監)의 종3품 으뜸 벼슬.

판한림원사(判翰林院事)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의 으뜸 벼슬로 재신(宰臣)이 겸함.

판합문사(判閤門事) : 고려와 조선 때 합문(閤門)의 정3품 으뜸 벼슬.

편수관(編修官) : 조선 때 춘추관(春秋館)의 정3품에서 종4품까지의 당하관 벼슬.

평사(評事) : 병마평사의 약칭.

평장사(平章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 소속의 정2품 벼슬. 내사시랑평장사.

평장정사(平章政事) : 고려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소속의 정2품 벼슬.

포도대장(捕盜大將) : 조선 때 포도청(捕盜廳)에서의 으뜸가는 종2품 무관직.

포삼별장(包蔘別將) : 조선 말기 의주 관세사(義州管稅司)에 두었던 하위 관원.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고려 때 종1품의 무산계(武散階).

필선(弼善) : 조선 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의 정4품 벼슬.

하관정(夏官正) : 고려 때 사천대(司天臺)에 두었던 종5품 벼슬.

하대부(下大夫) : 당하관(堂下官)인 대부, 곧 정3품 통훈대부부터 종4품 조봉대부까지 칭함.

학록(學錄) : 고려 때 국자감(國子監)·국학(國學)·성균관(成均館)의 정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成均館)의 정9품 관직.

학사(學士) : 고려 때 한림원·문한서·홍문관·수문전·집현전·숭문관의 정4품, 사림원의 정3품 벼슬. 조선 초 중추원(中樞院)에 소속된 종2품 벼슬.

학사승지(學士承旨) : 고려 때 한림원·문한서의 정3품, 사림원의 종2품 벼슬.

학유(學諭) : 고려 때 국자감·성균관의 종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종9품 관직.

학정(學正) : 고려 때 국자감·성균관의 정9품 관직. 조선 때 성균관의 정8품 관직.

한림학사(翰林學士) : 고려 때 한림원(翰林院) 소속의 정4품 관직.

한학교수(漢學敎授) : 조선 때 사역원의 종6품 벼슬.

한학훈도(漢學訓導) : 조선 때 사역원(司譯院)의 정9품 벼슬.

해운판관(海運判官) : 조선 때 전함사(典艦司)에 소속되어 조운(漕運)을 담당한 관직.

행영병마사(行營兵馬使) : 고려 때 변방(邊方)에 일이 있을 때 재신(宰臣) 중에서 뽑아 그 병마(兵馬)를 통솔하던 관직.

향리(鄕吏) : 한 고을에서 세습(世襲)으로 내려오는 아전(衙前).

향임(鄕任) : 조선 때 지방 자치 기관인 향청의 임원.

향장(鄕長) : 조선 때 지방 자치 기관인 향청의 우두머리.

헌납(獻納) : 고려 때 도첨의사사·도첨의부·문하부 소속의 정5품 벼슬. 조선 때 사간원(司諫院)의 정5품 벼슬.

현감(縣監) : 고려와 조선 초의 지방장관으로 고려 때는 7품, 조선에서는 종6품직.

현공교위(顯功校尉) : 조선 때 종6품 무관 잡직 품계.

현군(縣君) : 고려 때 외명부(外命婦 : 남편의 벼슬을 좇아 여자에게 주는 작위)의 정6품의 봉작.

현령(縣令) : 조선 때 각 현(縣)의 으뜸 벼슬로 종5품의 지방관직.

현록대부(顯祿大夫) : 조선 때 종친(宗親)에게 주는 정1품 벼슬.

현백(縣伯) : 고려 때 5등작(五等爵)의 셋째. 정5품으로 식읍(食邑) 700호를 줌.

현부인(縣夫人) : 조선 때 정·종2품의 종친(宗親)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현신교위(顯信校尉) : 조선 때 종5품 무관 품계.

형방(刑房) : 조선 때 승정원(承政院)·지방관청에 두었던 6방(六房)의 하나.

형조판서(刑曹判書) : 조선 때 형조(刑曹)의 정2품 으뜸 벼슬.

호군(護軍) : 조선 때 5위(五衛)에 속한 정4품 무관직.

호방(戶房) : 조선 때 승정원·지방관청에 두었던 6방의 하나.

호위대장(扈衛大將) : 조선 때 호위청(扈衛廳)의 정1품 무관직.

호조참판(戶曹參判) : 조선 때 호조(戶曹)의 종2품 관직.

호조판서(戶曹判書) : 조선 때 호조의 정2품 으뜸 벼슬.

회사(會士) : 조선 때 호조(戶曹)·산학청(算學廳) 소속의 종9품 벼슬.

효력부위(效力副尉) : 조선 때 정9품 무관 품계.

효임랑(效任郞) : 조선 때 종6품 잡직(雜職)의 문관 품계.

훈도(訓導) : 조선 때 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 및 5백호 이상의 고을에 두었던 종9품직.

훈련대장(訓鍊大將) : 조선 때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종2품 무관직.

훈련원정(訓鍊院正) : 조선 때 훈련원(訓鍊院)의 정3품 벼슬.

흥록대부(興祿大夫) : 고려 때 정2품 문관 품계.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1품 관계.

희공랑(熙功郞) : 조선 때 정7품 토관직(土官職) 문관 품계.

고금관작대조표(古今官爵對照表)

기관 / 직급	입법부	정부기관	지방행정	대학	군인	사법부	경찰계	문교부	정부투자기관	일반행정부	조선	품계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1품
		부총리									좌찬성 우찬성	종1품
		장관 차관	도지사		대장	대법원 판사	치안 본부장	장관 차관 교육감		장관 차관	판서 좌참찬 우참찬	정2품
		차관보		학장	중장	법원장 검사장				차관보	참판 관찰사 우참찬	종2품
1급		관리관		교수	소장	2호이상 판검사		관리관	관리관	관리관	참의 목사 도호부사	(당상관) 정3품
2급		이사관 국장		교수	준장	4호이상 판검사	치안정감	부교육감	이사	이사관	집의 사관	종3품
3급		부이사관 (3년이상)		부교수	대령	6호이상 판검사	치안감		이사 (3년이하)	부이사관	군수 사인 장령	정4품
					중령						경력 첨정	종4품
4급		서기관 (과장)	국장 군수	조교수	소령	9호이상 판검사	경무관 총경 경정	교장 6호이상	부장	서기관	현령 판관 지평	정5품
5급		사무관 (계장)	과장 (면장)	전임강사	대위			교감 9호이상	과장 (차장)	사무관	정랑 교리	종5품
											좌랑 감찰	정6품
											현감 찰방	종6품
6급		주사	주사 (계장)	전임강사 (2년미만)	중위		경감 경위	21호이상	계장 (대리)	주사	박사	정7품
7급		주사보	주사보	조교	소위 준위		경사	30호이상	평사원 3년이상	주사보	직장	종7품
											저작	정8품
8급		서기	서기		상사 중사		경장	31호이상	평사원	서기	정사 훈도	정9품
9급		서기보	서기보		하사		순경		평사원	서기보	참봉	종9품

부인관작표(婦人官爵表)

구분 / 품계	내 명 부(內命婦)		외 명 부(外命婦)		
	왕 궁(王宮)	세자궁(世子宮)	왕 가(王家)	종친의 처(妻)	문무관(文武官)의 처(妻)
무 계			공주(公主)·옹주(翁主)·부부인(府夫人)		
정 1 품	빈(嬪)		봉보부인(奉保夫人)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	정경부인(貞敬夫人)
종 1 품	귀인(貴人)			군부인(郡夫人)	
정 2 품	소의(昭儀)		군주(郡主)	현부인(縣夫人)	정 부 인(貞夫人)
종 2 품	숙의(淑儀)	양제(良娣)			
정 3 품 당상관	소용(昭容)		현주(縣主)	신부인(愼夫人)	숙 부 인(淑夫人)
정 3 품 당하관				신 인(愼人)	
종 3 품	숙용(淑容)	양원(良媛)		혜 인(惠人)	숙 인(淑人)
정 4 품	소원(昭媛)				령 인(令人)
종 4 품	숙원(淑媛)	승휘(承徽)			
정 5 품	상궁(尙宮)·상의(尙儀)			온 인(溫人)	공 인(恭人)
종 5 품	상복(尙服)·상식(尙食)	소훈(昭訓)		순 인(順人)	
정 6 품	상침(尙寢)·상공(尙功)				의 인(宜人)
종 6 품	상정(尙正)·상기(尙記)	수규(守閨) 수칙(守則)			
정 7 품	전빈(典賓)·전의(典衣) 전선(典膳)				안 인(安人)
종 7 품	전설(典設)·전제(典製) 전언(典言)	장찬(掌饌) 장정(掌正)			
정 8 품	전찬(典贊)·전식(典飾) 전약(典藥)				단 인(端人)
종 8 품	전등(典燈)·전채(典彩) 전정(典正)	장서(掌書) 장봉(掌縫)			
정 9 품	주궁(奏宮)·주상(奏商) 주각(奏角)				유 인(孺人)
종 9 품	주변치(奏變徵)·주치(奏徵)·주우(奏羽)·주변궁(奏變宮)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 부인(婦人)의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작(官爵)을 따른다.
○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品階)와 칭호(稱號)는 서기 1865년(고종 2)부터 동반관계(東班官階)를 따랐다.

기 행 문

태백 유적답사를 다녀와서

동두천문인협회
白蓮 원 화 윤

2008년 6월 23(월) 아침,

출발 시간을 임박해서 집결지에 도착했다. 출발 시간 몇 분 전, 시장님에 이어 시의원님, 문화원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유적답사 일정에 대한 국장님의 소개가 있었다. 설렘을 싣은 버스는 중부고속도로에 이어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31번 국도를 타고 약 4시간 소요로 태백시에 도착했다. 청잣빛 하늘에 활짝 핀 기분은 나뭇잎 색깔이다. 잡다한 일상에서 벗어난 창밖 세상은 묵은 채증까지 뚫린다. 푸름의 산하는 활력의 충동을 부추기는 묵시록이다. 청록의 터널을 뚫는 버스는 무한궤도를 거침없이 밀어낸다.

청춘의 계절인 유월 산에는 잔설이 내린 듯 밤꽃이 한참이었다. 비릿한 밤꽃향기가 느껴진다. 청경 같은 하늘에 목화솜구름의 눈부신 조화며 진초록융단은 녹즙 맛의 쾌감이다. 봄부터 피는 산꽃들 중에 칠월을 바라다보는 시기에 피는 밤꽃, 그 향기는 청상의 고쟁이까지 넘본다고 하지 않던가. 그렇듯 아리송한 향기가 맺은 열매, 밤, 밤은 생률이나 황률로 다람쥐나 청솔모의 겨울 내내 비축양식이 아닌가. 인간들에게까지 무한 보시하는 밤나무는 음으로 양으로 존재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산동네 유지가 아닌가. 칠월이 목전인 유월 말경의 산은 온통 밤꽃 축제다.

저만치 두부 판 같은 무논에는 그새 모포기가 초록빛으로 살지고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푸름의 물결은 쑥쑥- 토실토실 논두렁을 덮으리라. 천재지변의 눈총 속에도 결실을 향해 고뇌하며 본분의 역할에 충실하리라. 논배미 여기저기에 먼산바라기 하

는 정물화 같은 왜가리, 청백의 조화미는 전원의 아름다움이요. 더없이 평화로운 전경, 그 맛깔스러운 운치는 시야의 미각이다. 자연의 미색은 묵언 그 자체다. 재천을 지나니 산비탈 요소요소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단지였다. 논이나 밭이나 파종에서 모종까지 출하까지의 노고를 생각하니 농민들에게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10시 20분 경, 행선지 태백 땅을 밟으며 일정의 첫 코스 용현동굴에 도착했다.

'용현동굴, 태백시 회전동 산47-69번지 백두대간의 중추인 금대봉 하부능선 해발 92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굴 깊은 곳에 임진왜란 때 피난했다는 내력의 붓글씨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동굴은 의병의 본부역할도 하였고, 국가반란 때마다 피난처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동굴의 현황, 전장 : 843m, 위치표고 : 해발 920m, 구조 : 4개의 광장, 순환형 수평굴, 연평균기온 : 9.1℃~11.9℃, 내부습도 : 55%~70%, 서식식물 : 관박쥐 등 38종, 관람소요시간 : 40분. 동굴생성물, 동굴 내에는 중유관, 종유석, 석순, 유석, 동굴산호 등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굴 내에는 백색, 갈색, 흑색 등 다양한 색을 띠는 동굴생성물이 있으며 이는 동굴 속으로 침투되어 동굴생성물을 형성한 지하수의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함을 나타낸다.'

새하얀 안전모는 참 예뻤다. 급경사 계단을 타는 동굴은 들어갈수록 음습했다. 온몸을 감싸 안는 축축한 습기는 지상의 공기맛과는 사뭇 다른 맛이었다. 밤 속 밤무대를 연상케 하는 동굴 속 축제, 요소요소에 배치된 꿈결 같은 조명이며, 간헐적으로 분출되는 각색 분수 춤의 행렬은 가히 황홀경의 극치였다. 더듬거리는 발길을 멈추게 한 흔적."아, 이럴 수가", 석순에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 세월의 테가 빚은 동굴의 자부심, 태곳적 신비를 훼손시킨 손버릇에 내심 부끄러웠다. 귀중한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식의 부재가 참으로 아쉬웠다. 개운치 않은 마음은 축축한 습기를 느끼며 11시 40분 경, 다음 코스 검룡소에 도착했다.

'검룡소, 민족의 젖줄, 514km 한강의 발원지이다. 1987년 국립지리원의 인공위성도상 실측 결과, 이곳이 우통수류임이 밝혀졌다. 둘레 20m의 못에서 하루 2~3천 톤의 물이 용출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용소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폭 1~2m, 깊이

1~1.5m의 꼬불꼬불한 침식유로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용이 거슬러 오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한강을 거슬러 검용소에 오르다 생긴 흔적'이라는 전설이 있다. 검용소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는 정선의 골지천, 영월의 동강, 단양, 충주, 여주로 흘러 경기도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한다. 그리고 서울을 관통하여 임진강과 만난 뒤 서해로 들어간다.'

도보로 왕복 50여 분 거리라는 검룡소는 비포장도로다. 기라성 같은 전나무들의 밀집에 한 뼘 밖에 안 돼 보이는 하늘은 다양한 모양이다. 빽빽한 전나무들이 도열한 산책로는 이야기가 가득한 성전이었다. 산굽이를 휘도는 명주자락 물살은 산 빛깔만큼 힘찼다. 기암괴석에 덮인 물먹은 돌옷은 진초록 벨벳을 연상케 하리만치 정신이 맑아지는 눈부심이다. 세월의 테가 빚은 자연의 특권은 과묵한 묵시록이었다. 산은 매사 어눌한 삶 길에 깨지지 않는 거울이요. 행복한 그리움이다. 맑은 새소리와 힘찬 물소리와 벗하는 산책로는 더없는 삼림욕장이었다.

13 : 40분 경,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다. 점심 메뉴는 신토불이 식단이다. 그 식당의 추첨 요리는 검은콩으로 만든 순두부란다. 거무스름한 순두부백반에 매콤한 부추겉절이에 구수한 시래기볶음이며 종지만한 뚝배기에서 뽀글뽀글 끓는 쌈장은 토종맛이었다. 옹기방구리에 쪽박이 동동 뜬 동동주는 달착지근하고도 담백해 어머니 손맛을 연상케 했다. 산지의 잡곡 검정콩으로 끓인 순두부백반은 기행의 분위기에서인지 또 다른 별미였다. 좀 늦은 점심식사는 음식 맛도 인심 맛도 더 정겨웠다. 뿌듯한 포만감으로 14시 30분 경, 다음 코스인 도립공원으로 향했다.

'태백석탄박물관, 1997년 5월 27일 개관, 건축연면적 : 6,683.53㎡(2.021.77평), 전시면적/ 옥내전시면적 : 2,132㎡(654.1평), 옥외전시면적 : 7,907㎡(2,391.9평), 지하전시면적 : 1,537㎡(465평), 지상옥내전시실 : 7실(통로4개소), 지하전시실 : 1실, 옥상공원 및 전망대 : 2개소, 옥/야외전시장 : 2개소/1개소, 동선길이 : 1,337m(실내774m, 실외563m)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부존 에너지자원이므로 국민생활 연로 공급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그 수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그간의 석탄산업 변천사를 한 곳에 모아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되도록 하고, 후세들에게 석탄산업 전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학

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태백선탄박물관을 건립

석탄을 채취하는 갱도는 들어갈수록 쾌적했다. 상상외였다. 연탄을 찍어내는 수작업의 과정부터 모형으로 제작된 자료들이 현장감을 실감케 했다. 그 당시 광부들의 노고의 실체가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다. 시커먼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모형을 응시하노라니 작업과정의 움직임이 환청으로 착시로 다가왔다. 지하 9m라는 갱도를 돌아보는 내내 19공탄 구멍마다 광부들의 피땀의 심혈을 체감케 하는 현장이었다. 연탄 한 장 한 장의 중요성을 절감케 해 그 깊은 갱도에서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울러 오랜 세월 진폐증으로 고생하시는 장기 환자들에게 하루속히 빠른 쾌유를 빕니다.

새로운 문명에 도달하기까지 난방 수단은 주로 연탄불이 아니었던가. 겨울이면 긴 연통을 뽑은 연탄난로는 필수가 아니었던가. 연탄난로에 구어 먹는 고구마 감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문풍지도 우는 깊은 겨울밤 야참이요 유일한 간식이 아니었던가. 그 때 시절 정스러운 그 맛을 지금의 시대 맛에 감히 비견이나 될까. 연탄불의 따뜻함은 고향의 향수요. 외할머니 품 속 같지 않았던가. 광부들의 마음 마음이 녹아 든 연탄, 그 연탄불에"참 신세도 많이 졌었지", 약 50여 분이 소요된 갱도를 돌아보는 내내 물증인 자료들에 아득한 감회에 젖었었다.

'단군성전, 해마다 양력 10월 3일 날 개천절에는 단군제를 지내고. 음력 5월 2일은 단군의 탄신일을 경축하는 제를 올리고. 음력 3월 15일 날 어천절에는 단군의 기일을 기리는 제를 모신다는 통화의 증언, 매년 봄에 가을에 한 일 년에 두 번인 단군성전의 연중행사, 단군의 업적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거행된다는 단군성전'

16 : 50분 경, 도착한 마지막 코스, 도립공원에 위치한 단군성전을 돌아보며 축원과 묵념을 올리고 17 : 50분 경, 하향 길에 올랐다. 무한 묵시록인 창 밖 세상, 아날로그적 울림인 푸름의 색채는 시각적이나 청각적이나 후각적이나 충전하는 건강에 산해진미의 보약이었다. 다채로운 유적답사, 사색의 오감은 매사 부족한 삶의 행간에 양질인 견문의 깨침이요. 의미를 부여하는 값진 기행이었다. 행복한 포만감은 내년에도 자못 큰 기대, 주최 측 문화원에 심신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백 경 애

꽝! 하는 소리와 함께 20대의 나의 삶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철없는 23살의 나이로 시집을 왔습니다. 어린나이에 겪는 시집살이는 고추 보다 더 매웠으나 아이를 낳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골이었기에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면 결실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기에 몸은 힘이 들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지 6년 만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산으로 4박 5일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허락된 긴 여행은 흥분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외출이라곤 고작해야 하루 이틀이 고작이었던 결혼 생활 속에 얻게 된 여행이라 잠까지 설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게 흘러갔습니다. 둘째 날 기사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과속운전을 하셨으나 우리들은 들뜬 마음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많은 승객들을 염전 밭에 흩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뜨고 보니 사람들이 구겨지고 포개어진 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 일어서려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엠블런스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엠블런스에 실려 도착한 곳은 고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 온 후 끝없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했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은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니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장애인의 생활이나 아픔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에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내게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갈 바엔 죽음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헌신적으로 보살펴주었으며 내 분신인 아들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엄마를 바라보면서 반듯이 커가는 모습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아들로 인해 힘이 생겨 잘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고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순간 바뀌어버린 나의 삶이 어언 18년이 지났습니다.

펴보지도 못한 청춘을 돌아보며 즐거움보다는 슬픔이 커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 주는 가족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받아들이고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늘 집에만 있던 어느 날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세상 보여주기'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동두천장애인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따라나서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힘겨운 장애인이 많다는 것에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너무나 따뜻한 마음과 정으로 보살펴주시는 협회 직원여러분들로 인해 가슴 속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들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내게 소풍도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사랑나눔회 회원들은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 힘도 좋고 운동을 좋아하던 내게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컸지만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장애우들을 지켜보다 배드민턴 라켓을 잡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에 한순간 절망하기도 했지만 마음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동료들이 고마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삶에 배드민턴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배드민턴 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꽃꽂이와 요리도 제법 수준급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랑스런 내 가족, 동두천지체장애인협회 직원과 회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한 많은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됨이 참 다행입니다.

약 속

최 중 건

그때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심은
이제 더 이상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구워 왔던 그림자들은
어느새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다만 남은 것은
그 속에 갖혀 있던 열병뿐
고름이 살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함이
피고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석양의 끝에서 바라보는
파란 파도의 일렁임과
끝없이 들려오는 해조음에 실려간
긴긴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 냅니다
작은 가슴에 기대어 바라보는
그댈 향한
간절한 기다림의 눈망울을

소리로 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내밀한 밀어들이
보랏빛 물결로 일어서고
끝끝내 지워내지 못한 가슴 한쪽은
포말로 부서져 내립니다.



제 20 회

청소년 백일장 입선작

(산문 부문)

고등부

대상_산 / 김은지
차상_가로등 / 김희정
차상_아빠도 사랑을 먹어야 산다 / 김정민

중등부

대상_사막의 오아시스 / 박하영
차상_자매 / 이희재
차상_연가 / 조윤빈

초등부

대상_언제나 정상인 그곳에는 / 이소미
차상_꽃 피우는 학교 / 김예은
차상_높고도 높은 소요산에게 / 이희주



백월장 우수작품 고등부 대상

산

김 은 지(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열렸다, 우리 학교는 특별하게 소요산으로 등반을 하러 간다고 했다. 체육대회 준비를 안 해서 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방송부에서 카메라를 찍는다고 했는데 아침에 잘 모여서 만났는지도 걱정이 된다. 아침에 졸려서 죽겠는데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준비를 하고 소요산 매표소 앞에 도착했다.

"자 이제 등반을 시작할 거예요, 다들 다치지 말고 무사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등반이 시작되었다.

"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빨리 올라가서 일등 해야겠다."라는 마음다짐을 하고 첫 발을 내밀었다.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빨리 올라가기만 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중간쯤 올라가니 점점 숨도 차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뒤로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정말 여기서 그만 하고 밑으로 내려가 버릴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쉬어 버릴까?"하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다. 처음에 올라올 때 나눠주신 오이랑 물, 자유 시간(초코바)을 먹었다. 물을 먹고 한 숨 돌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작정 혼자서만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숨도 크게 쉬어가면서 친구들 끼리 손도 잡아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었다.

몇몇의 친구들이 먼저 정상에 올라가서 어디쯤 왔냐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왠지 나만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은 친구를 억지

로 일으켜서 데리고 올라갔다.

이제 정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정상에 서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보니까 반가움과 기쁨에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갔다. 올라가서 물도 마시고 고개를 돌려 보니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힘들게 올라 왔던 것들이 단 몇 초 만에 경치를 봄으로써 사라진 것처럼 너무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아… 이런 기분을 한번 느끼니까 계속해서 산을 찾아서 등산을 하러 오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산을 좋아하는 우리 작은 삼촌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그렇게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반별로 모이라는 소리를 듣고 반 애들끼리 다 모였다. 인원 점검하는데 3명의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어서 부축하면서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먼저 다 모인 반에는 상금 10만원을 준다고 했었다. 반 친구들이"이제 우리는 일등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 반인 2반에서 다왔다며 일등 했다고 소리를 쳤다. 나는 아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순간 다리를 다친 친구와 부축 하며 올라온 친구가 올라왔다.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박수를 쳐 주었다. 그렇게 부축하면서 박수를 받으며 올라오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올라오면서 무조건"일등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주위 친구들이 어떤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무작정 올라온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자기들도 힘들었을 텐데 아픈 친구까지 데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온 친구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산에 올라 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올라갔는데 내려가면서는 정상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내려오니까 왠지 나도 모르게 뿌듯하고 마음속이 꽉 찬 느낌이었다. 그렇게 다친 친구를 부축하면서 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등산으로 대신한 체육대회를 잘 마쳤다.

앞으로 더 좋은 산을 찾아서 가족들일 친구들이랑 다시 한 번 올라가 봐야겠다. 많은 깨달음을 준 소요산이 고마웠다.

가로등

김 희 정(정보산업고등학교 1년)

문득 길을 걷다 멈춰선 이곳.

바로 가로등 앞이었다. 내게는 희망과도 같았던 이곳을 왜 잊고 살았을까?

몇 년 전 이었다. 그날따라 따분했던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신기한 것도 많았고, 두려운 것도 많았다. 그렇게 방황 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인지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난, 세상에 모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온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쯤 무언가가 날 비춰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흔하디, 흔해서 느끼지 못했던 작은 불빛이 두려움으로부터 날 구해줬을 땐 이미 많은 불빛이 나의 몸을 감싸주고 있었다. 그 불빛의 주인공은 바로 가로등이었다. 늘 가까이 있어도 느끼지 못했던 고마움이 오늘에서야 느껴졌다. 밤새 추위를 견디게 해준 것도 다 가로등 덕분이었다.

날이 밝아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된 난 차갑게 식어버린 가로등을 보며 생각했다.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흘러 17살이 된 나는 너무도 무심하게 가로등을 잊고 있었다. 외로운 밤을 함께 지새워준 가로등의 고마움을 잊고 산 게 많이 미안해졌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땐 다시 한 번 느꼈다.

환하게 나의 모습을 비춰주는 가로등의 고마움을……

아빠도 사랑을 먹어야 산다

김 정 민(동두천고등학교 1학년)

그들 중 몇몇의 눈은 축복을 바라는 눈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탐탁치 안다는 느낌을 넘어서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그 멸시의 표적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했을 그 순간에 조차 속박을 받았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육안으로는 볼 수없는 주홍글씨 같은 것이었으리라. 나의 아버지는 새장가를 가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홀아비였다. 내가 5번째 첫눈을 맞았던 그해 겨울에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경제력을 핑계 삼아 돈 많은 다른 사람과 새 살림을 차리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염치였는지 아니면 동정이었는지 어머니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냥 빨리 도장이나 찍어 달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내 기억으로 그때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눈물에는 분노가 서려있지 않았다.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만이 거친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었다. 결국 나의 아버지는 혼자서 나를 키워야만 했다.

나의 유년기는 줄곧 혼자였다. 매일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 나를 혼자 남겨두고 공장에 가야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한 듯 내 볼을 쓰다듬고는 몇 번씩 돌아보며 세상과 맞서러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봐야만 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외로움에 길들여져 혼자인게 익숙해졌다. 어머니가 떠난 후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두 해가 더 지났을 때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남중을 졸업하고 남녀공학인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나는 슬슬 주변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 중에도 학기 초에 기록해야 하는 학생기초 자료는 나를 저절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중학교 친구들은 모두 내가 홀아비 자식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애들 중 내가 이런 처량한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애는 아무도 없으리라. 나는 학생기초자료를 속여 적었다. 애시 당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지도 않았다. 집에 있던 등본 하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쉽게 조작할 수 있었다.

기초자료속의 나는 부모님이 모두 계셨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셨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불안감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버지의 얼굴도 똑바로 바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의 조작은 뒤에 앉은 놈에 의해 발각되었다. 뒤에 앉은 놈이 기초자료를 걷다가 내 가족이 늘어난 것을 보고는"야, 너 원래 엄마 없잖아, 너희 아빠 새장가 가셨냐?"나는 그 순간 완전하게 얼어버렸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순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자 한 여자애 하나가"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려고? 그냥 네 할 일이나 계속해 한심한 놈아"라고 말했다. 그놈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대꾸 없이 나머지 애들의 기초자료를 걷어서 교탁위에 올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내 등을 두드린 뒤 자리에 앉았다. 그 이후로 나는 암묵적인 홀아비 새끼가 되어있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불렀다. 나는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다녀오셨어요."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또각또각"소리가 현관에 들어서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나는 게임을 멈추고 방문을 열었다. 웬 아주머니 한분이 아버지와 함께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는 낯설음이 어려 있었다.

"안녕 정민아?"나는 아직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온 기분이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에요?"아버지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아 이분은 아빠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셔, 인사드리렴."나는 좀 더 자세히 여자를 살펴보았다. 아버지보다 어려보이긴 했지만 아버지 또래를 벗어나는 것 같진 않았다. 얼굴을 보니 화장이 부자연스럽게 되어있었다.

같은 반 여자애들의 화장술보다 서투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의문이 생겼다. 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으며, 공장을 다닌다는 여자가 청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들어왔는

가. 나는 탄생 이래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아직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나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의 기분을 고려하거나 비위를 맞춰야 했던 경험이 부족한 나의 미간은 앞에 있는 아버지와 그 여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심하게 일그러져 버렸다. 아버지는 나의 미간이 표출하는 불만에 겁을 집어먹은 듯이 여자에게"나가자, 빨리 나가자, 아들아 미안하다."하며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는 12시가 되어서야 술에 취해 귀가 하셨다. 술에 쉬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모습에 미안했던 감정이 전부다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강한 억울함이 끓어올랐다.

"아버지!!"나는 발악하듯 소리 질렀다.

" 응 우리아들~ 아빠가 한번 안아보자."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단 한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에게 까슬까슬한 수염을 부비며 뽀뽀를 하려거나, 안아주려고 했던 적이 없었다. 개처럼 코를 킁킁거렸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들에게 동정받기 위해 이런 꼴을 보이는 아버지를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아버지, 안 취한거 다 알아요."목소리는 애써 분노를 삭히려는 성대의 노력이 묻어나왔다. 아버지가 벌렁 드러눕더니 말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 놀래 켜 주려고…"

가당치도 않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아까 그 여자 누구에요?"눈물을 삼키며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으셨다.

"아까 그 여자 뭐하는 여자냐구요!"

아버지가 얇은 눈꺼풀을 슥슥 비비며 말했다.

"아들, 아들은 엄마 갖고 싶지 않아?"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배신감이랄까?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다. 얼빠진 표정을 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렀다.

"너 엄마가 다른 놈하고 눈 맞아서 도망친 이후로, 이 애비는 너무 외로웠다.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는 것이 외로웠고, 네가 홀아비 새끼 취급받는 것도 외로웠다. 주말이나 명절에 집에만 있어야 했던 너의 모습이 외로웠다. 아침이 외로웠고, 낮이 외로웠다. 저녁이 항상 외로웠고, 밤에는 서러울 정도로 외로웠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무엇이 외로운지 나열하는 아버지의 굽은 등을 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 아버지가 한숨을 한번 거칠게 뿜아내더니 말씀하셨다.

"아빠 장가가면 안될까?"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불속으로 들어가서 자는 시늉을 했다.

"에이 미안하다. 그냥 자자!"

아버지께서 형광등을 껐다. 하지만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물이 말라 붙는 줄도 모르고, 멍청하게 천장에 불 꺼진 형광등을 생각했다. 평생 내 눈치만 보며 비위를 맞추느라 고생하셨던 아버지, 운동회 때 마다 자식이 홀아비새끼 취급을 받을까봐 통닭 한 마리와 사이다 한 병을 몰래 건네주고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는 그냥 돌아가셨던 아버지.

애들 사이에서 기죽을까봐 매일매일 TV위에 쌈짓돈을 올려놓으셨던 아버지.

아, 나의 아버지, 불쌍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마른 눈물자국을 따라 다시 또 눈물이 흘렀다.

"아빠도 사랑을 먹어야 산다."나는 아버지의 마음의 마음을 이해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양가의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한 채로 진행되었다. 아빠가 일하는 공장의 식구들이 보였다. 그리고 홀아비한테 동생을 시집보내는 것이 몹시 안타까운 듯 우리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보며 쏘아보는 이모가 될 사람도 보였다. 아버지의 모습은 긴장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다.

주변의 시선과 앞으로 몰아칠 험난함 따위도 거뜬히 물리치고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버지를 새장가 보내는 나의 눈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롱아롱하게 어렸다.

백일장 우수작품 중등부 대상

사막의 오아시스

박 하 영(동두천여중 1학년)

"더 빨리 뛰어!"날씨가 좋은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 날이었다.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라 그런지 모두들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창 경기가 무르익을 때 청군과 백군이 응원을 하기 시작했다. 응원 소리를 높였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청군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파란 모자를 쓴 아이가 스케치북을 넘기며 응원가를 부르자 옆에 있던 하얀 모자의 아이가 더 큰 목소리로"오! 필승 백군, 오! 필승백군"하며 상대편을 약 올렸다. 잠시 후 응원 깃발이 준비되자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누가 나와서 깃발 잡을까?"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은 서로 손을 들기 시작했다.

"저요, 저요!"

"웃기지마! 선생님, 제 팔 튼튼한거 아시잖아요? 저 시켜주세요."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진 스탠드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께 아양을 떨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난감한 표정으로 몇 명을 고르시자, 여기저기서 환호소리와 함께 아쉬운 한숨소리가 들렸다.

물론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깃발을 흔들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깃발을 흔드는 것은 보기보다 쉬운 일이 아이었다. 8자 모양으로 다른 친구들과 속도를 맞춰 흔들다 보면 얼마 안가서 아파오는 팔에 서로의 박자가 맞지 않아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스탠드에 앉아서 펄럭이는 깃발 소리를 들으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어떤 감정일까?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도 공동체 의식과 하

나라는 마음, 모두가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목표와 정신인듯 싶다.

예전에 책에서 한 전쟁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한 프랑스 병사가 국기를 지키고, 부대에 전달하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적들의 총탄을 피해 국기를 지켰다는 이야기였다. 그 병사는 부대에 도착한 후 숨을 거두었는데, 그가 목숨 걸고 지켜온 그의 피에 젖은 국기는 그 부대의 앞에 걸리게 되었다, 다른 모든 병사들은 그 국기를 보며 애국심을 느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국기가 그들에게 심어준"마음"과"정신"이다.

옛날 해적들은 그들의 해적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해적기를 뺏기지 않으려 애를 썼다.

도대체"깃발"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인 걸까? 무엇 때문에 내가 깃발을 보며 알 수 없는 느낌을 받고, 프랑스 병사가 국기를 자신과 바꾸고, 해적들의 해적기 사랑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깃발"이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은 나를 안타깝게 했다.

"야! 우리는 백기인데 그렇게 땅에 두면 더러워지잖아!"어느샌가 깃발에 흥미를 잃은 아이들에 의해 운동장 바닥으로 내팽겨쳐진 우리의 백기를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은 괜시리 편하지가 못했다.

"무슨 상관이야? 이게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나의 말에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흐리는 그 친구에게 나는 더 이상 대꾸를 못하고 묵묵히 깃발을 치울 수밖에 없었다.

어째서 다른 아이들은 깃발이 한 공동체에게 주는 커다란 영향을 모르고 무시하는 건지 내 마음은 속상함에 발을 동동 굴렀다. 여러 사람을 하나로 모으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같게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을 것만 같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심어주고, 한 곳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닐까?

공동체에서 그런 존재는 바로"깃발"같은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서로 더 쉽게 어우러질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매

이 희 재(중앙중학교 3학년)

"윤주를 부탁한다……"

병석에 누워 바싹 마른 입술로 엄마는 말씀하셨다. 내 손을 꽉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힘없이 침대 위로 떨어졌다.

아빠 없이 어렵게 나와 윤주를 길러 오신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다. 아무도 우리 자매를 거둬주지 않았다. 친척들은 우리 들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어렵게 살게 된 고모의 집에서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었다. 친애 고아 두 명을, 그것도 한 명은 자폐중 환자였으니 그들의 기분도 오죽했을까. 결국 우리는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고모 댁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다. 우리가 나간다고 말하자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으며 돈까지 쥐어 주던 고모부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조그만 단칸방을 구한 후 나는 고등학교를 그만두었다. 이제는 공부보다도 당장 생계가 급했으니까 그렇게 산지도 2년이다."이제 학교 혼자 갈 수 있지? 언니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차 조심해서 갔다 오구, 응?"

"윤빈 언니도 차 조심…"

"무슨 일 있음 언니한테 전화해."

불행 중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윤주의 자폐증이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덕에 일에만 전념하는 게 훨씬 쉬웠다. 동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편의점 직원,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청소나 설거지는 손끝이 닳도록 했다. 물론 고생한 것에 비해 들어오는 돈은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생활이었다. 적어도 친척들의 냉대와 고모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윤주는 말수가 자꾸만 줄어들

고 밥도 잘 먹지 않게 되었다. 맨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윤주의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 척 했다. 이미 일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해 버렸다.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면했던 것이다.

"너, 왜 학교 갈 준비 안 해?""…… 가기 싫은데."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가기 싫어……"

"강윤주, 자꾸 이럴 거야?"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우는 윤주를 다그쳐 교복으로 갈아 입혔다. 일하는 곳에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해 놓고 동생의 학교로 향했다. 동생은 연신 울상이었다. 동생의 교실 앞까지 데려다 준 뒤, 일터로 가려는 찰나였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대화 소리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저 찌질이 또 왔어"

"그니까 난 쟤 얼굴만 봐도 토 나온다니까"

"나 얘 보는 날에는 맨 날 꿈이 안 좋아, 꼴도 보기 싫어."

"재수 없어"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생이 그동안 내게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납득이 되었다. 울면서 교실에 들어가려는 동생의 손을 잡고 무작정 뛰쳐나와 집으로 갔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바라보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동생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슨 일 있으면 말하라고 했잖아!"

"언니 피곤 할까봐……"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동안 내가 동생에게 보인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어제야 알게 되다니! 동생의 아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내게 화가 났다.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해 봤자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 뿐 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

"울지 마, 언니……"윤주의 가는 팔이 내 어깨에 얹혔다. 윤주에게 기대어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 어깨를 괜찮다는 듯 토닥여주는 윤주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벌어진 커튼 틈으로 그저 밝은 햇빛만이 새어나와 비출 뿐이었다.

연 가

조 윤 빈(중앙중학교 3학년)

여전히 달빛은 그 동네를 비추고 있었다. 그 동네의 소박한 가로등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시멘트 바닥만 밝혔다.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도 십년이 넘게 지났다. 내가 혼자 살게 된지도 벌써 십년이나 지난 것이다.

어둑하고 좁은 계단 사이에 때 묻은 가로등 밑은 밤마다 엄마와의 상봉 장소였다. 아침 일찍 일을 나가시는 엄마는 밤늦게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 나는 엄마가 돌아오실 때가 되면 그 가로등 밑에 쭈그려 앉아 엄마를 기다리곤 했다. 엄마의 모습이 보이면 헐레벌떡 뛰어 나갔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비록 벽에 가득한 낙서와 함께 쓰레기봉투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내겐 가장 행복해지는 장소였다. 그 날도 역시 가로등 밑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오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저 어둠 사이엔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남아 집을 보다가……"

순간 두려움이 닥쳐왔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어디 사고가 난 것 아닐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일 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태까지 엄마가 이렇게 늦은 일은 없었다. 점점 불안이 커져갔다. 더 이상 불안감에 참기 힘들었다.

"엄마를 찾으러 나가볼까?"고민되었다. 큰 시내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지만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컸다.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면 나 또한 살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난 엄마를 찾아 나

서기로 결심했다. 두려움과 함께 어둠속으로 발을 뗐다. 조금 앞으로 나가 좁다란 골목을 지나자 탁한 회색 도시와 동시에 강렬한 네온사인 불빛들이 눈을 가렸다. 멈칫하였다. 밤에 이렇게 큰 시내까지, 그것도 혼자서 나오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비틀대며 지나다녔고 높은 하이힐과 짧은 치마의 누나들은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내 앞을 지나쳤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이곳에 나 혼자 덩그러니 서있었다. 막막했다. 더군다나 난 엄마의 일터가 어디 있는 지도 몰랐다. 두려움과 걱정에 눈물이 새어나왔다. 참아보려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이미 눈물은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엉엉하는 울음소리로 주변이 시끄러웠다. 이내 사람들이 날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이는 없었다. 그때였다.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얼굴에 상처까지 난 무서운 얼굴이었다. 공포가 밀려왔다. 아저씨가 나를 잡으려 손을 뻗음과 동시에 도망쳤다. 이를 악 물고 내달리다 허둥지둥 도로로 뛰쳐나갔다. 강렬한 흰 불빛이 눈앞을 채웠다. 그 때 익숙한 엄마의 음성이 들렸다.

"정민아! 정민아!"

엄마의 애절한 목소리가 귀에 와 박혔다. 그리고 누군가의 팔에 묶여 몸이 공중에 띄어졌다. 눈을 떴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앞의 불빛에 눈이 따가웠다. 잠시 뒤에 할머니가 오셨고, 나를 데려가셨다. 분명 그 때 들은 목소리는 엄마였다. 할머니께 엄마는 어딨냐고 묻고 싶었지만 나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의사가 "실어증"이라고 말했다. 나이가 되서 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허나 그 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진 뒤였기에 아무에게도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지금도 그 동네 앞을 지날 때면 그 가로등 밑을 바라본다.

그 날 머릿속의 엄마를 떠올리던 노래를 웅얼거리며……

백월장 우수작품 초등부 대상

언제나 정상인 그곳에는

이 소 미(생연초등학교 6학년)

언제나 정상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 곁을 맴도는 그림자 같은 깃발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깃발은 희망이고, 어떤 이에게는 깃발이 추억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깃발은 희망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올랐을 때에 힘들지만, 정상에 있을 빨간빛의 깃발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 산을 끙끙 대며 올랐던 적, 운동회 때에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하며 청기와 백기를 힘차게 흔들고 땀방울이 이마에 송알송알 맺혔던 추억들…

언제나 정상에 꽂혀있던 깃발을 보며,"깃발은 먼 훗날 내가 정상에 서 있을 때 일거야!"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하였었고, "깃발은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서 정상 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워"라고하며 부러워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노력 없이 정상에 올라 허탈할 것 같은 깃발에 마음을 생각해 볼 때면 깃발이 불쌍하여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한답니다.

그런 것이 만약 내가 깃발이라면 마치 인생에? 쓴맛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언제인들 삶이 쉬운 적은 없었지만 인생은 희, 노, 애, 락 을 느끼며 수많은 경험을 하며 자라는 것이니까요.

저는 깃발이 삶에 희, 노, 애, 락 중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깃발은 우리와 떼어질 듯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깃발은 더욱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1등 깃발을 차지하기 위해 달리는 것처럼 저는 밝은 미래의 정상의 아름다운 나만의 깃발을 찾아 나의 꿈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릴 것입니다. 언제나 그 길을 찾아서 파이팅~!!

꽃 피우는 학교

김 예 은(송내초등학교 6학년)

지난 5월 15일 선생님의 날 즉, 스승의 날을 맞이하였다.

이날은 선물과 편지만 주는 날이 아닌 선생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날이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께 꽃을 선물하였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엄마의 손을 빌려 돈만 주고 사는 스승의 날 선물. 이건 아무런 뜻이 없는 선물이다. 선생님들은 종종 학교에서 선생님은 부모이며, 학생들은 자식이라고들 한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는 소리 이다.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식이 엄마나 아빠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부모를 싫어할 때처럼 학교의 학생들도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선생님을 싫어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모여 선생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꺼낸다, 이 사실을 알아도 선생님은 묵묵히 모른 척 그 학생을 옛날보다 더 아껴주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 하고 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자기와 동갑인 것 마냥 선생님을 친구 보듯 한다, 그리고 선생님도 인간이니까 선생님 마음에 드는 아이만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은 싫어하는 편애를 한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일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편애해서 라는 문제점도 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편애 하니까, 아이들도 그 편애를 받고 싶은데 못 받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서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사랑과 사랑이 오가는 학교.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과, 학교 학생들이 만드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다.

스승의 날에 받는 꽃. 아이들이 슬플 때는 시들고, 아이들이 환히 웃는 날에는 그 꽃은 환히 밝게 필 것이다.

높고도 높은 소요산에게

이 희 주(지행초등학교 3학년)

소요산아 안녕?

나는 지행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희주 라고 해~!

사실 나는 처음 동두천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서울과 다르고, 자연환경도 달라서 정이 들지 않았었어. 당연히 너도 그랬지. 하지만 점점 달라지게 되었어. 낮은 산들 주위에서 우뚝 솟아 있고, 초록색과 연두색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너. 바로 소요산 말이야, 너를 보면서"저렇게 많은 초록색 잎들이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되겠지? 그러면 아름다운 단풍축제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벌써 가을이 되었어. 나의 예상대로 너는 초록색의 파릇파릇한 잎에서 울긋불긋한 빨간색의 멋진 단풍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해 가을 너, 소요산에서 단풍 축제가 화려하게 열렸어. 여러 초대가 수도 없이 오고 체험 활동도 많이 있었지! 울긋불긋한 단풍은 서울의 단풍보다 멋지고 화려했고 너는 무엇보다도 멋져 보였어.

그러나 나는 요즘에 너에게 자주 갈 수 가없어.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많은 공부와 일정에 잡혀있었거든.

하지만 이 백일장을 계기로 너를 보게 되어서 참 좋아~!

나는 예전에는 산을 싫어했어, 괜히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아냐. 너를 보고 여러 생각이 바뀌었거든. 이제는 네가 아닌 다른 한라산, 설악산 등의 산을 모두 사랑해.

특히 재밌는 기억과 추억이 있는 설악산과 너, 소요산~! 나는 아마 이 백일장을 계기로 1년에 한번 씩 너에게 가려고~

나는 너도 좋지만 너에게서 사는 소나무나, 다람쥐, 청솔모들 도 굉장히 좋아해~ 나는 이런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은 생물인데…… 왜 그렇게 학대하거나 파괴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너는 꼭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만 줄일게. 바이바이~!!

아, 그리고 답장은 보내지 않아도 되는거 알지? 내가 가을 단풍제나 내년 백일장에 올 테니까 그때 너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거야.

소요산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우리 그때 다시 보자!

제 20 회

청소년 백일장 입선작

(시 부문)

고등부

대상_산 / 김혜경
차상_깃발 / 김수경
차상_가로등 / 유동균

중등부

대상_소요산 / 석주희
차상_불빛아래 / 김태연
차상_산의 노래 / 이아연

초등부

대상_깃발 / 정은지
차상_다섯 손가락 / 김수민
차상_할매 / 이규태

백일장 우수작품 고등부 대상

산

김 혜 경(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

아침 해야 밝은 산에
산새들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바람 부는 날이면 모든 식물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인사한다.

그 푸른 산은 동물들에 잠을 깨워주는
집이 되어주고

산은 우리에게 건강을 나눠주는
병원이 되어 우리에게 그 까만 마음을
새 하얀 백지장처럼 깨끗이 청소해 준다.

산은 우리 모두에 생명줄이 되어
살아 있는 모두에 희망이 되어 주는
고마운 의사 선생님

산은 우리에 녹색 빛으로 물들여진
녹색도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자원봉사자

우리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화목한 가족

어딜 가든지 항상 곁에 살아 숨쉬는
산은 우리에 영혼



깃 발

김 수 경(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언젠가 그 누군가가 세계 최정상에 가슴 떨리며 박아 넣은
그러한 깃발이 나의 언덕에도 있습니다.

매끈한 깃대와 우아하게 나부끼는 기는
어느 정상의 깃발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자랑입니다.

아득한 시간을 돌아 다시 찾아온
그리운 나의 언덕 위에는
빛바랜 깃발이 늘어져있습니다.

꿈도 미래도 친구도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천만 개의 깃발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깃발 수백에 추억 하나라면
아무런 고민 없이 추억을 택하겠습니다.
깃발 수천에 진정한 친구 하나라면
망설임 없이 깃발을 버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나의 언덕에 나는
시들어 버릴 영광의 깃발보다는
나의 소중한 친구와 어깨동무하고
영원히 웃으며 서있기를 택하겠습니다.

깃발보다 더 깃발다운 것을 위하여.



가로등

유 동 균(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서울 달동네
그 가장 높은
진정으로 높기에 서러운 그곳에
가로등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찬란히 빛날 새 세상 만들어져
손때 묻은 회색기둥 사라지기에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지만
사람들은 그 맘 헤아리지 못하고
타버린 그의 심장만을 열었다 닫는다.

새 세상 열리면
꼭 그 세상을 빛나게 하겠노라
주위에서 아무리 다독여도
검게 타버린 그의 심장은
다시는 빛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힘겹게 불을 밝혀가며
몸 한번 흔들어 보지 못하고
그는 조용히 서 있을 뿐…

백일장 우수작품 중등부 대상

소요산

석 주 희(보영여자중학교 2학년)

푸른 강물 빛의 하늘이 흐르고
금방이라도 손에 쥘 듯한 구름조각
손 내밀어 인사하는 꽃나무
즐겁게 인사하는 아기 새

그 아름다운 배경에
기대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아름다운 인정을 선물하는 곳
진실 된 마음을 담아 가는 곳
참된 행복을 빌어 주는곳

그 아름다운 소요산
그 안에서 자연을 담아 간다
세상을 배워간다

불빛아래

김 태 연(생연중학교 3학년)

아빠와 다툰 뒤 툴툴거리며 집을 나와
가로등 불빛아래 웅크려 앉았다.

내 몸이 바람 빠진 풍선같이 작아질 만큼
딱 그만큼 딱 그만큼만 웅크려
주위가 조용해 질 때까지
눈을 감는다.

그러다가 아무소리도 나지 않을 때
천천히 고개를 든다.
뭐가 그리 좋은지 주황빛 볼이 되어
수줍게 날 내려다보는 가로등과, 나
이렇게 둘뿐이다.

내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내연하게 날 내려다보는
저 녀석이 미운지
내입은 조금 삐뚤어졌다.

맨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그런 가로등 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내 옆에
아무 말 없이 서있는 저 녀석이
고맙게만 느껴지는지…
더 밝게만 느껴지는지…

가로등 불빛아래
작게 웅크린 나를 환한 주황빛 미소로
포근히 감싸고 있는 저 키 큰 친구.

내 두 눈에 가로등 불빛이 충분히 담겼을 때
그 불빛으로 내 눈이 반짝반짝 빛날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고마워, 키 큰 친구"라고
조용히 속삭인 뒤
점이 되어 사라진다.

산의 노래

이 아 연(보영여자중학교 1학년)

산을 향해 한 발자국 딛으며 듣는
산의 노랫소리
늘 함께 있는 강과, 새들과
숲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기분은 참
상쾌 하구나

쉴 틈이 없는 나의 두 눈은 산을 향해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갈수록
산의 노래는 아름다워지고
더 높이, 더 위로 갈수록
산의 노래의 가치를
알 수 있으리라.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는
모를지라도
산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잊지 않으리라

누가 이 산의 노래를 싫어하겠는가
언젠가는 사라질 이 산의 노랫소리를
생각할 때, 희생의 서글픔과 같으리라

산아 산아 고운 산아
네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한 잔의 깨끗한 물과 같구나
네 안에 살고 있는 맑은 물과
자연들이 청명한 노랫소리를 내어
어떤 이에게 좋은 기분을 주고 있구나

너는 아아 모를 것이리라
네가 얼마나 좋은 생각들을 주고 있는지를

지금은 이렇게 좋은 기분이 들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어도 네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지는 구나

나중에 사라지고 잊혀 진다 해도
너의 그 맑은 노랫소리는
결코 잊혀 지지 않으리라.

백일장 우수작품 초등부 대상

깃 발

정 은 지 (소요초등학교 2학년)

푸르른 하늘아래
여러 나라 국기가 휘날립니다.
우리나라 미국 다른 나라 국기들도
자기나라가 예쁘다고
펄럭 입니다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 앞에
휘날리는 국기는
서러워서 펄럭 입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군인 아저씨 마음입니다

육이오 때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여러 나라 아저씨들

감사합니다.

다섯 손가락

김 수 민(동두천초등학교 5학년)

가족…
우리 가족은 다섯 손가락
첫째 엄지는 무뚝뚝하지만
매일 최고인 우리아빠~

둘째 검지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우리엄마~
이것저것 시키지만
자상한 우리엄마~

셋째 중지는 우리 집에서 제일키가 큰
믿음직한 우리오빠~
가끔은 화내기도 하지만…
나에겐 자상한 우리오빠~

넷째 약지는 제일 예쁜 손가락 이지만
말을 잘 듣지 않는 나~
그래도 우리 집에서 반겨주는
제일 예쁜 나~

다섯째 새끼손가락은
귀엽고 재롱도 잘 부리는
나에겐 하나뿐인 내 동생~

우리가족은 행복한 다섯 손가락~



할 매

이 규 태(송내초등학교 4학년)

내가 밥을 달팽이처럼 늦게 먹으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눈빛으로
"괜찮아, 골고루 먹어"라고 하시고

내가 혼나면 담요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괜찮아, 널 위해 혼낸 거야"라고 하시고

내가 사고를 치면 이불처럼 포근한 말투로
"괜찮아, 다음에 하지마."라고 하시고

내가 상을 타오면 장하다는 마음으로
엄지 손가락을 들며
"어이구 최고네"라고 하시고

내가 슬프면
정겨운 눈빛으로
"용기를 내"라고 하시고

할매는 나의 영원한
수호천사 ~

시민의 장 수상자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1	제1회	'89. 9. 25	문화장		한국국악협회시지부장	남	이윤형	향토문화창달유공	작고
2	〃	〃	공익장		시위민봉사회장	남	장기묵	시민복지증진유공	작고
3	〃	〃	체육장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자문위원	남	신태룡	체육발전유공	작고
4	〃	〃	애향장		시정자문위원장	남	안도제	향토발전유공	작고
5	〃	〃	효열장			여	한계순	부모공양유공	
6	제2회	'90. 9. 29	문화장		문화원장	남	김성근	향토문화창달유공	
7	〃	〃	공익장		평통위원	남	이재풍	시민복지증진유공	
8	〃	〃	체육장		시정자문위원	남	박중양	시체육발전유공	작고
9	〃	〃	효열장		2/8 반장	여	전옥자	부모공양유공	
10	제3회	'91.10. 7	새마을장		생연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강정원	새마을운동활성화	작고
11	〃	〃	공익장		한국자유총연맹지부장	남	이영락	시민복지유공	
12	〃	〃	근로장		주미노조지부장	남	김관목	근로자지위향상	
13	〃	〃	체육장		생연2동 체육회장	남	간두범	체육발전	
14	〃	〃	애향장		동정자문위원장	남	김판돌	향토발전,주민화합	
15	〃	〃	효열장		현대건업 대표	남	김용설	부모공양	
16	제4회	'92.10. 6	문화장		동두천초교장	남	심상옥	지역교육발전	
17	〃	〃	새마을장		시새마을부녀회장	여	고순자	새마을운동활성화	
18	〃	〃	산업장		양곡상연합회시지부장	남	김문규	지역경제활성화	
19	〃	〃	근로장		주미노조시지부상무	남	박태균	근로복지향상	
20	〃	〃	체육장		국가대표 빙상선수	남	송재근	국위선양	
21	〃	〃	애향장		내행동동정자문위원장	남	이기복	지역발전	
22	〃	〃	효열장		시민	남	임원금	경로효친사상선영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23	제5회	'93. 10. 6	문화장		시민	여	어경자	지역교육발전	
24	〃	〃	새마을장		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김일태	새마을운동활성화	
25	〃	〃	근로장		(주)서광 생산부차장	남	최재풍	근로복지향상	
26	〃	〃	체육장		시축협회 회장	남	고홍기	체육발전유공	
27	〃	〃	애향장		한마음협의회장	남	목태신	지역발전유공	작고
28	〃	〃	효열장		시민	여	전금향	경로효친실천	
29	제6회	'94. 10. 6	새마을장		상패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남	신현우	새마을운동활성화	
30	〃	〃	근로장		동안동 자율방범대원	남	이원철	근로복지 증진	
31	〃	〃	체육장		생연2동 바르게살기운동부회장	남	박도연	체육발전유공	
32	〃	〃	애향장		생연3동 동정자문위원장	남	함성찬	지역발전유공	
33	〃	〃	효열장		시민	여	이옥례	경로효친실천	
34	제7회	'95.10. 6	문화장		동두천여상 교장	남	홍경섭	지역교육발전	
35	〃	〃	새마을장		동안동새마을지도자	남	최광석	새마을운동활성화	
36	〃	〃	근로장		동두천전화국 직원	남	최원규	근로복지향상	
37	〃	〃	체육장		전동두천초등학교교사	남	송길원	체육발전유공	
38	〃	〃	애향장		시민	남	백학종	지역발전	
39	〃	〃	효열장		광암동 부녀회장	여	최금순	경로효친실천	
40	제8회	'96.10. 5	문화장		동두천문화원 이사	남	이명수	지역문화발전	
41	〃	〃	새마을장		지행동시설채소작목반장	남	이덕재	새마을운동활성화	
42	〃	〃	근로장		농어민후계자연합회장	남	이구성	새마을운동활성화	
43	〃	〃	체육장		동두천시빙상연맹회장	남	김홍수	체육발전	
44	〃	〃	애향장		통장	남	양학종	지역발전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45	제8회	'89. 9. 25	효열장		주부	남	조금현	경노효친실천	
46	제9회	'97. 10. 6	문화장		사진작가	남	이필성	지역문화발전	작고
47	〃	〃	새마을장		주부	남	김명임	새마을운동활성화	
48	〃	〃	근로장		환경미화원	남	정해성	근로복지향사	
49	〃	〃	애향장		사업가	남	이광성	지역발전유공	
50	〃	〃	산업장		작목반장	남	안윤재	농업발전유공	
51	〃	〃	체육장		체육위원	남	이강수	체육발전유공	
52	제10회	'98.10. 6	시민봉사장		전시위원	남	김경차	시민봉사	
53	〃	〃	문화체육장		사업가	남	어윤선	문화・체육	
54	〃	〃	지역개발장		사업가	남	박무하	지역개발	
55	〃	〃	향토애향장		숙박업	남	이채혁	향토발전	
56	〃	〃	효행선행장		음식업	남	홍재승	선행부문	
57	제11회	"99.10. 6	시민봉사장		신체장애인복지회장	남	최홍철	시민봉사	
58	〃	〃	문화체육장		볼링연합회장	남	이정식	문화・체육	
59	〃	〃	지역개발장		중앙동 시의원	남	김택기	지역개발	
60	〃	〃	향토애향장		중앙동바르게살기협의회장	남	정문석	향토・애향	
61	〃	〃	효행선행장		보산동새마을금고이사장	남	이종오	효행・선행	
62	제12회	'00.10. 6	시민봉사장		시민	남	남택윤	시민봉사	
63	〃	〃	문화체육장		임대업	남	차영환	문화・체육	
64	〃	〃	지역개발장		사업	남	안민규	지역개발	
65	〃	〃	향토애향장		주부	여	김명자	향토・애향	
66	제13회	'01.10.20	시민봉사장		새마을지도자동두천시협의회장	남	장호순	시민 봉사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67	제13회	'01.10.20	지역개발장		노인대학장	남	홍인기	지역개발	
68	〃	〃	향토애향장		개인택시운영	남	이용섭	향토・애향	
69	제14회	'02.10. 5	시민봉사		소요동 주민자치위원	남	이영기	시민 봉사	
70	〃	〃	문화체육		불현동 6통장	남	김부현	문화・체육	
71	〃	〃	지역개발		(주)무궁화유지 회장	남	최남순	지역개발	
72	〃	〃	향토・애향		제2건국추진위원장	남	허의강	향토・애향	
73	제15회	'03.10. 6	시민봉사		한국어린이육영회 동두천지회장	여	김군자	시민 봉사	
74	〃	〃	문화체육		궁도협회장	남	목유상	문화・체육	
75	〃	〃	지역개발		(시)지방행정동두천회 동두천시지부부지부장	남	최석동	지역개발	
76	〃	〃	향토・애향		생연2동 주민자치위원장	남	윤상수	향토・애향	
77	〃	〃	효행・선행		시민	남	강준기	효행・선행	
78	제16회	'04.10. 6	시민봉사		시각장애인 동두천지회장	남	김지욱	시민 봉사	
79	〃	〃	향토・애향		의용소방대장	남	양순종	향토・애향	
80	〃	〃	문화체육		한국미술협회 동두천지회장	남	방두영	문화・체육	
81	〃	〃	효행・선행		시민	남	홍재우	효행・선행	
82	제17회	'05.10. 6	시민봉사		약사	남	윤영삼	시민 봉사	
83	〃	〃	문화체육		이담풍물놀이보존회장	남	천재원	문화・체육	
84	〃	〃	향토・애향		동두천시 숙박・목욕협회 지부장	남	정경철	향토・애향	
85	제18회	'06.10.11	시민봉사		농업	남	홍종서	자연 정화	
86	〃	〃	효행・선행		시민	남	이상순	지역 경제	
87	〃	〃	향토・애향		(주)미트코리아닷컴 사장	남	김태열	애향 봉사	
88	제19회	'07.10.6	시민봉사		시민	여	남옥봉	시민 봉사	

호수	회	포상년월일	부문	주 소	직	성별	성 명	공적개요	비고
89	제19회	'07.10.6	문화체육		골프국가대표육성	여	김옥자	시민 봉사	
90	〃	〃	효행·선행		시민	여	윤정실	시민 봉사	
91	〃	〃	향토·애향		시민	남	조중택	시민 봉사	
92	제20회	'08. 10.6	시민봉사		주민자치위원	남	오인근	시민 봉사	
93	〃	〃	문화체육		한국연예협회 동두천시 상임고문	남	김형식	문화 · 체육	
94	〃	〃	지역개발		지방행정동우회 동두천시 지부장	남	정상국	지역 개발	
95	〃	〃	효행·선행		지방행정동우회 동두천시 감사	남	송계영	효행 · 선행	
96	〃	〃	향토·애향		불현동 통장협의회장	남	이필종	향토 · 애향	

동두천문화원 회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고 문	김 성 수	
	오 세 창	
	형 남 선	
	김 성 근	
	홍 경 섭	
자문위원	최 경 준	
	김 재 만	
	진 양 현	
	김 영 숙	
	박 수 호	
	김 홍 규	
원 장	안 민 규	
부 원 장	김 춘 경	
	김 임 순	
감 사	이 상 용	
이 사	김 문 규	
	김 성 권	
	김 자 경	
	김 태 학	
	김 택 기	
	어 성 운	
	이 동 규	
	이 상 출	
	이 영 일	
	이 주 영	
	이 미 라	

직 위	성 명	주 소
이 사	정 충 식	
	천 재 원	
	최 석 동	
	최 영 숙	
	허 의 강	
	홍 순 식	
사무국장	이 계 홍	
회 원	김 근 배	
	김 기 속	
	김 동 순	
	김 병 국	
	김 성 연	
	김 영	
	김 용 재	
	김 장 중	
	류 영 선	
	류 호 정	
	박 병 희	
	박 영 자	
	박 용 철	
	박 재 열	
	박 종 규	
	박 주 연	
	박 진 주	
	박 형 덕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원	안 병 찬	
	안 호 진	
	왕 관 숙	
	윤 문 희	
	이 균 형	
	이 선 화	
	이 성 규	
	이 신 자	
	이 진 숙	
	이 호 정	
	임 상 오	
	임 현 숙	
	전 기 호	
	전 영 구	
	정 경 철	
	정 계 숙	
	정 문 석	
	정 영 숙	
	조 병 선	
	최 명 순	
	최 병 춘	
	최 재 덕	
	한 정 애	
	홍 석 우	
	홍 성 희	

❀ 동두천문화원 보산분원

직 위	성 명	주 소
명예분원장	최 경 준	
직전분원장	이 장 식	
분 원 장	강 영 열	
부분원장	김 태 원	
총 무	김 용 열	
회 원	이 종 오	
	형 남 선	
	이 강 현	
	장 세 동	
	조 철 호	
	김 병 준	
	김 노 경	
	김 창 수	
	홍 오 순	
	전 제 국	
	정 민 호	
	김 진 환	
	윤 상 용	
	김 옥 자	
	이 은 례	
	엄 정 숙	

❀ 동두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직 위	성 명	주 소
소 장	김 택 기	
부 소 장	이 명 수	
총 무	이 계 홍	
연구위원	김 임 순	
	김 재 만	
	김 춘 경	
	백 운 하	
	안 국 승	
	어 성 운	
	이 영 일	
	이 인 규	
	홍 경 섭	
	홍 정 덕	

❀ 동두천문화원 여성회 회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장	이 선 화	
부 회 장	최 은 숙	
	김 희 자	
재 무	박 명 숙	
감 사	김 진 순	
총 무	장 영 숙	
이 사	장 정 숙	
	박 종 순	
	정 미 숙	
	송 연 화	
	여 화 영	
	김 봉 희	
	선 종 엽	
회 원	이 향 숙	
	배 남 희	
	오 길 자	
	박 정 례	
	정 경 재	
	신 경 자	
	박 미 경	
	하 미 순	

직 위	성 명	주 소
회 원	김 효 미	
	김 정 자	
	김 성 주	
	권 계 중	
	이 병 준	
	이 영 란	
	최 영 순	
	한 문 희	
	구 남 순	
	이 재 연	

제 22 집 逍遙의脈

2008년 12월 15일 인쇄
2008년 12월 25일 발행

발행처 / **동두천문화원**
동두천시 상패동 121번지(시민회관 내)
TEL.(031) 865-2923
FAX.(031) 863-1020

발행인 / 안 민 규
편집인 / 이 계 홍
인쇄처 / 도서출판 **화신문고**
(등록번호 2-1529호)
TEL.(02) 2267-4596

〈비매품〉

